



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 163호

가르침에 따라 살면 자연히 신과 가까워진다

청하이 무상사/ 1999. 9. 25.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704

나는 여러분이 일상생활도 하고 명상도 하며 자비롭고 고귀한 활동을 하는 내내 언제나 나와 함께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조건 없이 수많은 일들을 해준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신은 그것을 아십니다. 여러분도 압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알 것도, 알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여러분을 아주아주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은 주변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생활 방식을 향상시켜 고귀한 사랑의 길을 걷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용기와 의지, 결단력과 강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길을 선택해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이에게는 아주 쉽고 어떤 이에겐 쉽지 않겠지만, 어찌됐든 여러분은 현신의 길, 사랑의 길, 여러분과 내가 옳다고 확신하는 이 길을 계속 걷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범을 따르고 있는지 모를 겁니다. 여러분의 예고를 위해서는 모르는 편이 낫습니다.

여러분은 자선 활동을 하고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도울 뿐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영적인 도움도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과 함께하며 사랑과 호의, 관심을 보임으로써 그들의 마음과 눈에 난 보이지 않는 상처를 아물게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인생에서 성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적으로 성공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영적인 삶과 내면의 진보에서 성공했다면, 난 여러분을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라고 여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 여러분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또한 나는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이 접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축복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은 진실된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하며, 또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혼란스럽고 잘못된 생각의 가면에 숨겨져 있는 여러분 자신과 그들의 진정한 모습을 올바르게 이해함으로써 그들을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연약한 존재로, 엉망진창인 패배자로, 심지어는 약한 존재로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 모든 환상 뒤에 숨겨진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상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신의 이름으로 한 일들, 그리고 여러분 자신과 나에 대한 사랑으로 해 온 일들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좋은 일들을 많이 해 왔지만, 사람들이 해 달라고 해서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가난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신의 계획 속에서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여러분이 자비심을 키울 수 있도록 가난한 자의 역할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계발하고 우리가 신이라는 사실을 좀 더 인식할 기회를 준 그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신이라는 것을 좀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과는 상관없이 나는 여러분이 행하는 유형(有形)의 일들에 대해 감사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내 가르침을 따른다는 것을 압니다. 사실 그건 내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대의 많은 스승들로부터 예수나 부처, 크리슈나, 모하멧과 같은 스승들에게로 전해져 내려온 것이며, 다시 우리에게로 이어져 온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르침을 실천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이토록 사랑하는 것이며, 이토록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똑같다는 것을 아니까요. 우리는 하나로서 같은 것을 바라고 같은 것을 행하며 같은 신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 신이 누군지 압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선량함과 순수함, 그리고 가장 고귀하고 이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 이상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는 여러분의 용기에 특히 감사합니다. ♥

시 

당신의 아름다운 빛으로 반짝이는 오늘밤

아홉 살 어린이 동수 린 단 응우옌/ 독일 뒤스부르크 (원문 독일어)

사랑하는 스승님, 정말정말 사랑합니다.
스승님에 대한 사랑은 나날이 커지기만 합니다.
천상에 계신 당신을
만나게 될 때마다
너무나도 성스러운 느낌이 들고
그 즉시 기분이 좋아집니다.

오늘 밤 이 모든 아름다움은
당신의 아름다운 빛 덕분이에요.
이 세상엔 싫은 사람은 없고
오직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뿐이지요.
눈을 들어 천상에 계신 당신을 보면
이 모든 것이 당신 덕분임을 깨닫습니다.
당신이 항상 여기에 계시기 때문이지요.

세상은 그저 아름답기만 해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차지하고 있지요.
전 두렵지 않아요.
스승님은 눈부시게 빛나는
빛이니까요!
당신이 항상 저와 함께 계시고
언제나 이곳에서 저를 이끌어 주시니까요. ♥



CONTENTS

차례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뉴스잡지 163호

출판일자 : 2006. 5. 20.

설립년도 : 1990. 4. 1.

발행처 :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발행인 : Hsieh Hsin-lin

인쇄처 :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대한민국)

TEL : (02) 577-2158/ (042) 543-9250

www.godsdirectcontact.or.kr

chinghaikpt@yahoo.co.kr

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는 한국어, 중국어, 영어, 어울락어, 스페인어, 불어, 독어, 태국어, 일본어, 인도네시아어, 포르투갈어 등 전세계 각국 언어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앞표지 안/	스승님 말씀 가르침에 따라 살면 자연히 신과 가까워진다
3 시	당신의 아름다운 빛으로 반짝이는 오늘밤
5 다채로운 이벤트	영국/ 아르헨티나/ 호주/ 미국/ 대한민국/ 인도네시아
12 행사 메모	
13 당신은 모르실 거야	깨달을수록 IQ가 높아진다
15 과학과 영성	명상은 엔돌핀 분비와 신체 건강을 발달시킨다
16/45/65 매체 보도	명상은 두뇌의 구조와 기능을 향상시킨다/ 소년 수행자, 수행의 모범을 보이다/ 포모사 자유시보/ 포모사 연합일보
19/40 지혜어록	깨달은 사람의 인생관
19 관음 웹사이트	
20 스승님이 말씀하시기를	우주의 발전 속도를 따라잡아라
25 골라 뽑은 수행 문답	더 높은 비전을 갈망하고 긍정적인 미래를 창조하자
26 진실한 이야기	뛰어난 용기의 본보기로 스승님의 은총을 받은 '철의 사나이'
29 사제시간의 편지	그 무엇으로도 보답할 길 없는 스승님의 은총
30 인터넷 속 작은 이야기	악은 신이 창조한 것인가
32 양서 입문	모든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1차 인지 능력(Primary Perception)』
35 수행 일화	식물: 말 없이 감지하는 사랑스러운 존재
36 동물의 유정 세계	동물의 위대한 모성 본능/ 모든 중생에겐 감정이 있다
39 채식 시대	채식, 일류 운동선수들을 만든다/ 두 천재 채식주의자 이야기/ 채식주의가 더욱 큰 힘을 얻다-미국 학교 식당에 채식 점심 코너가 생겼다/ 대안적인 삶
46 신기한 감응	단 한 장의 사진이 해묵은 증오심을 없애다
47 사랑의 실천	태국/ 태국 수재민 구호 활동 일람표/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영국/ 캐나다/ 미국/ 호주/ 파키스탄/ 포모사/ 2005년 10월부터 12월까지 포모사 내 각종 자선 활동 및 구호 활동 지출 일람표/ 2005년 칭하이 무상사와 국제협회의 전세계 재난 구호 활동
57 감사 편지	미국 뉴저지 캠던 시 레번하우스
69 전세계 연락처	
74 스승님의 농담	정말 간단니까/ 이제 알겠지
뒤표지 안	행복한 동물 낙원 건강하고 아늑한 천연 개집
뒤표지	영혼의 고양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CD/ DVD



영국 소식

행복한 황금시대 3년 스승님과 함께한 화상회의와 파티

런던 뉴스그룹 (원문 영어)

[런던] 2005년 12월 31일 런던 동수들은 잊지 못할 저녁을 경험했다. 가장 사랑하는 스승님께서 런던 센터에 오셔서 화상회의를 통해 동수들과 함께 황금시대 3년의 시작을 축하하셨기 때문이다.

런던 센터는 장소가 넓지 않았기 때문에 스승님을 보려는 많은 동수들을 수용해 화상회의를 진행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부지런한 작업 팀은 쉬지 않고 일하며 동수들을 친절하게 맞이했고 화상회의를 위한 기술 장비도 설치했다. 많은 사형사자들이 열심히 일해서 센터는 잔치 분위기로 들뜨게 되었다.

밤 9시가 막 지날 무렵 스승님께서 도착하셨다. 스승님은 이 세상에 내려온 존재 가운데 가장 아름다워 보이셨다! 스승님은 무한한 사랑을 담아 모두에게 인사를 건넸다. 스승님을 처음 뵙는 동수들은 스승님이 발산하는 따뜻함과 기쁨을 직접 느끼며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했다.

이어서 화상회의가 시작되었다. 스승님은 전세계 여러 센터와 통화하시며 동수들에게 행복한 새해를 기원하셨다. 오랜만에 스승님을 뵙고 스승님의 목소리를 듣게 된 동수들은 환호하며 기뻐했다. 몇몇 센터는 화상회의 도중 기술적인 문제에 부딪히기도 했

지만 스승님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축복의 빛은 그에 아랑곳없이 모두를 기쁨으로 충만케 했다.

화상회의를 마친 후, 스승님은 동수들을 위해 사오신 민스파이와 크리스마스 푸딩을 내놓으셨다! 모두들 이렇게 특별하고 드문 모임에서 축복이 가득 담긴 디저트를 먹으며 스승님의 순수한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었다.

자정이 되기 30분 전후로 스승님은 마치 '신데렐라'의 한 장면처럼 이날을 위해 특별히 익히신 몇 가지 마술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하셨다. 동수들은 모두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처럼 스승님의 마술을 보며 웃고 즐거워하면서 황금시대 3년을 맞이하는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센터 주변의 이웃집에서 폭죽 터지는 소리가 들려오는 가운데 모두에게 무알콜 샴페인이 제공되었으며, 그후 스승님과 동수들은 계속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다. 들뜬 분위기 속에서 모두들 즐겁고 행복해했으며, 기쁨의 눈물과, 웃음, 축복 그리고 뭐라 말할 수 없는 감정들이 순수한 사랑의 바다처럼 동수들 사이에서 흘러 넘쳤다. 모든 동수들에게 있어 그날 밤은 정말 여태껏 경험해 보지 못한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가장 멋진 새해 축하 행사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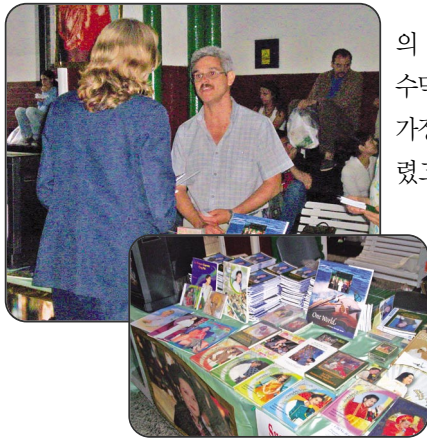


아르헨티나 소식

채식 대회에서 심신을 함양하다

부에노스아이레스 뉴스그룹 (원문 스페인어)

[부에노스아이레스] 2005년 12월 10일, 아르헨티나 채식 연맹(AVU)이 주최한 제2회 전국 채식 대회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인테르아메리카나 통신 대학(Interamericana Open University)에서 ‘음식의 예술’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 지역 동수들과 방편법 수행자들은 2004년과 마찬가지로 행사에 참가해 부스를 차리고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주는 강연을 통해 대중에게 스승님과 그 가르침을 소개했다.



행사 시작 전, 스승님의 사진이 담긴 대형 현수막이 관음법문 부스에서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걸렸고 스승님의 생애를 소개하는 비디오와 강연 비디오 몇 편이 계속해서 상영되었다. 많은 방문객들이 발걸음을 멈춘 채 오랫동안 주의 깊게 비디오를

시청하고 관음법문에 관해 질문했다. 자연요법을 하는 의사와 다른 부스의 참가자들도 여러 번 우리 부스를 방문해 수행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에게 나눠줄 견본책자를 받아갔다.

대회 기간 동안 동수들은 자신들의 조국도 황금시대를 맞이하게 됐다는 것에 기뻐했다. 제1회 전국 채식 대회는 국제 비정부 기구(NGO)인 애니마 나투라리스(Anima Naturalis) 아르헨티나 지부와 동물보호협회(PETA)의 공동 주관으로 황금시대 원년인 지난 2004년

9월에 처음 개최되었다. 이 두 단체는 열성적으로 채식주의를 알리고 동물의 생명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아르헨티나에서 각종 활동을 펼치고 법안을 건의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 법안은 이미 통과된 상태이다. 또 AVU의 새로운 지부가 바야 블랑카(Bahia Blanca)에 생기기도 했다. 스승님의 축복으로 아르헨티나 국민의 의식이 매우 분명하게 변하고 있는 듯하다.

이번 행사에서 한 사저는 ‘영성과 채식’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고 우리의 반려 동물들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신의 자녀인 우리는 신의 영광을 대표해야 하며 고상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로부터 위대한 성인들은 모두 채식을 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사저의 연설이 끝나고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 동안 행사장은 스승님의 힘으로 넘쳐흘렀다. 참석자들은 뜨거운 반응을 나타내며, 성경에서 부분들이 검열을 받았던 까닭에 채식을 하라고 했던 예수의 가르침이 왜곡되었으며 예수는 포도주를 마신 것이지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다. 나중에 한 참석자는 “강연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느낀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강연을 들은 많은 청중들이 우리 부스를 찾아왔다. 동수들은 이들에게 견본책자와 수행에 대한 정보를 주는 한편 돌아오는 토요일에 있을 비디오 강연회에 이들을 초대했다. 이 중 몇몇 신실한 구도자들은 그날 강연회에 참석하고 방편법을 배웠다.

그날 오후, 다른 발표자들은 채식을 하면 미네랄 성분이 부족하게 된다는 의문을 없애 줄 멋진 정보를 제공했다. 그리고 나서 자연요법을 하는 한 노(老) 의사가 여러 가지 색깔만 있을 뿐 공기는 없는 홍측한 행성을 여행했던 신비한 경험에 대해 동수들에게 이야기해 주며 왜 자신이 그곳에 갔는지 모르겠다고 의아해했다. 그것은 자신이 스스로를 죽게 한 것이라ں 말을 듣고는 매우 놀라며 그 의사는 “그게 무슨 뜻이죠?”라고 계속 물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성전입니다. 따라서 몸을 보호하지 않는 것은 죄악입니다.”라는 대답을 해주었다. 그러자 그 의사는 음식이 곧 우리의 약이며, 사실 질병이란 존재하지 않고 아픈 사람만이 있을 뿐이라고 하면서 ‘자연요법(Natura Medicatrix)*’은



우리를 보호하고 면역성을 강화하며 인체를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2회 전국 채식 대회에

참석한 모든 동수들은 채식을 하는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스승님에 관한 소중한 정보를 전하면서 많은 수확을 거두었으며, 함께 일하면서 소중한 교훈을 배울 수 있었다. 모두들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었던 것에, 그리고 지구 곳곳이 점점 더 영적으로 고양되고 있음을 목격할 수 있었던 것에 기뻐했다. ♥

*동종요법(Homeopathy)의 창시자 사무엘 하네만(Samuel Hahnemann)의 정의에 따르면, 자연요법이란 정상적인 상황에서 신체 기능을 조절하고 신체에 자기 치유 능력을 제공하는 본능(생명력)을 뜻한다.

호주 소식

새로운 명상홀에서 행복한 화상회의를 통해 새해를 맞이하다

호앙 칸/ 캔버라 (원문 어울락어)



[마루란/캔버라] 마루란(Marulan)은 호주의 시드니와 멜버른 사이의 흙(Hume) 고속도로 부근에 있는 작은 읍이다. 마루란 센터는 그 조용한 교외에 자리 잡고 있다. 2005년 12월 말, 시드니, 캔버라, 멜버른, 브리즈번, 그리고 울런공(Wollongong)에서 온 약 120명의 동수들이 마루란에 모여 2005년 연말 선 행사와 마루란 센터의 새 명상홀 준공식에 즐거운 마음으로 참석했다.

명상홀은 동수들에 의해 지어졌는데, 몇몇 동수들은 멀리 시드니와 캔버라에서 수 마일을 달려와 돕기도 했다. 명상홀을 짓기까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스승님의 안배와 축복 덕분에 2005년 크리스마스 전에 공사가 끝나서 이번 선 행사는 새 명상홀에서 개최할 수 있었다. 선 행사 동안 몇몇 동수들은 내면의 비전을 통해 화신 스승님께서 센터를 방문해 축복해

주시는 모습을 보았다고 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게다가 2006년 새해 첫날 오전 8시에는 인터넷 화상회의를 통해 전세계 모든 동수들의 행복한 새해를 기원하시는 사랑하는 스승님의 밝은 얼굴을 뵈고 자애로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모두들 흥분된 마음과 감동에 휩싸였다. 선 행사 동안 후텁지근한 날씨가 계속되었지만 스승님의 새해 인사는 맑고 시원한 감로수처럼 우리에게 스며들었다.

이렇게 해서 스승님 덕분에 마루란 센터 명상홀과 숙박시설이 성공적으로 지어짐에 따라 이곳 동수들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선 행사를 치를 수 있게 되었다. 센터가 있는 곳은 공간도 많이 남고 조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많은 동수들이 정기적으로 선에 참석하고 영적으로 고양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



미국 뉴욕 소식

가장 성공적인 뉴욕 비디오 강연회

안드레 저우/ 뉴욕 (원문 영어)

[뉴욕] 황금시대 3년 1월 15일, 동수들은 뉴욕 센터에서 일반 대중을 위한 비디오 강연회를 개최하고 스승님의 아름다운 법상과 그림, 만세등 그리고 깨우침을 주는 출판물들을 전시했다.

행사 전날, 날씨가 춥고 비가 왔기 때문에 동수들은 조금 걱정했지만 스승님의 축복으로 행사가 시작되기 4시간 전부터 해가 나기 시작했다 게다가 최근 행사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1999년 스승님의 런던 강연 '용기 있게 삶에 맞서라'가 상영되었다. 참석자들은 모두 주의 깊게 비디오를 시청했으며, 몇몇 사람들은 질의 응답 부분에서 스승님의 깨달은 답변을 듣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 수긍하기도 했다.

강연회 내내 에너지와 감동이 가득했으며, 참석자들은 스승님이 전하시는 메시지를 깊이 새기며 적극적으로 관음법문에 대해 질문했다. 또한 많은 참석자들이 DVD와 CD, 경서를 구입했으며, 방편법을 배우기도 했다. 그 중 아직 방편법을 배우 준비가 되지 않은 한 참석자는 강연장의 신성한 분위기에 완전히 동화된 나머지 30분간의 방편 명상이 시작되는데도 떠나려고 하지 않았다. 또 다른 참석자는 이미 다른 명상법을 수행하고 있었지만 강연에 참석한 후 바로 채식을 하



기로 결정했고, 완전 입문을 준비하게 되었다.

이날 행사는 동수들이 정성을 다해 준비한 맛있는 채식 요리로 더욱 빛을 발했다. 어떤 참석자는 동수들이 만든 채식 치즈 케이크의 맛에 감탄하면서 이 케이크가 치즈가 아닌 두부로 만들어졌다는 말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스승님의 가르침을 접한 참석자들은 만족감과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집으로 돌아갔다. 뉴욕 동수들은 황금시대 3년의 첫 번째 비디오 세미나가 성공적으로 끝난 것에 큰 힘을 얻고 앞으로 이와 같은 행사를 더 많이 열 수 있기를 기대했다. ♥



미국 버지니아 소식

참석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으로 의식 고양이 증명되다

빈센트 응우옌/ 버지니아 (원문 영어)

[버지니아] 2006년 1월 22일, 동수들은 버지니아 센터에서 비디오 강연회를 개최하여 일반 대중에게 관음법문을 소개하고 방편법을 전수했다.

먼저 9.11 재난 때 스승님의 지시로 희생자들을 도와주던 동수들의 모습이 담긴 짧막한 비디오를 상영하는 동안 지각한 참석자들이 계속해서 들어왔다. 이어서 스승님의 생애를 소개하는 비디오 '사랑의 길을 걷다'와 1999년 6월 스승



님의 런던 강연 비디오 ‘용기 있게 삶에 맞서라’가 있따라 상영되었다. 청중들은 끝까지 스승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강연을 시청했다. 비디오 강연이 끝난 후 동수들은 어느 때처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었지만 참석자들은 모두 만족한 표정을 지으며 “스승님께선 이미 우리들의 질문에 모두 답해 주셨어요!”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서 참석자들은 동수들이 준비한 맛있는 채식 음식을 즐겼다. 식사를 하는 동안, 한 참석자는 자신은 친구와 함께 명상을 하고 있으며 레이키(Reiki-심령 치료의 한 형태)를 가르치고 있다고 하면서 “이번 강연회 소식을 들은 후 어느 날 아침, 명상을 하는 동안 내면의 스승에게 다음에 어떤 수행을 해야 할지 물었더니 이곳에 와야 한다고 답해 주었어요!”라고 덧붙였다. 채식 음식을 맛본 후, 그녀는 친구와 함께 스승님의 출판물과 만세등을 둘러보았다. 그녀는 『즉각 깨닫는 열쇠』 중 한 권을 만졌을 때 강한 축복을 느꼈다고 했다. 또한 그녀는 “만세등은 각각 제 몸의 서로 다른 차크라(에너지 센터)를 건드렸어요. 어떤 만세등은 마음의 중심을 열어 주었고, 어떤 만세등은 머리에 강력한 진동을 전해 주었죠.”라고 얘기했다. 한 동수가 중국어로 된 만세등은 제목을 통역해 주자, 그녀는 마음의 중심을 열어 준 만세등은 ‘사랑’, 머리에 강한 진동을 전해 준 것은 ‘완전함’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스승님의 그림에서도 강한 축복을 받았다. 행사 후,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아서 방편법을 배웠으며, 동수들은

그들에게 버지니아 센터의 방편법 단체명상 시간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2006년 1월 비디오 강연회가



끝난 뒤, 버지니아 동수들은 스승님께서 전세계의 의식을 고양시켰기 때문에 강연 참석자들이 질문도 거의 하지 않은 채 의심 없이 스승님의 메시지를 쉽게 받아들인 것이라고 믿으며, 스승님께 깊이 감사드렸다. 실제로 이번 행사에서 거의 모든 참석자들이 흔쾌히 방편법을 신청했고 이 행사를 개최해 준 동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해했다. ♥

미국 캘리포니아 소식

많은 축복으로 큰 성과를 거둔 테트(Tet) 축제

샌프란시스코 뉴스그룹 (원문 영어)

[샌프란시스코] 2006년 음력 설이 다가오자, 샌프란시스코 동수들은 해마다 열리는 테트 축제에 참가하기를 고대했다. 테트 축제는 어울락 교민 사회가 후원하는 음력 설 축하 행사이다. 이번까지 포함해 동수들은 4년 연속으로 테트 축제에 참가해 부스를 차리고 평화와 깨달음, 관음법문에 관한 스승님의 가르침을 나누었다.

우기였지만 축제 당일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맑고 화창했다. 동수들은 활기차게 스승님의 사랑을 나눌 준비 작업을 진행했다. 동수들은 풍성한 무료 채식 간식과 견본책자, 뉴스잡지, 수행에 대한 안내책자와 더불어 채식의 이로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스승님의 ‘대안적인 삶’ 전단지도 함께 나누어 주는 한편, 부스에





마련한 TV를 통해 스승님의 강연 비디오도 상영하였다.

행사가 시작되자 다양한 연령층의 서로 다른 민족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관음법문과 스승님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고자 우리 부스를 방문했다. 발걸음을 멈추고 스승님의 비디오를 시청하던 많은 사람들이 스승님께 감사를 표했다. 그중 일부는 지역 TV나 라디오 방송을 통해 스승님의 강연을 들은 적이 있었고 일부는 1990년대 초 스승님께서 어울락 난민들을 도와주셨을 때 많은 혜택을 입었다고 했다.

50대 중반인 한 남성은 “전 스승님을 기억합니다. 전에 어울락 난민들을 돕기 위해 필리핀 팔라완에 오셨는데, 정말 사랑이 많고 친절하셨습니다.”라고 말했다. 70대의 어울락 할아버지는 뉴스잡지 한 권을 집어 들고선 이렇게 말했다. “전 TV와 라디오를 통해 스승님의 강연을 열심히 보고 듣고 있습니다. 저와 제 가족들은 이미 채식을 시작했습니다. 스승님은 너무도 위대하십니다. 전 정말 스승님의 가르침을 좋아합니다.”

스승님의 경서를 구입한 한 백인 남성은 스승님의 말씀이 그에게 ‘죄면’을 걸었다고 하면서 “앉아서 스승님의 TV 프로그램을 볼 때면 소파에서 몸을 뗄 수가 없어요.”라는 얘기로 우리를 놀라게 했다. 그 말을 들은 동수들은 그의 마음을 이해하며 웃음을 터트렸다. 스승님의 출판물을 한아름 팔에 안고 부스를 떠나는 그의 눈은 행복으로 반짝였다. 이 밖에 어떤 사람들은 스승님의 시를 아주 좋아한다고 말했으며, 어떤 사람들은 동수들이 무료로 제공한 맛있는 채식 샌드위치를 맛보며 고마워했다.

샌프란시스코 동수들은 올해도 테트 축제를 성공적으로 마친 데 대해 매우 기뻐했다. 올해는 예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스승님을 알아보고 스승님의 가르침에 대해 호감을 나타냈다. 동수들은 하루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내면의 신성과 ‘대안적인 삶’의 이념을 일깨워 줄 수 있었던 것을 큰 영광으로 여겼다. 우리는 이런 개념들이 스승님께서 가져다 주신 새로운 황금시대를 반영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언젠가는 모든 존재가 평화와 사랑, 조화 속에 살아가게 되리라 기대한다. ♥

대한민국 소식

어린이 생명사랑 캠프 - 황금 시대의 어린 영웅들

서울 뉴스그룹 (원문 한국어)



[양평] 2006년 1월 9일부터 11일까지 양평에서 제 1회 어린이 생명사랑 캠프가 열렸다. 6세에서 16세까지 모두 30명의 어린이가 참가한 이번 행사는 채식하는 어린이와, 채식은 하지 않지만 채식 생활에 호기심을 가진 어린이를 대상으로 기획되었다. 그동안 채식을 하지 않았던 어린이들은 이번 캠프에서 얻은 좋은 경험을 통해 채식에 대해 좀 더 이해하게 되었고 새로운 채식 친구들도 만나게 되었다.

또한 이번 행사는 자녀를 캠프에 보내고 싶어도 음식 문제 때문에, 또 물고기 잡기와 같은 채식과 어울리지 않는 활동들 때문에 자녀를 마음놓고 캠프에 보내지 못했던 부모들에게도 새로운 대안이 되었다.

캠프 담당자들은 어린이들이 직접적인 경험과 상호 관계를 통해 모든 생명에 대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목표를 정하고 수업을 준비했다. 그 중 하나로



어린이들은 동수가 운영하는 채식식품 제조업체를 견학해서 콩단백으로 채식 ‘고기’와 만두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견학을 하는 동안 어린이들은 모두 채식 제조 공정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때에 따라 메모까지 하는 진지한 모습을 보였다. 이어서 채식의 유익함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한 후, 어린이들은 모두 무료로 제공된 다양한 채식 제품들을 활용해 직접 채식 햄버거와 채식 꼬치 구이를 만들어 먹고 일부 음식을 포장까지 해갔다. 모두들 이 과정을 즐겁고 기쁘게 경험했다. 또한 채식을 하지 않는 아이들은 채식 고기가 진짜 고기보다 훨씬 맛있다고 신기해했다.

이어서 생명사랑 주방 팀은 맛있고 영양 많은 저녁 식사를 준비해 주었다. 주방 팀은 어린이들의 입맛에 맞춰 맵고 짠 음식을 피하면서 유기농 채소를 사용해 채식이 맛있고도 건강에 유익하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어린이들은 동물사랑 실천협회(CARE)에서 운영하는 동물 보호소 두 곳을 방문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처음으로 방문한 보호소에서는 수많은 개와 고양이, 토끼 등이 아이들을 맞아 주었다. 어린이들은 이 협회 회원들이 길에 버려져 다치거나 굶주린 애완 동물들을 구조해 보살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두 번째 보호소는 다친 동물들을 집중적으로 치료해



주는 곳이었다. 이곳에서 아이들은 동물의 고통을 함께 느끼며 사랑스럽게 그들을 쓰다듬어 주었고, 동물을 기르려면 죽을 때까지 가족처럼 보살펴야겠다고 다짐했다.

이 밖에 고등학교 생물 교사인 동수가 모형을 사용해서 해부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종이로 된 내장 기관을 잘라 사람과 개구리 그림에 붙이도록 했다. 그는 “이런 방식을 통해 동물에게도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 뒤 아이들은 야외에서 놀이를 조금 하고 나서 조를 만들어 황금시대를 주제로 한 그림을 그리고 황금시대는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서로 토론을 벌였다. 어떤 조의 아이들은 산과 강을 그린 후 그 안에 많은 동물들을 그리고선 그 그림들이 황금시대의 모습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설명했다. 그 다음 아이들은 별자리를 찾는 법을 배우고 직접 밖에 나가 망원경으로 달과 별을 관찰했다. 이어서 모닥불을 피우고 밤과 고구마 등을 구워 먹고 불꽃놀이를 하며 캠프를 마감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들은 집으로 돌아가기 전 캠프가 진행되는 동안 내내 잘 가르쳐 주고 헌신적으로 봉사해 준 사형사저들에게 감사하면서 이번 캠프가 기대 이상으로 즐겁고 보람 있었다며 다음에도 이런 캠프가 있으면 꼭 참가하겠다고 말했다.

제1회 어린이 생명사랑 캠프에 참가한 황금시대의 어린 영웅들은 모든 생명과 환경을 위한 빛나는 사랑의 모범이 되었다. 앞으로는 이들이 사랑과 환경 보호의 메시지를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한국 동수들은 이번 활동의 성공적인 결과에 기뻐하면서 이 성공을 바탕으로 매년 여름과 겨울에 어린이 생명 사랑 캠프를 계속 개최할 예정이다. ♥



인도네시아 소식

스승님의 가르침이 도서 전시회를 고양시키다

자카르타 뉴스그룹 (원문 인도네시아어)

[자카르타] 2005년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자카르타 동수들은 자카르타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연례 국제 도서 박람회에 참가해 스승님의 가르침을 나누었다. 이번 행사는 2004년 인도양에서 발생한 쓰나미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아체(Ache) 지역의 재건 활동을 소개하는 '재건 중인 아체'를 주제로 백여 개의 출판사가 참가한 가운데 수많은 방문객들이 몰려들었다.



동수들은 이번 행사 참여에 매우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늦게 신청한 탓에 부스를 얻을 수 없었다. 하지만 박람회가 열리기 며칠 전, 주최측으로부터 한 참가자가 부스 등록을 취소했다는 연락이 왔고, 이렇게 해서 부스를 얻게 된 동수들은

은 신의 완전한 안배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동수들은 스승님의 출판물과 스승님의 대형 법상을 부스에 전시하는 한편, 스승님의 비디오 강연을 계속해서 상영함으로써 스승님의 지혜로운 말씀이 전시장을 축복하도록 했다.

이번 박람회는 유세프 칼라(Jusuf Kalla) 인도네시아 부통령의 진행으로 개막되었다. 개막식이 끝난 후 동수들의 부스에 들른 부통령에게 한 사저가 견본책자와 VCD를 주자 “아, 이건 명상에 관한 책인가요? 잘 보겠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을 때 도움이 되겠군요.”라고 말했다.

행사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스승님의 비디오 강연을 시청했다. 그 중 한 부부는 선 채로 오랫동안 주의 깊게 비디오를 시청했다. 그래서 동수들이 의자를 내어주며 앉아서 보라고 권하자 그들은 고마워하며 계속해서 비디오를 시청했다. 또한 많은 방문객들이 “이 아름다운 숙녀는 누구신가요? 이분은 어디 분이시죠?” 하고 물으며 방편 명상법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이미 스승님의 책을 읽은 몇몇 방문객들은 스승님께서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실 계획이 있는지 질문하기도 했다.

박람회가 끝나기 바로 전날 저녁, 동수들은 멋진 기회를 얻어 행사장 중앙 무대에서 스승님의 1999년 세계 종교회의의 강연 비디오를 상영해 많은 참석자들의 발길을 모았다.

그 다음 날 국제 도서 박람회가 끝나자 동수들은 이번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신 스승님께 깊이 감사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영성에 관심을 가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황금시대로 계속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행사 메모

현재 진행 중인 지구의 영성 고양에 발맞춰 정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에서는 세계 곳곳에서 비디오 강연회와 웅변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친구, 친척들과 참석해 스승님의 사랑과 지혜를 함께 나누십시오.

최근의 홍보 활동 일정에 대해선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latest_news/events-datebook.htm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ch/latest_news/events-datebook.htm (중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kr> (한국어)



깨달을수록 IQ가 높아진다

청하이 무상사/ 2005. 2. 26. 헝가리 선 행사 (원문 영어)

수행이 높아질수록 IQ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동수들 중에는 천재적인 지능을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IQ가 150이나 140 정도 되면 천재적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 중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지요! 하지만 겉모습은 때로 사람을 속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 바보 같지만 그렇지 않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똑똑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수행 등급이 높아질수록 IQ도 높아집니다. IQ가 높아지면 깨달음도 높아지지요. 아인슈타인이 왜 그렇게 똑똑했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그는 채식주의자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뭔가를 수행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런 사람이 왜 채식주의 했겠습니까? 그 당시엔 채식이 뭔지 아는 사람도 극히 드물었지요!

그러므로 아인슈타인이 채식주의 했던 것은 분명히 그가 어떤 요가 수행자에게서 명상을 배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IQ가 높아진 거지요. 당시엔 그런 일이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요가가 뭔지 아는 사람도 거의 없었고 명상을 하거나 채식주의 하는 사람도 아주 드물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던 거지요. 그러니 그의 IQ가 높은 것도 당연하지요! 내가 여러분을 그 시대로 보낸다면 여러분은 모두 아인슈타인이 될 것입니다. 그 시대로 바라는 너무 똑똑할 테니까요.

여러분은 모두 아인슈타인입니다. 큰 아인슈타인, 작은 아인슈타인, 미니 아인슈타인이요! 그건 여러분의 IQ가 수행을 하면서 같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영적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모든 통로가 열리고 여러분 내면의 영적 '동맥'과 막고 있던 모든 것이 깨끗해집니다. 심지어 체내의 혈관까지도 깨끗해져서 혈액 순환이 더 잘 되고 정보도 더 잘 전달



되어 모든 것이 더 분명하게 보이지요.

등급이 높아질수록 통로도 더 깨끗해집니다. 그러면 두뇌로부터 좀 더 많은 정보와 좀 더 정확한 지시들을 전달받을 수 있지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명석한 두뇌를 가졌어도, 게다가 그 두뇌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시를 하더라도 여러분의 손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이곳이 막혀 있다면(스승님께서 팔 위쪽을 가리키시며) 아주 적은 정보만이 통과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여러분은 반밖에 일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막혀 있다는 것은 육체의 명확한 작용에도 영향을 줍니다.

수행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똑똑해질 수가 없습니다. 어렸을 때는 똑똑했다 해도 성인이 되어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거나 파괴적인 환경에서 그 영향을 받게 된다면 지능도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수행하는 것은 단지 천국에 가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행성에 사는 동안 이 성과를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다 지혜롭기 때문에 남을 도울 수도 있고 지도자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가 어쩔 줄 몰라하고 있을 때, “그건 쉬워요!”라고 하며 2분 만에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참 젊어 보이는데, 어쩌면 저렇게 똑똑할까?’ 하고 생각할 겁니다.

자신을 시험할 상황에 직면했을 때야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똑똑한지 알게 됩니다. 평소엔 잘 모르고 지내지요. 여러분은 수행을 하며 천천히 성장하고 있지만, 예전에 어리석었기 때문에 아직도 자신이 멍청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중 웃음) 하지만 자신을 시험할 상황이 닥치면 “아, 내 IQ가 좀 높아졌네!” 하고 깨닫게 되지요.

시험을 겪지 않았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러 상황에서 더 많은 시험을 겪을수록 자신이 정말 똑똑해졌다는 것을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똑똑합니다! 얕은 피를 쓴다는 게 아니라 정말 총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자랑스럽게 느껴질 것이며 수행이 정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나 동료들조차 궁금해하겠지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뭔가가 변했어! 대체 뭘 한 거야?”

하지만 여러분이 시험을 겪을 만한 환경에 있지 않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서 달라진 점을 보거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같이 지내야만 차이점을 알아챌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혼자 일하거나 혼자 산다면 당연히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고 여러분 자신도 그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부대끼게 되면 자신이 정말 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들 또한 여러분이 달라졌다는 걸 아니까요! 그들은 어찌된 일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달라졌고 어떤 면에서 성장했으며 그들에게겐 없고, 또 이해할 수도 없는 무언가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곳에선 작은 감자에 불과할지라도 (대중 웃음) 외부에선 두드러진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그 사실을 매우 존중하며 여러분이 얻은 그 성과 또한 매우 존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거기서 멈추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여기 올 때마다 더 향상되도록 여러분을 밀고 견어차고 끌고 문질러댑니다. 여러분은 다음에 집에 돌아갔을 때, 자신이 달라진 걸 알 겁니다! 내가 여러분을 나무라더라도 여러분 자신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단지 여러분이 겪어야 하는 과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제자니까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스승이 되었을 것입니다. ♥

명상은 엔돌핀 분비와 신체 건강을 발달시킨다

줄리 치우 사저/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 (원문 영어)

인간의 두뇌는 1초에 십만 번 이상의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고속 통신 네트워크이며, 죽은 후에도 37 시간 동안 전자파 신호를 송출할 수 있는 강력한 무선 송신기이기도 하다. 이 놀라운 능력 외에 두뇌는 50가지가 넘는 활성 유기 화합물을 생산해 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중 하나가 엔돌핀이라고 알려진 물질이다. 이것은 스트레스와 고통을 경감시키고 노화 현상을 늦출 수 있는 등 다양하고도 강력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1975년 스코틀랜드의 존 휴즈(John Hughes)와 한스 코스터리츠(Hans Kosterlitz)는 알파(α), 베타(β), 감마(γ)라는 세 가지 형태의 엔돌핀이 있음을 최초로 발견했는데, 이 중 베타 엔돌핀은 고통 경감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학자들은 베타 엔돌핀이 병에 저항하는 면역체계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암 세포 성장에 불리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엔돌핀은 두뇌에서 분비되며 많은 자극 요소에 의해 좌우된다. 그 중 하나는 붉은 고추와 같은 특정 향신료를 섭취하는 것으로 고추가 매울수록 엔돌핀의 분비량은 더욱 많아진다. 엔돌핀을 분비시키는 또 다른 인기 식품은 고대 멕시코의 아즈텍(Aztec)인들이 ‘신의 음식’으로 여겼던 초콜릿이다.

육체적 운동 또한 엔돌핀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달리는 사람의 희열감(runner’s high)’이라 불리기도 한다. 조사에 따르면 비디오 게임, 애완동물 쓰다듬어 주기, 자외선 쬬기, 신체 경혈(뜸자리)에 침 맞기 같은 것들이 엔돌핀의 분비를 촉진한다고 한

다. 최근의 한 과학 연구는 위약효과(偽藥效果-placebo effect)와 엔돌핀이 서로 연관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피실험자들에게 가짜 약을 투여했을 때, 그것이 진통제라고 믿는 피실험자의 심리로 인해 엔돌핀이 분비돼 고통이 줄어들었던 것이다.

이 밖에 과학자들은 명상이 신경을 안정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동시에 엔돌핀 분비를 촉진시켜서 평온함을 느끼게 한다는 것도 발견했다. 다음과 같은 스승님의 강연도 이런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깨닫고 나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많은 질병이 사라집니다. 이걸 기적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초능력이 깨어나 우리 몸의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고 없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암이 없어진 걸 발견하게 되지요.” (뉴스잡지 154호 ‘골라 뽑은 수행 문답’ ‘깨달음은 우리에게 내재된 치유력을 일깨운다’ 참조)

스승님은 또 다른 말씀에서 관음법문을 수행하면 잠재적인 질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병이 침입하는 것을 감지하려면, 의식을 매우 청정한 상태로 유지하고 몸을 고도의 경계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일단 병이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느끼면 그 즉시 명상을 하고 오불을 외우면서 자기 자신에게 확고하게 말하십시오. ‘나는 병을 원하지 않는다. 병은 진리가 아니다. 나는 나에게 강요하는 그 어떤 것도 원하지 않는다. 나는 진리만을 원한다.’ 라고요. 그러면 병은 달아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육신에는 본래 병에 대한 저항력이

있어서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환자에게 ‘이 약을 주긴 하지만 당신 자신에게 의지해야만 병이 낫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할 수 있느냐는 자신을 얼마나 믿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무한한 잠재 능력은 각 개인이 그 힘을 얼마나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요.” (뉴스잡지 97호 <스포츠라이트> ‘관음법문을 수행하면 보호막을 얻게 된다’ 참조)

위에서 언급된 연구를 통해 우리는 엔돌핀이 고통 경감과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는 또한 명상이 엔돌핀 분비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관음법문 수행은 스승님께서 말씀하신 ‘진아의 초능력’을 일깨우며 자연스럽게 우리의 동료 존재들에 대해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한다. 또한 이 수행은 스승님의 축복을 서로 나누도록 해서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이 더 많은 행복감을 느끼게 하며, 심지어 스스로를 치유해 신체적인 고통과 멀어지게 해주기도 한다. ♥

참고 자료:

<http://www.godsdirectcontact.net/eng/news/97/index.htm>

<http://www.godsdirectcontact.net/eng/news/154/index3.htm>

<http://en.wikipedia.org/wiki/Endorphin>

명상은 두뇌의 구조와 기능을 향상시킨다

신의 자녀/ 헝가리 부다페스트 (원문 헝가리어)

신은 쓸모 없거나 진부한 개념이 아니라 명상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인간의 두뇌는 과학적으로 설명 불가능한 최대의 수수께끼이다. 오랫동안 연구자들은 인간이 지력(智力)의 10% 정도밖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믿어 왔다. 게다가 두뇌의 어떤 부분은 아직까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알려지지 않은 채 남아 있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이 중요한 기관에 대해 좀 더 이해함으로써 인체의 기능과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 때문에 두뇌에 대한 연구

가 현재 생물학과 의학 분야에서 가장 흥미진진하고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스승님은 관음법문이 ‘만병통치약’으로써 천국의 영

역에 이를 수 있도록 해줄 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삶도 개선시켜 준다고 말씀하셨다. 규칙적인 명상 수행은 수많은 영적 이로움을 줄 뿐 아니라 몸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고 지혜도 발전시켜 준다. 두뇌에 관한 과학자들의 최근 연구 결과는 이런 스승님의 주장을 뒷받침해 준다.

예를 들어 어떤 연구에서는 명상이 뇌파(腦波)를 변화시키고 진정한 행복감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주 1) 또 호주의 한 과학자의 최근 연구는 두뇌 작용에 미치는 명상의 영향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를 제공한다.(주 2) 호주 과학자의 연구에서는 불교 승려들이 일반 재가자보다 훨씬 쉽게 집중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렇게 집중력의 차이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승려들이 뇌에서 외부 정보를 차단하는 식으로 두뇌의 활동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외부 정보는 원래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른 연구에서는 꼭 출가승이 되어야만 명상의 이로운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혔다. 이를테면 명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행위를 할 때의 반응을 살폈는데, 다양한 활동 중 오직 명상한 후에만 행동이 개선된다는 점이 발견됐다.(주 3)

또 다른 실험 결과는 더욱 놀랍다. 일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매일 40분씩 일정한 방식으로 명상을 하게 하자 ‘회백질(gray matter)’이라 불리는 대뇌 피

질의 크기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집중력, 감각인지 능력과 연관이 있는 이 대뇌 피질은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점점 얇아진다. 이에 따라 과학자들은 이 연구 결과가 명상이 수명 연장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다양한 명상법이 뇌 구조와 기능에 서로 다른 변화를 줄 것이라고 가정했다.

명상 방법을 주제로 한 연구도 있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평소 명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요청했다.

1. 그냥 이완할 것.
2. “나는 행복하다.”라는 문구를 외우며 명상할 것.
3. “신은 사랑이다.”라는 문구를 외우며 명상할 것.

그러자 신에 대해 명상을 한 피실험자들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주 4) 이 발견은 관음법문 수행자들에게는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겠지만 물질세계의 현상만을 믿는 무신론자들에게는 깊은 깨달음을 줄 것이다.

위에 언급된 실험 중 일부는 위스콘신 대학, 매사추세츠 종합병원같이 신뢰도가 높은 연구 기관에서 시행된 것이다. 황금시대를 맞아 우리 지구가 계속해서 보다 큰 영적 각성을 향해 진보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연구들이 좀 더 많이 진행되어 더욱 감동적인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 기대해도 될 것이다. ♥

주 1: ‘명상이 두뇌 전파를 변화시킨다.’는 연구

<http://www.news.wisc.edu/10420.html>

주 2: 명상이 ‘두뇌를 훈련시킨다’는 증거

<http://news.bbc.co.uk/2/hi/health/4613759.stm>

주 3: 『명상은 두뇌를 강화시킨다』

<http://www.newscientist.com/article.ns?id=dn8317>

주 4: 『명상이 이롭다면 신은 그것을 더욱 좋게 만들 것이다』

<http://www.newscientist.com/article.ns?id=mg18725154.300>



소년 수행자, 수행의 모범을 보인다

레포키 파블리디스 사저/ 호주 브리즈번 (원문 영어)

네팔의 바라(Bara) 지역에 램 봄존(Ram Bomjon)이라는 15세의 소년이 보리수 아래서 6개월째 조용히 명상을 해 오고 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않았고 일어나서 쉬지도 않았는데, 그의 이런 행적은 수천 명의 사람들과 광범위한 매체의 관심을 끌었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소년 부처'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그가 석가모니불과 여러 가지 닮은 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석가모니불이 보리수 아래서 명상을 하다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다는 점이라든가, 램 봄존의 어머니가 석가모니불의 어머니인 데비 마야 부인과 이름이 같다는 점이 그렇다.

램 봄존은 최근 뱀에 물린 데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가라앉히고 자신을 부처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생각을 없애기 위해 잠시 침묵을 깨고 말했다. “저를 부처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저는 아직 부처의 등급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저 린포체(티베트 용어, 부처보다 낮은 과위를 성취한 사람)의 수준일 뿐입니다. 뱀에 물리긴 했지만 아무런 치료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6년간 명상해야 합니다.”

오직 신에게만 집중하기 위해 모든 물질적인 삶을 포기하고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 수행하는 이 어린 성인은 인류에게 큰 감동을 주면서 영성에 대한 관심을 일깨우고 있다. 그가 더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욕망을 놓고 신을 향해 주의력을 돌리도록 격려할 수 있길 희망한다.

램 봄존이 하고 있는 장기간의 안거 명상은 깨달음을 찾는 한 가지 방법이다. 그러나 사랑하는 스승님은 관음법문을 통해 중도를 가르치시고 명상과 일상생활 간에 균형을 유지해 사회에 봉사하고 세상에서 직무를 다함으로써 다른 이들에게도 훌륭한 모범이 되도록 가르치신다. 이러한 신의 은총 덕분에 우리는 깨달음을 위해 수행하는 동시에 일을 하며 생활해 나갈 수 있다.

우리는 수많은 방법으로 신성을 개발할 수 있으며, 그 중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 램 봄존은 인류가 영성에 대해 좀 더 각성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 어린 수행자의 모범을 통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생활 방식을 받아들이게 되길 희망한다.❤

램 봄존에 대한 원문 기사:

<http://www.telegraph.co.uk/news/main.jhtml?xml=/news/2005/11/21/wbuddha21.xml&sSheet=/portal/2005/11/21/ixportal.html>

깨달은 사람의 인생관

칭하이 무상사/ 1993. 3. 27. 미국 하와이 강연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341



명상이 해답입니다. 명상은 깨어 있으면서 자는 것이며, 자지 않고 자는 것이지요. 명상을 하면 삶과 죽음, 일상생활, 가족 관계, 금전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모든 대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말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불경기와 실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한 때에 거기에 서서 발만 동동 구르거나 우리 몫이 아닌 것을 기다리지 않고 상황에 맞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행복해하며 매일 부딪히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합니다. 많은 질병과 슬픔이 우리를 떠날 것이며, 모든 세속적인 욕망들도 점차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

관음 웹사이트

신과의 직접적인 연결 -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전세계 인터넷

URL: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links/links.htm>

이 포털 사이트는 여러 나라 언어로 된 관음 웹사이트로 바로 연결시켜 주며 '예술과 영성'이라는 TV 프로그램에 24시간 접속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나라별 언어로 된 『즉각 깨닫는 열쇠』 견본책자와 『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를 전자책(eBook)이나 인쇄용 포맷으로 다운받을 수 있고 각 사이트의 온라인 콘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위에 링크된 웹사이트에 접속이 어려운 경우 QuanYin.www@gmail.com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이 더욱더 진보해서 더 높은 은하계에
합류할 수 있도록 도와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고양을 돕는 일입니다.

칭하이 무상사/ 2005. 2. 23.-24.
헝가리 부다페스트 선 행사
(원문 영어)

우주의 발전 속도를 따라잡아라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세상이 변했고, 나도 변했고 여러분도 변했습니다. 모두가 변해야 하며 따라잡아야 합니다. 나는 똑같아 보이지만, 더 이상 똑같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내면의 개념이 변했고 나의 방식도 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변해야 합니다. 생각하는 법을 바꾸고, 자신을 대하는 방식과 명상을 대하는 자세를 바꾸십시오. 여러분은 명상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러니 정말 해야 할 일이 있으면 곧바로 하고 할 일이 없으면 명상할 곳을 찾으십시오. 어디라도 됩니다. 외투를 걸치고 눈발에 앉아 명상해야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한 첫 번째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운이 더 좋을 뿐이지요. 중국에 한

스승이 있었는데, 그는 스승이 되기 전에 사흘 동안 눈 속에서 무릎을 꿇고 입문을 청했습니다. 눈이 두 겹게 쌓인 땅에서 사흘 동안 무릎을 꿇었지만 그의 스승은 여전히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실함을 보이기 위해 팔을 잘라 스승에게 바쳤습니다. 그러자 스승은 감동을 받고 그를 입문시켰지요. 그는 훗날 중국의 6대 조사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2조 혜가-慧可)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팔을 자르라고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대중 웃음) 내 말 뜻은, 여러분은 정말 운이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눈 속에서 명상해야 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거기 앉아 있으면서 마음이 온통 한 곳에 가 있다 해도 신은 여러분의 헌신적인 마음을 알 것이며, 여러



분은 포인트를 얻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됩니다. 마음이 이 세상의 어리석고 세속적이며 하찮은 것에 사로 잡혀 있는 건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이곳에서의 삶은 언제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를 압박합니다. 그러므로 명상할 기회만 있으면 명상해야 합니다. 센터에서든, 버스 안에서든, 공원에서든, 아기를 보고 있든, 언제 어디에서나 명상해야 합니다. 특히 지구가 더 높은 은하계로 합류하고 있는 이런 과도기에는 모든 존재가 축복을 받습니다. 신실한 이들에게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배고프고 목이 말라도 그냥 명상하십시오. 물론 먹고 마실 수 있으면 먼저 자신을 돌보세요. 하지만 명상하는 동안 죽어야 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남는 유일한 것이니까요.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 세계가 새로운 밀레니엄으로 잘 진입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2000년에 세계가 '끝장날' 것이라고 들었을 겁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물론,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니다. 런던에서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말했고 결국 일어나지 않았습니니다. (1999년 6월 9일, DVD No. 662 '용기 있게 삶에 맞서라'를 참조하세요.) 하지만 거의 일어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성서에 나오는 재난들이 모든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 것입니다. 나는 평화 기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더 부지런히 명상해야 한다고 여러분에게 미리 말했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변하면 스스로 이것을 알 것입니다. 명상하면서 등급이 높아지면 스스로 느낄 것이며, 주위의 사람들도 그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빛나고, 마음이 더 열리고, 더 느긋해지고 단순해지며, 더 빨리 이해할 것입니다. 등급이 낮은 사람들은 좀 복잡합니다. 그들은 원래 복잡했는데 아직도 복잡합니다. 그러나 일단 2세계

에서 3세계로 올라가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주 빠르게 달라지지요! 등급이 높아질수록 그 차이가 더 분명해집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좋은 것인지, 아니면 이기적인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로운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일을 내가 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할 수 없지요. 그래서 내가 명상을 더 할수록 여러분과 세상에 더 이롭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보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게 아닙니다. 항상 그래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는 결코 여러분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끼지 않는데, 여러분은 왜 나와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끼는 거지요? 내가 여기에 있든 동굴에 있든 나는 결코 여러분과 떨어져 있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왜 떨어져 있다고 느끼고 나를 봐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여러분은 살면서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그것은 '필요한' 것과 '바라는' 것이지요. 필요한 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일어나야 하고 생겨야 합니다. 하지만 바라는 것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가져야 하니까 상관없지만, 바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이나 내일 아니면 다음해에 나를 보고 싶어한다 해도, 내 육신이 얼마나 유지될겠습니까? 나는 여기에 있습니다. (스승님 지혜안을 가리킴.) 나는 이 안에 있어요. (스승님이 가슴을 손짓함) 제일 좋은 것은 여러분이 하루 24시간 동안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러분이 명상을 하고, 선행하고, 다른 이들을 잘 대해주고 신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가 함께하는 방법입니다. 같은 방향을 보는 것이지요. 기억나나요? 사랑은 서로의 눈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일을 하고 같은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도 언제나 함께할 것입니다. 영원히요. 우리는 이 세상이 더욱더 진보해 높은 은하계에 합류할 수 있도록 도와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고양을 돕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나와 하나가 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 있다고 해도 우리는 천 리 만 리 떨어져 있는 것이며 나와 하나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어리석은 생각을 따를 뿐, 내 말에는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 주변에 앉아 있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차라리 집에 가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은 시간을 아껴야만 합니다. 불필요한 일은 하지 말고, 해야 할 일은 빨리 하십시오! 1초가 여러분의 생명이며, 1/2초가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명상을 잘해서 온 우주의 성인의 대열에 합류해야 합니다. 뒤처지면 안 됩니다. 뒤쳐진다면 그들이 여러분을 비웃을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은 내 제자이니까요! 부처가 되는 것은 쉽습니다. 옳은 방법을 찾아 수행을 하면 됩니다. 그것은 과학과 같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연구하면 찾게 되는 거지요.

자연스런 모습 자신에게 진실한 것이다

외모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 뭐라고 말하든,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든 신경 쓰지 마십시오. 어차피 온 세상이 환상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어떻다고 생각하든 상관없습니다. 겉모습은 때로 사람을 속이므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여러분은 자신의 여기(스승님이 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으심)가 진실한지 스스

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도덕군자처럼 보이려고 외면을 꾸미지 마십시오. 매스꺼우니까요. 모두들 여러분이 좋다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한테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정말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그런 모습을 기대할 것이고 여러분도 자신이 괜찮다고 생각하곤 언제까지나 그 모습으로 남아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자신을 점검하지도 않고 개선하지도 않겠지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다정하게 미소 지으며 센터에서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모두가 여러분을 성인이라 생각할 것이라고 여길 테니까요. 여러분은 자기 내면의 약점과 낮은 등급을 감추려 하는데, 이걸 정말 여러분에게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효과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게 먹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계속해서 미소 지으며 일하고 돕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 때마다 여러분은 일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여러분이 정말 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여러분이 미소 짓거나 즐거워하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성인으로 여깁니다. 이런 방법이 통하니까 계속해서 그 방법을 쓰게 되지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런 외적인 가면을 사용할수록 내면의 진아와 더욱더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 방법이 효과가 있으니 계속 쓰지 않겠습니까? 얼마 후엔 여러분도 자신이 정말 괜찮다고 여기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신실하게 내면의 진보를 갈망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게 되지요. 외모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속입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여기 와서 내게 만 배를 한다 해도 나는 기쁘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명상하라고 말했지 내게 절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귀찮기만 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자기 자신을 직시하십시오. 나나 옆 사람이 아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하는 게 옳은가? 정말 나 자신에게 솔직하고 진실한가? 내가 정말 진보하고 있는가?” 내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나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꾸짖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만, 나는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나와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그건 여러분 인생이니 여러분이 아름답게 만드십시오. 쓰레기를 가져와서 자신을 위해 모두를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센터에서 주의를 끄는 것은 외부에서 주의를 끄는 것만큼이나 나쁜 일입니다. 모두 명성과 이익을 위한 바람인 거지요.

그러니 주의하십시오. 언제까지나 그 자리에 머물며 그런 가식에 의지해 이 사회에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육체든 똑같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잠시 이 육체에 머무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외모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저 솔직하고 신실하며 진실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연스러워지십시오. 나는 그런 게 좋습니다!

더 많이 봉사할수록 더 확장된다

여러분 가운데 몇몇 사람들의 문제는 여기에 와서 자신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 신경 쓰지도 않으며 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괜찮지만 그건 너무 이기적입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 와서 명상만 하고 신에게만 집중한다면 그건 훌륭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자기가 차지하려 하고 스승의 주의를 끌려고 하며 동수들의 자리를 차지하려 하는 등 좋은 것이란 좋은 것은 모두 가지려 한다면,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기중심’적인 것과 ‘이기’적인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이란 자기 자신에 집중하여 명상한다는 것으로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 신경 쓰지 않으며 여러분과 관계없는 뒷말과 같은 일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건 올바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것은, 뭐든지 자기만 가지려고 하는 것으로서 여러분에게 좋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여기에 오더라도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심지어 포인트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기심은 언제나 포인트를 잃게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 자신만을 위해 가지려고 집중할 때마다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반면 사랑과 무조건적인 헌신으로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자 하면 얻게 됩니다.

모순적으로 보이지만 이것이 우주의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 심지어 어느 한 사람을 위해 봉사할 때마다 여러분은 확장됩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나 오오라가 적어도 그 사람에게로 확장됩니다. 반대로 “나는 이것이 필요해.”, “나를 위해 이 모든 것을 갖고 싶어.” 하고 자신을 생각할 때면 여러분은 그 틀에 갇히게 됩니다.

봉사하면 할수록 더욱더 확장되고 더욱더 커집니다! 나는 20년 동안 이에 대해 말해 왔습니다. 그럴때면 여러분은 “예, 맞습니다. 스승님! 참 좋은 말씀이네요.”라며 모두 알고 있다고 하지요. 그러나 내 말을 진정으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실행하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여러분 중 누구를 겨냥해 하는 말이 아니라 보편적인 상황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기심과 에고의 문제가 남아 있는 사람들은 어서 그걸 버리십시오!

여러분은 움켜쥘수록 더 잃게 됩니다. 매우 역설적으로 보이지만 우주의 법칙은 이렇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향상시키세요. 여러분이 좋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면 힘껏 해 보십시오. 나는 이 세상이 여러분에게 매정하다는 것을 압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에게 항상 문젯거리와 장애를 가져다 줍니다. 심지어



어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이해하고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조차 언제나 문제를 일으킵니다. 나는 이것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한 것들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화를 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그대로 둘 뿐입니다. 여러분이 모른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나는 이 세상에서 수행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을 끌어내리려 하니까요. 막 앉아서 명상하려는 순간, 어제 일이 다시 떠오릅니다. 어제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괴롭혔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지요. 며칠 동안 계속해서 생각납니다. 때로는 몇 주나 몇 달 동안, 때로는 몇 년 동안이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언제나 지난주에 여러분을 가슴 아프게 했다면 하루나 일주일 괴롭고 마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죠! 그것은 언제나 다시 생각 나서 가슴을 후벼 팝니다. 여러분이 온 힘을 다해 여기에(스승님이 지혜안을 가리키심) 집중하고 신을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해도 매우 어렵습니다. 나는 그것을 압니다. 그러니 노력하기만 하면 됩니다. 어찌됐든 여러분의 노력은 이미 결실을 맺었습니다. 온 하늘이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영적인 진보만이 우주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도 됩니다. 질문이 없으면 다시 명상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일입니다. 명상은 여러분의 삶을 더 좋게 만들고 이생에서 갇아야 할 정업도 청산해 줍니다. 명상을 하면 업도 줄어듦, 세상이 더욱더 고양되도록 도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주가 단결되고 균형을 이루도록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행성은 너무 높고 어떤 행성은 너무 낮지 않게 되지요. 각 행성의 차이가 너무 크면 행성 간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예전에 행성 간에 전쟁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말하자면, 각 행성 간의 진동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서로 전쟁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명상을 통해 평온한 분위기를 가져와야 합니다. 이 세상이 평화롭더라도 다른 행성이 평화롭지 않으면, 여전히 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행성의 전쟁이 아니라, 별들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지요.

이 지구는 전에 파괴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지구는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했었지만 많은 지식에 비해 영적인 측면에서 발달하지 못해 다른 행성들과 전쟁을 했고 다른 행성들도 그에 응전해서 많은 것들이 파괴되었습니다.

예전에 우리의 문명은 지금보다 더 발달했었습니다. 지금 그 수준으로 되돌아가고 있지요. 그때로 되돌아가고는 있지만 지식과 지혜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물질적 성취와 영적 발전이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 행성뿐 아니라 다른 행성들도 파괴할 것입니다. 많은 행성들이 이런 이유로 파괴되었습니다. 물질적인 지식은 너무 많은 데 비해 영적인 지혜가 부족하면 서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행성은 이제 21세기에 들어섰습니다. 21세기란 예수의 탄생을 기점으로 계산된 것이고, 사실이 행성은 예수가 탄생하기 훨씬 오래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상상이 됩니까? 야만인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인간이라 부르지만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문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정글이나 동굴 시대 사람들처럼 지금까지도 서로를 죽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동굴인’이라 부르며 낙후되고 원시적이라 하지만 적어도 그들은 이렇게 큰 규모로 서로를 죽이진 않았습시다! 따라서 물질문명은 우리에게 어떤 위안이나 평화를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영적인 깨달음만이 그럴 수 있지요. 이것은 여러분 자신을 관찰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

더 높은 비전을 갈망하고 긍정적인 미래를 창조하자

청하이 무상사/ 1999. 6. 9. 영국 런던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662

질문: 8월 17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 예언이 많이 들리는데요.

스승님: 8월 17일이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스승님이 농담하심.) 그럼 이제 어디로 도망가야 하죠?

질문: 그날 뭔가가 대기권으로 들어온다는 과학 연구서도 봤습니다.

스승님: 그런 얘기는 이미 여러 차례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혜성이 떨어진다고 한 게 몇 번이지요? 그런 것들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걱정 말아요! 여러분은 천국에 대해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신께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좀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부정적인 것을 보고 그런 예언을 한다면, 그건 그들의 문제입니다. 그의 등급이 부정적인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보다 높은 세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다르게 볼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예언이 항상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명상할 때 무언가를 보는데, 그게 지옥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가 지옥과 가까이 있다는 것이지 우리 모두가 지옥에 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결코 그렇진 않지요! 사람들은 각자의 등급에 따라 봅니다. 아주 신성한 영매일지라도 채식을 하지 않고 가장 높은 스승에게 입문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낮은 비전만을 볼 뿐입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은 믿지 마십시오.

나는 서기 2000년 뒤에도 여기 있을 것이고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 지구의 종말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냥 선하게 살면서 마음속으로 신을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입문을 하지 않고 나에게 배우지 않더라도, 그냥 온 마음을 다해 신께 기도하십시오. 신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여러분에게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보증합니다! ♥

뛰어난 용기의 본보기로 스승님의 은총을 받은 ‘철의 사나이’

어느 날 그는 바다에 이르러 한 노인을 만나게 되었다.
그가 노인에게 “어떻게 하면 맞은편 해안에 갈 수 있나요?”라고 묻자
노인은 “간단하지. 그냥 바다를 가로질러 가면 돼.”라고 대답했다.

위에 정 사저/ 코스타리카

2002년 1월, 나는 한 하청업자를 고용해 코스타리카 산호세에 투자용 콘도미니엄 네 개를 지으려 했다. 그러나 그 하청업자는 일을 마치기도 전에 공사비를 다 쓰고 달아나 버렸다. 남편은 포모사에 남아서 일을 하고 있었고 나 혼자 낯선 땅에서 두 아이를 데리고 있으며 게다가 운전도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스승님께 도와 달라고 기도하는 것뿐이었다. 그 뒤 나는 거리로 나가 도와 줄 용접공을 찾을 수 있었다. 나중에 그의 조수가 더 믿을 만하다는 것을 알게 된 나는 그에게 남아서 그 공사를 끝내 달라고 부탁했다. 임시로 고용하는 동안, 나는 그가 용접 외에 배관, 전기 배선, 목공과 같은 다른 건설 일도 할 줄 알고 철제 유리창과 문도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의 도움으로 기술자나 일반 하청업자를 고용하지 않고 일을 끝마칠 수 있었다.

일을 하는 동안, 나는 종종 현장에서 스승님의 불찬 테이프를 틀었는데, 이 새로운 건축업자는 스승님의 아름다운 목소리에 매료되

어 스승님의 가르침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스승님에 대해 얘기할 때면 그는 아이보다 순수한 모습으로, 여자보다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그는 스승님의 무한한 사랑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특히 뉴스잡지 36호의 내용 가운데 어울락 난민이 감옥에서 스승님께 쓴 편지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그리고 그는 방편법을 배워 매우 빨리 삼매에 들었으며 많은 체험을 통해 축복을 받았다. 그는 스승님의 무한한 사랑과 그 자신의 신실함으로 20년간 끊지 못했던 담배와 술을 바로 끊을 수 있었다. 그의 체험에 너무나도 놀란 나는 그에게 그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몇 마디 해주다가 너무도 고통스러웠던 과거의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말을 멈추곤 했다.

니카라과의 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형은 어렸을 때 원시적인 나무 집에서 살았다. 농부였던 그의 아버지는 아무도 길들이지 못하는 난폭한 말을 빌려와 농사일을 하며 스승님께 생계를 유지해야 했다. 온갖 고생을



해서 말을 길들이고 나면 주인에게 되돌려 주고 다시 길들여지지 않은 말로 바뀌야 했다. 오랫동안 이렇게 고생한 끝에 형편이 좀 나아져 그의 아버지는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사형이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와 보니 여동생이 영양실조로 죽어 있었다. 그의 가족은 그가 여동생의 음식을 자주 뺏어 먹어서 여동생이 죽은 것이라며 그를 탓했다. 그는 깊이 후회하며 대성통곡했다.

그 사형은 짝사랑, 경제적 문제, 다른 압박감으로 인해 너무도 괴로운 나머지 자살도 수차례 시도했다. 10대에 결혼해서 처자식이 생겼지만, 여전히 마음이 공허했으며 허무했다. 이 기간 동안 한 외국인 단체로부터 재능을 인정받아 그는 큰 목공소를 운영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가 18세가 되었을 때 니카라과는 내란으로 분열되었고 군대에 강제 징집되었던 그의 형은 얼마 안 있어 사망하고 말았다. 고문으로 형체도 알아 볼 수 없게 된 형의 시신이 집에 도착하자 사형의 어머니는 정신을 잃었다. 나중에 사형도 군에 입대했다. 전쟁 중 그는 전기 고문과 같은 잔인한 고문을 받았으며, 총살을 당할 뻔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운 좋게도 붙잡힐 때마다 그는 가까스로 죽음을 면했다. 한 번은 적군의 추격을 피해 도망치다 약 15미터 높이에서 바다로 뛰어 들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나서 보니 해변에 홀로 누워 있었다.

전쟁터 어디에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고 총알은 사방에서 날아 다녔다. 결국 그도 다리에 총상을 입고 말았다. 당시 러시아인 의사는 그에게 총알을 제거하면 바로 죽을 수 있으니 총알을 그냥 놔두고 사는 데까지 사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그후 18년이 흘러 다리에 남은 상처는 은색으로 변해 곱아 있지만

그는 여전히 용감하게 거친 공사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또 한 번은 한밤중에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다 실종되기도 했다. 실제로 숲에서 길을 잃은 것이었다. 그때는 하루 종일 걷다 보면 다시 원점이곤 했다고 한다. 길을 잃은 지 3년 만에, 그는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왔다. 해골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 그를 본 마을 사람들은 그가 귀신이 되어 돌아온 것이라 생각하곤 혼비백산했다. 오직 그의 아버지만이 그가 살아있다고 믿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는 아들이 몇 년 몇 월 몇 일에 집에 오겠다고 말하는 꿈을 꾸었기 때문이다. 그가 돌아오자 많은 니카라과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러 왔지만 그는 산에서 있었던 생활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산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동안, 한 번은 울다가 잠이 들었는데 잠에서 깨어나 보니 사자처럼 생긴 야수가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를 공격하지는 않았다. 또 어느 날은 인디언 족에게 붙잡혔다. 그의 얼굴이 머리카락으로 완전히 덮여 있는 데다 그의 눈이 매우 컸기 때문에 인디언들은 그를 유인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수염과 머리카락을 자른 후, 인디언들은 그가 잘생긴 외지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와 비슷한 용모를 가진 자손이 많이 생기길 바라는 마음에서 추장은 그에게 자기 딸과 결혼하도록 강요했다. 사형이 그들의 제의를 거부하면 인디언 공주들이 칼로 위협하곤 했다. 붙잡힌 지 넉달 동안 수없이 탈출을 시도한 끝에, 어느 날 밤 그는 드디어 탈출에 성공했다.

슬픔에 잠겨 산 속을 헤매던 어느 날 그는 바다에 이르러 한 노인을 만나게 되었다. 그가 노인에게 “어떻게 하면 맞은편 해안에 갈 수 있나요?”라고 묻자 노인은 “간단하지. 그



냥 바다를 가로질러 가면 돼.”라고 대답했다. 그는 노인이 놀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곤 그냥 가던 길을 갔다. 그런데 잠시 뒤에 그가 뒤를 돌아보니 노인은 이미 맞은편 해안에 가 있었다. 그때 그는 그 노인이 신선이라고 믿었다. 그는 산에 사는 은둔자들도 만났는데 그들은 말은 좀처럼 하지 않았지만 무료로 그의 병을 치료해 주었다. 은둔자 중 한 사람은 그에게 항상 겸손하라고 말했으며, 또 다른 은둔자는 친구를 멀리하고 말을 적게 하고 지혜안에 집중하라고 충고해 주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는 소귀에 경 읽기처럼 그들의 귀중한 충고를 따르지 않았다.

그가 관음법문에 입문한 후 얼마 안 있어 코스타리카 동수들은 스승님이 기부하신 돈으로 티바스 지역의 빈민들을 위해 다리를 놓고 길을 수리해 주었다. 그 지역은 악의 구렁텅이로 악명 높아서 ‘죽음의 삼각지대’라고 불렸다. 그 지방의 몇몇 사람들은 그곳 주민들을 도우면 큰 문제를 겪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 막 입문한 그 사형은 자원해서 그 공사 일을 맡았다. 그가 일을 시작한 첫 날, 한 마약중독자가 칼로 그를 죽이려 했지만 사형이 오 불을 암송하기 시작하자 그 마약중독자는 체포되어 끌려갔다.

2004년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 사형은 티바스 지역에서 일하다가 실수로 다리를 다쳐 새로 상처를 입게 되었다. 혈액 순환이 잘 되지 않아 상처는 좀처럼 낫지 않았고 검게 부어 오른 다리에선 계속해서 노란 고름이 흘러 나왔지만 그는 계속해서 일을 했다. 센터 동수들은 사형에게 많은 건설 작업을 맡기면서도 그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감내하며 얼마나 많은 사랑으로 희생하는지는 모르고 있었다.

아픈 다리 때문에 일이 느려지자 많은 오

해와 비난이 쏟아졌지만 사형은 결코 이를 설명하거나 자신을 방어하려고 하지 않은 채 그저 “빛은 갇아야 하는 것이지요.”라고 말하곤 묵묵히 받아들였다. 의사는 최근 그에게 다리를 절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제 겨우 30대인 그는 걱정도 하지 않으며 스승님이 항상 그와 함께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면 보통사람들은 하루도 못 돼 감정적으로 무너져 버릴 것이다. 스승님께서 무한한 사랑으로 버팀목이 되어 주지 않으셨다면 그가 어떻게 견딜 수 있었겠는가?

그는 입문을 한 후 관음법문을 매우 소중히 여기면서 스승님은 신이라고 말한다. 일을 마친 후 아무리 늦초가 되어도 그는 새벽 3시면 일어나 명상한다. 한 번은 산 속 추운 곳에서 일을 할 때, 일꾼 몇 명과 오두막을 함께 써야만 했다. 그래서 그는 화장실에서 명상을 했다. 어느 날 순찰 중인 경비들이 이렇게 명상하고 있는 그를 보고선 깜짝 놀랐고 모두들 그에게 문제가 있다고 여겼다. 그러나 사형은 이런 상황에도 동요하지 않고 “명상은 몸에 배인 습관이라서 바꿀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다. 열심히 수행을 한 뒤 그의 삶도 빠르게 변했다. 그는 “빛은 갇아야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많은 부당한 일들을 아무 말 없이 계속해서 견뎌낸다.

사형은 자신이 피땀흘려 번 돈으로 다리를 치료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니카라과에 센터를 지을 벽돌과 철재를 산다. 그렇게 해서 스승님의 빛과 사랑이 전쟁으로 파괴된 조국에 전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이렇게 스승님의 커다란 자비와 은총은 한때 여러 곳을 방황하며 온갖 고통을 겪었던 이 ‘철의 사나이’를 완전히 녹였다! ♥



그 무엇으로도 보답할 길 없는 스승님의 은총

리 사저/ 중국 (원문 중국어)

사랑하는 스승님께

당신께선 오랫동안 고통 속에서 헤매던 제 마음을 열어 주셨고, 기쁨과 활력으로 채워 주셨습니다! 제가 입문하기 전, 저와 제 가족의 삶은 경쟁 그 자체였습니다. 매일 집에서나 직장에서도 허둥지둥 일하느라 급급했고 긴장된 채 지냈으며 자유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제 아이들은 “엄마, 너무 무서워요!”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항상 눈살을 찌푸리며 아이들을 자주 혼내고 때리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와 아이들은 같이 앉아서 문제에 대해 얘기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제가 쉬는 날이면 아이들은 제게서 벗어나기 위해 친구들 집으로 가 버렸습니다. 아이들은 감히 속마음을 터놓지 못했고 저를 싫어하고 멀리했습니다. 그래서 전 더욱더 눈살을 찌푸리게 되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 제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몇 개나 생겨났습니다. 저의 힘겨웠던 삶을 보여주듯이요.

홀로 두 아이를 키우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돈을 벌고, 가사를 돌보고, 사회생활을 하느라 매일같이 저는 무거운 부담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이 사회와 국가, 그리고 사람들에게 쓸모 있는 인재가 되도록 아이들을 교육시켜야만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힘에 부치다고 느껴졌습니다. 일찍 일어나 밤늦게 잠자리에 들고, 쉬지 않고 일해도 늘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제 아이들은 학교 친구나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며 새로운 유행을 따랐으며 먹고, 입고, 노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사람으로서의 도리에 대해 애써 가르치려 했지만 아이들은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소리치고 때로는 매를 들기도 했지만 역효과만 났습니다. 아이들은 오히려 저에게 화를 냈고 우리 사이는 점점 더 멀어지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롭고 괴롭기만 했지요.

스승님, 제 딸과 저를 입문시켜 주시고 제 어깨에 짊어지고 있던 이 부담감을 덜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덕분에 저희 가족은 화목하고, 친밀하며, 다정한 분위기로 충만해졌습니다. 입문한 뒤로 저희 모녀는 동수가 되고 제일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는 수행의 길을 함께 걸으며 서로가 열심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서로를 지지하고 도우며 격려합니다. 스승님께서 저희의 영혼을 구해 주셨고 저희를 천국에 오르는 계단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저희 둘 다 체험이 좋고 날마다 꾸준히 신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무거운 짐을 모두 스승님께 넘기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그 부담을 서로 나누고 스승님의 좋은 도구가 되고자 합니다. 저희는



스승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열심히 수행해 가능한 한 빨리 깨달아서 세계와 인류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전에는 아이들과 일에 제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저는 일을 잘하고 자식들을 잘 먹이고 자식들이 건강하고 행복하며 공부를 잘하기만 하면 만족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중생들이 잘 먹고 건강하고 즐겁고 수행을 잘 해야 우리가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던 거지요. 스승님께서는 자기 자신과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와 적, 모든 중생을 사랑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또한 스승님의 가르침에 따라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 제 자신도 기쁘고 즐겁습니다! 지금 저는 아무 근심걱정 없는 행복한 수행자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스승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스승님, 제 영혼과 무수히 많은 중생의 영혼을 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승님께선 멸망 직전의 지구를 구해 주셨고 이 세계의 모든 중생들에게 황금시대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스승님,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스승님께서 모든 바람을 이루시고, 만사형통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스승님의 진리의 가르침이 이 세계와 우주의 모든 행성에 영원히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

당신의 작은 제자 리 올림



악은 신이 창조한 것인가

만물은 신이 창조한 것인가? 악은 존재하는가? 악은 신이 창조한 것인가?

작자 미상 (원문 영어)

한 유명한 고등 학부의 강의실에서 교수가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도전적인 질문을 던졌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신이 창조한 것인가?” 그러자

한 학생이 용감하게 대답했다. “예, 그렇습니다.”
“신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고?” 교수가 다시 물었다.
“예, 교수님. 분명히 신이 창조하셨습니다.” 학생

의 대답에 교수가 물었다. “만약 신이 만물을 창조했다면 악도 신이 창조한 것이다. 악은 존재한다고 하니, 행위는 행위자의 본 모습을 반영한다는 원칙에 따라 신이 악이라고 추정할 수 있겠군.”

그 학생은 더 이상 교수의 가설에 대해 대꾸하지 못했다. 교수는 스스로 흡족해하며 학생들에게 기독교 신앙은 꾸며낸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입증됐으며 우쭐했다.

그때 다른 학생이 손을 들고 말했다. “교수님,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물론이지!” 교수는 대답했다.

그 학생은 일어서서 물었다. “교수님, 차가움이 존재합니까?”

“그게 무슨 질문인가? 당연히 존재하지. 학생은 추위를 느껴본 적이 없는가?”

다른 학생들은 그 학생의 질문에 키득거리며 웃었다.

젊은 학생은 이렇게 대답했다. “교수님, 사실 차가움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리 법칙에 따르면, 우리가 차갑다고 느끼는 것은 실제로는 열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나 모든 물체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거나 에너지를 전송할 때 측정될 수 있는데, 열은 신체나 물체에 에너지가 생기게 하거나 에너지를 전송하게 만듭니다. 절대 0도(화씨 영하 460도)는 열이 완전히 없는 상태입니다. 그 온도에서는 모든 물체가 불활성 상태가 되어 어떤 반응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차가움이란 사실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열이 없는 느낌을 설명하기 위해 이 말이 만들어진 것이지요.”

그 학생은 계속해서 물었다. “교수님, 어둠이 존재합니까?”

교수는 대답했다. “물론 존재하네.”

학생이 대답했다. “또 틀리셨습니다. 어둠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빛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을 연구할 수 있지만 어둠은 연구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뉴턴의 프리즘을 이용해 흰색 빛을 여러 가지 색깔로 나누고 각 색깔의 파장들을 연구할 순 있지만 어둠은 측정할 수 없습니다. 빛이 한 줄기라도 들어가면 어둠의 세계를 밝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특정한 공간이 얼마나 어두운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빛이 얼마나 존재하는지만 측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둠이라는 것은 빛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젊은이가 교수에게 물었다. “교수님, 악은 존재합니까?” 이제 교수는 우물쭈물하며 대답했다. “물론일세! 내가 이미 말했듯이 우리는 매일 악을 본다네. 악은 비인간적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예들 속에 존재하며 세상 어디에나 존재하는 수많은 범죄와 폭력 속에 존재한다네. 이러한 것들이 악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이 말에 대해 학생은 대답했다. “교수님, 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악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악은 단지 신이 없는 마음 상태를 나타냅니다. 악이란 어둠이나 차가움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신이 없는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어낸 말입니다. 신은 악을 창조하지 않았습니 다. 악은 인간의 가슴속에 신의 사랑이 없는 결과인 것입니다. 마치 차가움은 열이 없는 상태에서 비롯되고 어둠은 빛이 없을 때 비롯되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그러자 그 교수는 틔씩 주저앉으며 물었다. “젊은이, 그대는 대체 누구인가?”

“교수님, 제 이름은 아인슈타인입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지요.” ♥

이야기 출처:

http://www.wm8c.com/does_evil_exist.htm

<http://www.network54.com/Forum/106908/thread/1129713145/last-1130170755/Does+Evil+Exist->

http://www.suite101.com/article.cfm/messianic_judaism/1152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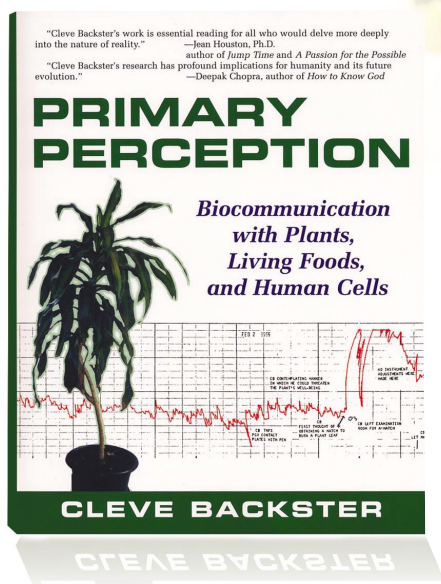
모든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1차 인지 능력(Primary Perception)』

벨마 킹 사저/ 미국 인디애나 인디애나폴리스 (원문 영어)

“과학자는 만족할 줄 모르는 호기심과 보통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해석하려는 열정을 지닌 예리한 관찰자여야 한다. 나는 나의 연구가 이런 원칙을 반영한다고 믿는다.”

-클리브 백스터(Cleve Backster)



클리브 백스터가 쓴 저서 『1차 인지 능력: 식물, 살아 있는 음식, 인체 세포의 생물학적 의사

소통』에는 오랫동안 저자가 경험하고 연구, 발견한 내용이 축약되어 있다. 저자는 54년 동안 맥박

이나 발한 작용과 같은 비주체적 생리 활동을 기록하는 전자기기인 폴리그래프의 전문가로 이름을 떨쳤는데, 이 폴리그래프는 통상 거짓말 탐지기로 쓰이고 있다.

백스터는 상투적인 폴리그래프 기술을 보다 확장해 ‘백스터 거짓말 탐지 학교’와 ‘백스터 지대 대비법’으로 발전시켰다. 이 대비법은 측정자의 의식이나 심리 상태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변화를 판별하는 데 사용된다. 백스터는 최초로 폴리그래프 표를 숫자로 분석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이것은 폴리그래프 과학 영역의 표준이 되었다.

그는 초창기에 최면 연구에도 매우 적극적이어서 최면 후에 나타나는 암시까지 연구했는데, 이는 최면 상태에 주어졌던 암시가 최면 상태가 아닐 때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그의 최면술은 매우 뛰어나서 미 육군 반정보국(CIC)과 중앙정보국(CIA)에서 쓰이기도 했다.

그러나 1966년 우연히 ‘식물의 인지 능력(식물이 어떤 자극이나 다른 생물에 대해 반응하는 능력)’을 발견하게 되면서 백스터는 연구 방향을 바꾸게 되었다. 이 개념을 실험하기 위해 그는 먼저 다 자란 식물의 뿌리부터 잎까지 물이 올라가는 속도를 측정하기로 했다. 먼저 두 개의 감지 전극 사이에 드라세나(홍죽, 또는 행운목) 잎을 두고 그 잎을 고무줄로 감싼 후 전극을 폴리그래프 장비에 연결했다. 그러자 인간이 공포를 느낄 때와 비슷한 반응이 나타났다. 이 놀라운 반응을 보고 백스터는 보다 정확한 조건 속에 더 많은 식물들을 대상으로 인간과 유사한 또 다른 반응들을 발견할 수 있을지 실험하기 시작했다.

백스터는 다음 실험에서 성냥을 들고 식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취했다. 그러자 폴리그래프에는

인간이 피곤하거나 지루해질 때의 상태와 비슷한 반응이 기록되었다. 이어서 마음속으로 잎사귀를 태우려는 강한 의지를 떠올리며 식물의 반응을 관찰하자 성냥을 정말 켜 것도 아니고 식물을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그 식물은 마치 ‘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처럼 폴리그래프 상 최고점을 기록하는 격렬한 반응을 보였다. 백스터의 의도가 식물에게 매우 강하고 사실적으로 느껴졌던 것이다. 이 실험은 식물들이 그냥 한 번 떠보는 생각(식물은 아무 반응이 없었다.)과 강한 의지(식물은 안전을 위협받는 듯한 격렬한 반응을 보였다.)를 분간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게다가 감지기에 연결돼 있던 다른 식물들 역시 같은 반응을 나타냈다.

백스터는 처음으로 발표한 논문에서 서로 인접한 세 개의 방에 있는 식물들을 대상으로 다른 생명체(소금새우)의 죽음에 대한 식물의 반응을 관찰하는 실험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각 식물의 잎사귀 하나에 전극을 꽂고 조절 폴리그래프로 연결된 세 개의 전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측정했다. 폴리그래프와 새우를 죽게 할 시간 설정 장치는 각각 다른 방에 설치됐는데, 실험하는 도중에 식물들이 실험자의 심리에 영양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백스터도 건물 밖으로 나왔다. 그 결과 전극으로 연결된 식물들이 동시에 소금새우의 죽음에 강한 반응을 보였다.

어느 날 백스터는 무정란 달걀에 전극을 붙인 후 전기 피부 반응 장치에 연결해 보았다. 그러자 진동이 너무 빠르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인간의 맥박과 유사한 결과가 폴리그래프에 나타났다. 측정된 속도는 대략 1분에 157박 정도였는데, 이는 앞선 연구에서 부화기에 들어간 지 사흘 정도 되는 유정란을 측정했을 때와 같은 심장 박동 수를 나타냈다. 이 연구는 달

같이 외부 환경과 생물학적 의사 소통을 한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다른 실험에서 백스터는 달걀 하나에 전극을 연결해 심전도를 기록할 수 있게 한 다음 다른 열 개의 달걀이 끓는 물에 ‘떨어지도록’ 장치했다. 연구실로 돌아온 그는 전극에 연결된 달걀이 첫 번째 달걀이 떨어질 때에만 반응을 나타낸 것에 매우 놀라워했다. 이런 결과는 첫 번째 달걀이 끓는 물에 들어갔을 때 나타난 것일 수도 있고, 어쩌면 전극에 연결된 달걀이 다른 아홉 개의 달걀에게 위협이 닥쳤다는 것을 ‘알려주어’ 그들로 하여금 ‘기절’과 같은 방어 상태에 빠지게 했을 가능성 때문에 나타났을 수도 있다. 백스터는 또 다른 추가적인 실험에서도 이런 ‘기절’ 반응을 다시 접하고는 실험을 마쳤다. 그는 달걀들이 모종의 방식으로 서로 의사 소통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 결과들은 달걀에 대한 스승님의 말씀을 뒷받침해 준다.

“달걀을 먹는 것도 살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업적으로 파는 달걀이 무정란이라서 그런 달걀을 먹는 건 살생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말은 그럴 듯하게 들리지만 그 달걀은 수정에 적합한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서 달걀에서 닭으로 발육하는 자연 과정을 마치지 못한 것뿐입니다. 그렇다 해도 그 안에는 발육에 필요한 고유의 생명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난세포만 수정이 되겠습니까?” (『즉각 깨닫는 열쇠』 견본책자 ‘채식의 이로움’에서 발췌)

클리브 백스터는 40년 동안 줄곧 생물 간의 의사 소

통에 관해 연구하면서 이런 실험들을 계속하고 있다. 그중 많은 실험 내용이 그의 책에 실렸다. 이 연구는 다른 생명체에게도 인지 감각(외부 환경이나 현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는 과정)과 동조(기타 사물에 반응하거나 사물을 수용하는 것)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백스터의 연구 결과는 자니 카슨(Johnny Carson), 아트 링레터(Art Linkletter), 머브 그리핀(Merv Griffin), 데이비드 프로스트(David Frost) 같은 유명한 TV 토크쇼 진행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 전체에 알려졌다. 그가 말하는 ‘백스터 효과(Backster Effect)’는 결국 전 세계의 주목을 끌게 되었다. 그리고 그 독창적인 연구 방법은 현재 식물세포와 세균, 인체 세포의 1차 인지 능력을 연구하고 있는 다른 과학자들에게 도입되어 인체 세포와 DNA로 생각과 언어에 반응한다는 것을 관찰하는 데 쓰이고 있다.

끝으로 『1차 인지 능력: 식물, 살아 있는 음식, 인체 세포의 생물학적 의사 소통』은 수행자와 형이상학자들이 이미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실, 즉 인간과 식물, 다른 생명체들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들에게도 인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그러므로 이 책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을 영위하고 후손을 위해 보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수년간의 과학적 연구 성과를 다루고 있는 매우 흥미로운 책이다. ♥

이 주제에 대한 스승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뉴스잡지 120호 <하트 토픽> ‘유전자 변형 음식보다 나은 선택-사랑으로 자라고 사랑으로 마련된 음식’과 <당신은 모르실 거야> ‘진동의 비밀’을 참고하세요.



식물 말없이 감지하는 사랑스러운 존재

푸 웅강 사형/ 포모사 난토우(원문 중국어)

어느 날, 스승님은 시후 센터에서 강연을 하시다가 갑자기 화제를 바꾸시더니 엄하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의 자녀를 잘 돌보세요. 너무 약한 나뭇가지에는 해먹을 걸지 마세요.” 그러고는 다시 원래의 주제로 돌아가 말씀을 이으셨다. 스승님의 말씀이 끝난 후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나는 스승님의 말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면서 센터 경서 판매대 앞에 있는 망고나무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때 호법 몇 명이 해먹 때문에 부러진 나뭇가지를 고정시키는 걸 보고선 ‘아! 나무가 상처를 입었구나. 식물이 고통을 느끼자 만물과 동일체이신 스승님께서 바로 똑같은 고통을 느끼셨던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스승님과 달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꽃, 풀, 나무가 영성과 감지능력이 있는 중생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 “만물동일체”의 이치에 대해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아이들이 막대기로 함부로 식물을 치는 것을 볼 때마다 가슴 아프기 그지없다. 특히 그들에게 내 말이 통하지 않을 때는 더욱더 그렇다. 과학자들은 식물들에게 인지 능력이 있으며, 특정한 상황에서 인간과 같은 반응을 나타낸다는 것을 이미 증명했다. 나 자신의 과거 경험을 떠올려 보더라도 식물들이 우리의 사랑과 관심에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확실하다.

한 번은 친구에게서 작은 분재를 선물로 받았는데, 일이 너무 바빠서 종종 물 주는 걸 잊어버리곤 했다.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든 나는 분재를 사무실로 옮기기로 했다. 그날 나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분재 있는 곳으로 달려가 순수하고 기쁜 마음으로 분재에게 알려 주었다. “내일 너를 사무실로 데려 갈 거야. 그럼 넌 내 동료가 되는 거지!” 그러고서 분재를 만지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그 순간 너무 놀라 재빨리 손을 거두어야 했다. 잎사귀 주위로 반짝반짝 빛나는 뭔가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처음엔 내 눈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서 확인해 보려고 다시 손을 뻗어 보았는데 좀 전에 나타난 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반짝이는 작은 빛들이 분재를 감싸고 있었는데 마치 크리스마스트리의 작은 전구들처럼 아주 아름다웠다. 몇 번을 봐도 똑같았다! 나는 식물이 기쁜 내 마음과 잘 자라

주기를 바라는 내 마음을 알아차리고 행복한 반응을 나타낸 것이라고 여겼다. 나는 딸을 불러 이 놀라운 광경을 같이 지켜보았다. 우리 셋은 말없이 서로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이제는 오랫동안 컴퓨터 모니터를 보다 눈이 아파지면 분재를 쳐다본다. 그러면 식물은 내 눈을 즐겁게 해주며 너무 오랫동안 일에 파묻히지 말 것을 일깨워 준다. 그리고 퇴근할 때면 나는 이 작은 나무를 문 밖에 두어 밤이슬을 맞히고 휴일에는 햇볕을 쬌게 한다. 이렇게 하면 분재가 잘 자랄 수 있을 뿐더러 나 자신에게도 이로움을 주어 정말 일거양득이다!

예민하면서도 빛을 발하는 분재를 통한 경험은 ‘모든 존재에겐 의식과 느낌, 인지력이 있으며 만물이 평등하다’는 스승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다. 그런데 어떻게 아무 생각 없이 동물과 식물 친구들을 해치고 파괴할 수 있겠는가? ♥



동물의 위대한 모성 본능

아선 사형/ 포모사 (원문 중국어)

충명한 개가 신생아를 구하다

황금시대 3년 1월 1일, '보보'라는 이름의 10개월 된 허스키 암컷이 신문에 해서 특필되면서 하룻밤 사이에 포모사의 영웅이 되었다. 보보의 여주인은 미혼모였는데 이 날 진통을 느꼈지만 6개월간 의료보험료를 내지 못한 데다 형편이 어려워서 병원을 찾을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녀는 화장실 변기에 앉아 있다가 아이를 낳고는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갓난아기가 변기에 빠지자 아기 엄마는 몸도 일으키지 못한 채 아이가 익사할까 봐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그때 마침 보보가 욕실로 달려 들어와 수세식 변기 가장자리에 앞발을 올리고 변기 안을 들여다보았다. 아기가 빠진 것을 발견한 보보는 즉시 머리를 변기 안에 넣고 다리로 갓난아기를 꼬집어내 주인에게 안겨 주었다. 아기는 얼굴이 온통 물로 뒤덮여 호흡이 곤란한 상태였지만, 산모는 너무 허약한 나머지 아기 얼굴을 닦아줄 수건을 가지러 몸을 일으킬 수도 없었다.

그러자 보보가 아기 얼굴을 계속해서 핥아대며 물기를 닦아 주었고, 이 덕분에 갓난아기는 목숨을 구하게 되었다. 이 모습에 아기 엄마의 절망감은 사라졌다. 보보는 주인에게 살아갈 의지를 다시 일깨워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래서 아기 엄마는 자선 단체의 도움을 구하기로 마음먹었고, 이에 따라 보보의 영웅적인 행동이 대중의 이목을 끌게 되었다.

어미 개의 위대한 모성에

어느 날 한 떠돌이 개의 새끼 세 마리가 3미터 깊이의 하수구에 빠졌다. 새끼를 구해낼 수 없었던 어미 개는 큰소리로 짖어대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주목을 끌려 했다. 계속해서 짖어대는 어미 개의 심상치 않은 소리에 한 인정 많은 행인이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는 강아지들이 빠진 것을 알고는 곧 지역의 '떠돌이 동물 보호 협회' 측에 구조 요청을 했다. 동물 보호 협회의 자원 봉사 구조대는 새끼들을 찾으려고 하수구 안으로 기어 내려갔지만 하수구 안에서 뻥뻥이 자란 잡초들 때문에 어린 새끼들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았다. 어미 개는 세 시간에 걸친 구조작업 내내 계속해서 짖으면서 구조대원들에게 한 마리도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상기시켰다. 결국 강아지 세 마리가 모두 구조되자 그제서야 짖는 것을 멈추는 어미 개의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다!

새끼들과 다시 만난 어미 개는 매우 흐뭇해 보였다. 강아지들을 구한 것은 어미 개의 기지와 사랑이었다. ❤️

스승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심 덕분에 동물을 비롯한 지구의 모든 존재들의 영적 의식이 두드러지게 고양되었다. 포모사 가오승에서 일어난 다음의 두 사건은 동물의 감동적인 사랑과 높은 지능을 보여준다.



모든 중생애엔 감정이 있다

게리 사형과 카렌 사저/ 일본 도쿄

많은 동물들이 놀랄 만한 지능과 충성을 보여준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지 오래됐다. (뉴스잡지 157호 '개의 사랑과 지능' 참고) 19세기에 이미 과학자들은 동물도 감정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예를 들어, 영국의 자연주의자 찰스 다윈(Charles Darwin)은 1872년에 출판한 『인간과 동물의 감정 표현 (The Expression of the Emotions in Man and Animals)』에서 인간과 동물이 어떻게 신호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다른 이들에게 알리는지 논하고 있다. 다음의 두 기사는 우리 동물 친구들도 정말 깊이 사랑을 느끼고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한다.

금연에 성공한 침팬지



중국 북서부의 한 동물원에 살고 있는 27세의 침팬지 '아이아이' ('아이아이'는 중국어로 '사랑 사랑'을 뜻함.)는 동물원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16년 만에 담배를 끊었다. 이 침팬지는 1989년 그녀의 첫 번째 배우자가 죽고 나서 담배 피는 습관이 생겼는데, 그후 두 번째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고 딸이 다른 동물원으로 옮겨지자 골초가 되었다. 베이징 '신화' 통신사는 아이아이의 소식을 보도하며 고독과 비탄의 감정은 이런 예민한 영장류들에게 확실히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녀가 흡연을 하게 된 것이라고 얘기했다.

동물원 직원들은 아이아이의 금연을 돕기 위해 걷기, 체조, 음악 치료 요법 등을 계획에 포함시켜 그녀의 일과를 풍성하게 해주었다. 심지어 한 직원은 자신의 휴대용 오디오 플레이어와 이어폰을 아이아이에게 빌려 주어, 그녀가 대중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해주기도 했다. 또 직원들은 우유와 바나나, 쌀 등 맛있는 음식을 그녀의 평소 식단에 더해 줌으로써 흡연에 대한 아이아이의 관심을 돌리게 했다.

결국 동물원의 노력은 성공을 거두어서 아이아이는 현재 4개월째 담배를 피우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아이아이의 담당 직원은 아이아이가 외로워할까 봐 사별의 슬픔을 위로해 줄 새로운 배우자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담배와 같은 나쁜 습관들은 그것을 대체할 긍정적인 활동이 없으면 끊기 어렵다. 이에 관련해 스승님은 "대체할 행복이 없다면 누구도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셨다. (2001. 6. 9. 미국 플로리다, DVD No. 719 '나쁜 습관 극복하기') 따라서 동물원 직원들이 아이아이에게 이런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서 아이아이의 몸과 마음을 빠르게 회복시키고 안정시킨 것은 참 흐뭇한 일이다. ♥





동족의 죽음을 예도하는 코끼리

자신의 감정을 강하게 표현하는 또 다른 생명체는 코끼리이다. 육지에서 가장 큰 동물 중 하나인 코끼리는 다른 온순한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채식주의자이며, 거의 3톤 가까이 나가는 엄청난 무게에도 불구하고 시속 50마일(시속 80km)의 속도로 뿔 만큼 민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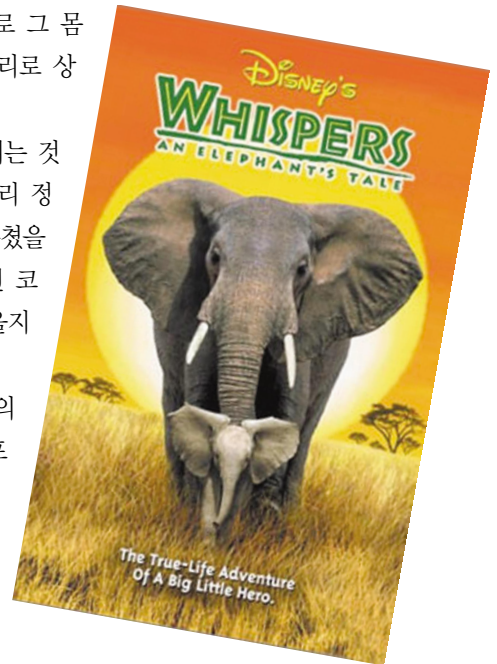


이러한 신체적인 능력 외에 코끼리가 동료의 죽음에 대해 커다란 감정적 변화를 일으킨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예를 들어 서섹스 대학(Sussex University)과 암보셀리 코끼리 신탁 위원회(Amboseli Trust for Elephants) 연구원들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코끼리는 코끼리의 유골과 마주쳤을 때 다른 동물의 유골과 마주쳤을 때보다는 확연하게 더 강한 반응을 보였다. “그들은 다른 포유류 동물의 시체에 대해선 관심이 없었지만 다른 코끼리의 시체에는 반응이 달랐습니다.” 연구원 카렌 맥콤(Karen McComb) 박사의 말이다.

이번 연구 중에 코끼리는 다른 코끼리의 시체를 대했을 때 코로 그 몸을 만지거나 냄새를 맡으면서 시체를 조사했다. 때로는 예민한 다리로 상대의 상아를 가볍게 흔들기도 했다.

이 밖에 기억력과 큰 뇌 용량으로 유명한 코끼리는 눈물도 흘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랑스럽고 온순한 생명체는 다른 코끼리 천 마리 정도와의 관계를 기억할 수 있다. 그러니 그들이 죽은 코끼리와 마주쳤을 때 조심스럽게 면밀히 살피는 것도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어쩌면 코끼리는 자기 동족 모두의 중요성에 대해 인간보다 더 잘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코끼리의 삶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고 싶다면 월트 디즈니사의 영화 ‘속삭임(Whispers): 코끼리 이야기’를 감상해 봐도 된다. 아프리카 보츠와나(Botswana)에서 제작된 이 영화는 코끼리 떼가 밀렵꾼의 공격을 받는 바람에 사랑하는 엄마와 헤어진 아기 코끼리가 생존하기 위해 애쓰는 실제 과정을 촬영한 것이다. 이 영화가 여러분의 심금을 울리고 놀라운 존재들의 내면 세계에 깨달음을 줄 것이라 믿는다. ♥



1. 관련 기사의 원문을 보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세요.

<http://www.stuff.co.nz/stuff/0,2106,3432521a4560,00.html>

<http://www.smh.com.au/news/unusual-tales/chimp-quits-smoking/2005/10/04/1128191706505.html>

<http://www.abc.net.au/science/news/enviro/EnviroRepublsh1497634.htm>

<http://www.animalliberationfront.com/News/200511/ElephantGraveyard.htm>

2. ‘속삭임: 코끼리 이야기’의 내용에 대해선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세요.

<http://disney.wretch.cc/mvdata/data/Whispers.htm>



채식, 일류 운동선수들을 만들다

원원라이 라칸디 사저/ 독일 뮌헨 (원문 독일어)

독일 채식 연맹(Vegetarier-Bund Deutschlands e.V.; VEBU)에서 출판하는 『자연 채식(Natürlich Vegetarisch)』은 독일에서 손꼽히는 채식 관련 잡지이다. 그 중 2006년 1월호에는 ‘독일의 채식 운동 스타’로 세계 보디빌딩 챔피언이자 의사인 알렉산더 다르가츠(Alexander Dargatz, 28세)와 페더급 권투 선수 엘레나 와렌직(Elena Walendzik)과의 인터뷰를 실었다. 이 선수들이 채식계의 스타가 된 것은 고기 한 점 입에 대지 않고도 현재의 자리를 얻어냈기 때문이다.

2005년 세계 보디빌딩 챔피언은 채식주의자



2005년 12월, 알렉산더 다르가츠가 세계 보디빌딩 대회에서 챔피언이 되자 ‘독일의 완전 채식주의자가 2005년 세계 보디빌딩 챔피언으로 등극하다!’라는 제목의 헤드라인 기사가 보도되었다. 이 기사는 프랑크푸르트의 다르가츠가 11명의 다른 선수들과 경합을 벌여 완벽한 승리를 일구어 낸 것에 초점을 두었다.

최근 인터뷰에서 어떻게 채식으로 몸을 만드는 혹독한 과정을 잘 넘길 수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은 다르가츠는 2000년 육식이 동물과 자연을 수많은 방식으로 파괴한다는 것을 알고선 ‘하룻밤 새’ 채식주의자가 되었으며 이제 5년 남짓 되어 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사실 육류 제품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육식을 함으로써 많은 폐해를 유발하고 있지요. 이는 일종의 범죄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나자 채식을 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다르가츠는 또한 채식을 한 후 건강이 좋아졌으며, 거의 병에 걸린 적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 밖에 보디빌딩에 대해 그는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고 묻자 다르가츠는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 “인내입니다. 인내와 끈기지요. 보디빌딩은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억지로 근육을 키울 수 없지요. 여러분이 하는 일에도 시간과 끈기, 헌신, 애정이 필요합니다.” 운동에 대한 이러한 실제적인 태도는 수행을 포함한 인생의 많은 부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두부의 힘’으로 승리한 권투 선수

『자연 채식』에 실린 두 번째 채식 챔피언 운동 선수는 독일 하노버(Hano ver)의 엘레나 와렌직이다. 치의학과 학생인 와렌직은 2005년 독일 페더급 복싱 챔피언이 되었다. 그녀는 열 살 때부터 채식을 했는데, 고기를 먹지 않은 시간이나 권투를 한 시간이나 비슷하다고 했다. 인터뷰에서 와렌직은 어린 시절 농장에서 자랐기 때문에 소들이 충분한 우유를 생산해 내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때부터 그녀는 더 이상



고기를 먹을 수 없었다.

그녀의 이런 변화는 링 안에서의 그녀의 동기와 성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독일 언론은 스포츠에서의 와렌직의 성과만큼이나 채식주의자로서의 그녀의 위상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신문 머릿기사에 ‘하노버 권투 여왕의 두부의 힘!’이라고 쓸 정도이다.

독일, 영국, 미국에서 100여 년 전부터 채식 단체가 결성되었다는 사실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물론 그 당시 인도 같은 나라에선 채식이 자연스러웠지만 서방세계에서는 채식주의를 급진 운동으로 여겼었다. 독일 최초의 채식 단체는 1868년 에드워드 벨체(Eduard Baltzer)에 의해 설립되었다. 벨체는 단체 회원들을 대표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윤리적 이유로 보았을 때 동물 학살은 허용될 수 없는 일이다. 동물은 생존 권리가 있으며, 인간의 보호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부터 채식주의는 계속해서 대중에게 보급되었고, 특히 최근 몇 십 년 사이엔 더욱 인기를 끌게 되었다. 알렉산더 다르가츠와 엘레나 와렌직은 인류의

식이 긍정적으로 진보했음을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이다. 이 고무적인 운동선수들은 자비심의 훌륭한 대표이자 채식이 건강에 이롭고 영양이 풍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산 증인이다. 이들의 행동과 주장은 모든 생명의 신성한 가치를 존중하는 사람들과 우리의 동물 친구들을 대변하고 있다. 그러니 그들을 ‘진정한 영웅’이라 불러도 될 것이다. ♥

참고 사이트:

http://www.vegetarierbund.de/nv/nv_2006_1__Inhalt.htm#Dargartz (독일어)

<http://www.veganbodybuilding.com/article/724> (영어)

<http://www.ivu.org/history/europe19b/baltzer.html> (영어, 독일어)



두 천재 채식주의자 이야기



채식은 영양 많고 건강에 이로우며 지능 개발과 자비로운 마음에 도움이 되며 보다 깊은 영적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므로 성인이나 어린이 모두에게 이롭다. 아래는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다. 두 사람 다 채식주의자이다.

미국 플로리다 뉴스그룹 (원문 영어)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여인

1939년 11월 4일 인디아의 방갈로르(Bangalore)에서 태어난 샅쿤탈라 데비(Shakuntala Devi)는 수학자로서 종종 ‘인간 계산기’,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여인’으로 불린다. 그녀는 세계 여러 대학에서 자신의 가장 유명한 재주를 시험 받았다. 바로 무작위로 뽑은 13자리 숫자 두 개를 곱해 28초만에 답을 내는 것이었다. 이 위업으로 데비는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나중에 ‘그녀의 성적은 검사를 받은 다른 천재들의 계산 능력보다 지나치게 우월하므로 이 감정에 결함이 있는 게 틀림없다’는 이유로 기록이 삭제되긴 했지만 말이다.

이 계산 능력은 미국의 한 일류대학의 수학 교수들 앞에서 이루어졌다. 그 교수들은 기네스북 발행인들의 의구심을 일축했지만 그녀의 성취가 정말 믿기 힘든 것이라는 점에는 동의했다. 데비는 이 밖에도 셀 수 없이



많은 다른 계산 기록들도 경신했는데, 사람들은 그녀가 채식주의자이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수학 천재 중 한 사람인 스리니바사 라마누잔(Srinivasa Ramanujan, 1887-1920)의 환생이라고 여긴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능력의 비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답은 그냥 머릿속에 순간적으로 떠오릅니다. 큰 숫자를 다루는 어려운 시험을 할 때는 미리 2, 3일간 준비를 합니다. 저 자신을 쉬게 하고 마음을 완전히 쉬게 만들어 주지요. 그 기간에는 사적인 문제는 잊어버리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이 방법은 저 스스로를 위해서도 아주 좋은 치료법이 됩니다. 무대에 올라가서는 온통 어떻게 문제를 맞출 것인지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제가 기네스북에 오르긴 했지만, 이는 모두 신의 은총입니다. 어찌됐든 저는 제 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동안 계산할 수 있는데, 일단 시작하면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2, 3일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데비는 인도와 아프리카를 순회하며 어린이들에게 수학을 공부하도록 격려했다. 최근에는 수학 분야에서 조국의 공지를 높이기 위해 인도에서 수학학회를 설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일반용 수학 교습서 몇 권과



범죄 추리 소설 한 권을 펴냈다. 오늘날의 교육 방식에 대해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늘날 대부분 학교에선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가르치지만 어린이를 위한 영적 교육이 빠져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갖춰지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다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데비는 평생 채식을 하면서 남자들을 위한 채식 요리책을 쓰기도 했다. 그녀의 채식 생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일화가 있다. 데비 여사가 미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 채식 음식을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녀는 팬케이크와 메이플 시럽을 자주 먹곤 했다. 팬케이크는 인도 남부의 일반 아침 식사인 도사이(Dosai, 발효된 렌즈 콩으로 만든 얇은 크레이프)를 연상시켰다고 한다. 이 기간 동안 그녀는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의 인간 지능 연구학자인 아더 젠슨 박사(Dr. Arthur Jensen)의 연구 대상이었는데, 젠슨 박사는 한 논문에서 그녀가 늘 팬케이크를 먹는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를 그녀가 정신장애자일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로 제기했다. 이 논문은 훗날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영화 ‘레인맨(1988)’에 참조되었다. 이 영화에서 더스틴 호프만은 데비와 같은 천재적인 수학 능력을 가졌지만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팬케이크를 아주 좋아하는 역할을 맡아 연기했다! 데비는 이것이 전형적인 비채식주의자의 오해라고 실소했다. 사실 젠슨 박사의 논문에서는 데비가 비범할 정도로 다재다능한 수학 천재이며 자비롭고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모범이라고 서술되었다.

미국에서 가장 똑똑한 어린이가 채식을 하게 된 까닭

미국의 유명한 천재 소년인 그레고리 스미스(Gregory Smith)는 13세에 여러 가지 학업 우수상을 받고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는 버지니아 대학에서 4개의 박

사 과정을 밟고 있다. 그는 아홉 살에 평화와 비폭력을 주창하는 ‘국제 청소년 옹호 단체(International Youth Advocate)’를 창설했고 그 후 네 차례나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랐으며 미국 빌 클린턴 대통령을 비롯해 여러 대통령과 노벨 평화상 수상자, 지도자들과 회견을 가졌다. 또한 UN 안전보장회의에 참석하고 ‘기독교 아동



기금(CCF)’의 사절로서 UN 아동 권리 특별회의에 참석하기도 했다. 그레고리의 가장 뛰어난 업적은 전란 중인 케냐에 평화 학교를 설립한 것과 르완다에 공공도서관을 세운 것이다. 그는 이제 열여섯 살이다. 그레고리는 육식을 하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두 살 때부터 채식을 하기로 굳게 마음먹고 나중에는 부모님도 같이 채식하도록 설득했다. 다음은 그레고리가 채식을 하게 된 설명이다.

“제가 채식을 하게 된 데에는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를 위해 건강한 생활을 선택한 것입니다. 만일 세상 사람들이 채식을 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한 달에 두 번 정도만 육식을 한다면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식량을 공급할 수 있으며 기아와 영양 부족에 관련된 모든 질병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구 조사에서도 이미 밝혀졌듯이 영양과 건강은 성공적인 교육 과정을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교육과 세상에 대한 자비로운 이해심은 평화를 추구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합니다. 저는 열 살에 대학에 합격해서 국제 언론의 주목을 끌게 되었는데, 이는 세계 아동의 삶을 보호하고자 하는 제 인생의 사명을 실천하는 기반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학 연구나 생물 의학 응용, 그리고 국제 정치적 발의들은 모두 제 궁극적인 목표를 위한 일부입니다. 제가 현재 설립하고 있는 학술 재단은 저의



미래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저는 조국의 이익을 위해 계속해서 공헌하고 세계에 봉사하길 열망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채식을 지켜 나가고 인류를 돕는 이 비범한 젊은이의 결심은 나이를 뛰어넘는 인품의 깊이와 영적 이해 수준을 보여준다. 그레고리와 그에 앞서 언급된 데

비의 경우는 채식을 하는 것이 매우 현명하고 인생에 이로운 결정이라는 것을 대변해 준다. 또 다른 위대한 채식주의자인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다. “채식이 사람의 성격에 가져다 주는 변화와 정화 효과는 인류에게 대단히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

참고 사이트:

1.<http://www.chennaionline.com/cityfeature/Personalities/humancomputer.asp>

2.<http://www.hinduismtoday.com/archives/2000/5-6/2000-5-17.shtml>

3.<http://www.gregorysmith.com>

채식주의가 더욱 큰 힘을 얻다

- 미국 학교 식당에 채식 점심 코너가 생겼다



다이아나 블리차스키 박사/ 미국 휴스턴 (원문 영어)

미국 조지아 주 애틀랜타에 있는 그라디 고등학교 (Grady High School)의 졸업생인 미리암 아치봉 (Miriam Archibong)과 그녀가 속한 채식 동아리 회원 30명의 노력으로, 미국에서 처음으로 교내 식당에 채식 점심 코너가 생겼다. 그라디 고등학교에서 이전에 제공했던 채식 음식은 심심한 샐러드와 느끼한 치즈 피자뿐이었지만 이제는 채식 햄버거, 채식 에그롤, 파스타 샐러드, 채식 피자, 그리고 두부로 만든 ‘슬로피 조우’ 같은 다양한 메뉴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당초 3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채식 코너는 이제 채식을 하지 않는 학생들까지 몰려 전체 1,200

명의 학생 가운데 400명이 음식을 주문하고 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은 보다 많은 학교에서 이 학교의 사례를 주시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2002년 7월 15일자 『타임지』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천 만 명이 채식을 하고 있으며 다른 2천 만 명이 채식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한다. 또한 어린이가 성인보다 두드러지게 빠른 속도로 채식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부모에게 채식을 하도록 가르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 내 채식 식품 판매는 두 배로 성장하고 있다! ♥



대안적인 삶

Alternative Living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요

여러분의 삶을 바꾸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세요
여러분의 음식을 바꾸세요



더 이상 죽이지 마세요
건강해지고 사랑을 베푸세요

우리 생명을
구해 주세요!
여러분을 사랑해요



영양 많고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음식의 예:

음식	단백질 비율(중량에 따른 백분율)
두부 (콩으로 제조)	16 %
글루텐 (밀가루로 제조)	70 %
옥수수	13 %
쌀	8.6 %
콩, 강낭콩, 치크피(병아리콩), 렌즈콩(lentil) 등	10 - 35 %
아몬드, 호두, 캐슈너트, 개암(헤이즐넛), 잣 등	14 - 30 %
호박씨, 참깨, 해바라기씨 등	18 - 24 %

▪ 과일과 야채에는 풍부한 비타민, 미네랄, 산화방지 성분이 있으며, 건강과 장수에 좋은 고품질의 섬유질이 들어 있습니다.
 ▪ 농축 종합 비타민제 역시 비타민, 미네랄, 산화방지 성분의 훌륭한 원천입니다.

- 조류독감으로 인한 전세계적 유행병의 실질적인 위험을 줄이고,
- 광우병 및 돼지 질병(PMWS 증후군) 등의 위험을 없애고,
- 우리의 사랑스러운 가축들, 해양 동물들, 조류 친구들 수십억 마리를 끔찍하게 계속 죽이는 것을 멈추기 위해

이제는 채식으로 바꾸는 것이 현명합니다.

건강하고
경제적이고
생태계를 보호하며
자비롭고
승고하며
평화롭습니다



오래
사세요!

고맙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면 아래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대안적인 삶 홈페이지(www.GodsDirectContact.or.kr/al), E-Mail: AL@GodsDirectContact.or.kr
한국 채식연합(www.vege.or.kr), 한국 채식인협회(www.vegetus.or.kr)

언어어 터지는 유행성 전염병에 대해 인류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또 무수히 많은 동물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스승님께서는 직접 위의 전단지들 작성에 육식의 대안인 채식에 관한 기본 정보를 알려 주셨습니다. 이 전단지를 전달, 복사, 인쇄하실 수 있으며, 관련 사이트를 링크에 걸어도 됩니다.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각국 언어로 된 '대안적인 삶' 인쇄본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www.Godsdirectcontact.org/veg/alternativeliving>
<http://www.Godsdirectcontact.us/com/vegetarian/alternativeliving/>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veg/alternativeliving/>
<http://www.Godsdirectcontact.net/eng/veg/alternativeliving/>

포모사 2006년 1월 23일 월요일자 『자유시보』

애완동물과 그 주인들이 채식을 홍보하다



[타이베이-종리화 기자 보도] 어제 신이 상업 지구에서 열린 ‘대안적인 삶’ 행사에서 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회원들은 “새해부터는 저녁 식사에 고기를 먹지 말자.”고 대중에게 호소하며 육식 위주의 식생활 대신 건강한 채식을 선택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국제협회는 채식하는 회원들에게 이번 채식 홍보를 위한 거리 행사에 채식하는 애완견과 애완 고양이를 함께 데리고 나오도록 했다.

5년째 채식을 하고 있는 회원인 리페이핀은 채식을 해 보니 쉽게 피로해지지 않으며 체력도 향상되었다고 얘기했다. 래브라도와 골든리트리버 사이에서 태어난 그녀의 애완견 윌리엄은 현재 두 살 반이 되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채식을 했다. 그녀는 평소 요리를 할 때마다 윌리엄 몫을 따로 준비하곤 하는데, 윌리엄은 버섯과 당근을 가장 좋아한다고 한다. 리페이핀은 예전에도 다른 개들을 키웠었지만 채식을 하는 윌리엄이 가장 온순하다고 한다.

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는 어제 채식을 하는 애완동물을 데리고 타이베이 거리에서(사진 위) ‘대안적인 삶’ 행사를 개최했다. 이들은 행사를 통해 대중들에게 동물 친구들에 대한 사랑과 존중을 호소하며 이제부터 육식 위주의 식생활을 건강한 채식으로 바꾸자고 촉구했다.(사진 아래) (송즈송 기자 촬영)



단 한 장의 사진이 해묵은 증오심을 없애다

아모스 바네트 사형/ 호주 시드니 (원문 영어)

**“그날 우리는 이 기적 같은 놀라운 일에
큰 기쁨을 느꼈다.”**



2005년 여름, 나는 시드니의 한 회사에서 창고 담당을 맡아 20명의 직원들을 감독하며 바쁘게 지내고 있었다. 그 중 다정하고 유능한 한 중년 여성 직원과는 서로 친하게 지냈다. 압박이 매우 심한 작업 환경 속에서도 나는 항상 긍정적인 말로 직원들을 격려하며 긴장을 풀어주려 노력했다.

어느 날, 나는 그 중년 여성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다른 직원들에 관해 얘기하게 되었다. 그녀는 다른 직원 한 사람이 종종 자신을 화나게 해서 함께 일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 다시 얘기하게 되었을 때, 나는 그녀가 그 동료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물어보았다. 그러자 그녀는 “그녀를 볼 때면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엄청난 증오심이 느껴지며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녀를 공격하고 싶어져요.”라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해 주었다. “그렇게 느끼는 건, 어쩌면 당신이 그 동료와 많은 생 동안 항상 부딪히던 것이 세세생생 쌓이고 쌓여 이제는 그렇게 싸울 생각밖에 안 드는 것일 겁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내가 옳을지도 모른다고 인정하며, “이런 느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라고 덧붙였다. 그때 나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이를 해결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읽었던 게 생각났다. 그래서 그녀에게 이 문제에 대해 도와달라고 기도해 봤는지 물었더니,

그녀는 그 동료에 대한 증오심을 없애 달라고 자주 기도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대답했다.

나는 동료가 안됐다고 느꼈지만 어떻게 해줘야 할지 몰랐다. 그때 문득 항상 지갑에 가지고 다니는 스승님의 사진이 생각나서 그녀에게 그것을 건네주며 말했다. “이분은 나의 명상 스승님이십니다. 하루나 이틀 동안 이 사진을 가지고 다녀 보면 어떨까요? 이 사진엔 축복의 힘이 있어서 당신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각자 일을 계속했고 나는 이 일에 대해 잊어버렸다. 그런데 두 시간 후, 그녀가 기쁨과 흥분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나를 찾아왔다. 내가 어찌된 일이냐고 묻자 그녀는 스승님의 사진을 돌려주면서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에 대한 증오심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날 우리 두 사람은 이 기적 같은 놀라운 일에 큰 기쁨을 느꼈다. 모든 존재에 대한 스승님의 자비와 은총, 사랑은 그 두 사람 다 수행자가 아닌데도 둘 사이의 해묵은 증오심을 없애 주셨던 것이다.

이제 나는 우울하거나 절망적인 상황이라 느껴질 때면 스승님의 사진을 보면서 내가 상황을 바꿀 수 없다고 느낄 때라도 스승님의 힘은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걸 떠올리곤 한다. ♥

태국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이 곧 자신에게 봉사하는 것

방콕 구호 팀 (원문 태국어)

2005년 말, 2주간 내린 폭우로 태국에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해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수많은 지역이 물이나 진흙에 잠겼다. 태국 정부는 이에 따라 9개 남부 지역을 재해 지역으로 선포했다.

12월 19일부터 30일까지 여러 나라에서 온 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회원들은 나콘시타마랏(Nakhon Si Thammarat), 송클라(Songkhla), 빠타니(Pattani), 나랏디왓(Narathiwat), 알라(Yala) 및 파타룽(Phattalung) 지역에서 구호 활동을 전개해 이 기간 동안 500여 개의 구호 물자와 함께 수행 자료를 전해 주었다.



동수들은 12월 19일 구호 활동을 시작하면서 스승님께서 주신 30만 바트로 쌀과 식수, 우유, 견과류, 분유, 과자, 의약품과 위생용품 등을 구매해 트럭 두 대에 나눠

실었다. 그리고 나서 11명의 동수들은 자정이 지난 후, 방콕 센터를 출발해 열 시간의 여정 끝에 나콘시타마랏 지역에 도착했다. 동수들은 한 방편법 수행자의 집에 도착해서 제1차 구호물자를 포장하기 시작했다. 이어서 여러 지역으로 이동해 구호물품을 나눠줬는데, 해당 지역의 시장이나 촌장 등 공무원들은 기쁜 마음으로 구호물품을 받았으며, 분배 작업을 도와주기까지 했다. 어떤 지역은 수위가 높아 전 지역이 물에 잠기는 바람에 배를 타고 가야 했다. 파타룽 지역의 경우 극심한 홍수로 온 마을이 하나의 섬처럼 외부 세계와 단절된 상태였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많은 이재민들이 동수들

을 보고 매우 좋아했으며, 참을성 있게 줄을 서서 기다리며 구호물품을 받아갔다. 폭우가 계속되는데도 구호 팀과 함께 사진을 찍는 이재민들의 모습에서 감사해하는 그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게다가 많은 이들이 스승님의 견본책자를 먼저 받고 나서 구호 물품을 받는 광경은 더욱더 놀라웠다. 어떤 사람들은 견본책자를 다 읽은 뒤에 이웃과 돌려보겠다고 말했다.



파타룽의 한 외딴 마을에서는 60세 노인이 스승님의 법상 앞으로 곧장 걸어나 황홀한 듯 오랫동안 사진을 응시한 후 스승님에 대해 이것저것 묻고는 견본책자를 품에 안고 돌아가기로 했다. 또 어떤 남자는 스승님의 선물에 매우 감동하여 방콕 센터와 연락할 방법을 구호 팀에게 묻기도 했다.

크리스마스에 구호 팀은 나랏디왓 지역의 6개 부락으로 향했다. 그곳은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데다 어느 구호 팀도 도착하지 않은 상태라서 주민들은 어려움에 봉착해 바깥 세계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었다. 스승님의 보호로, 구호 팀은 군대의 호위를 받으며 군용 트럭을 타고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다. 또 다른 구호 팀은 송클라 지역의 3개 부락에서 구호물품을 나눠주었다. 12월 26일부터 29일까지 동수들은 알라, 파타룽, 송클라 지역 곳곳에서 계속해서 구호물품을 나눠주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지역의 주민들이 견본책자에 큰 관심을 보였다. 실제로 한 주민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스승님의 사진을 보고 무척 감동했어요. 이 견본책자를 귀한 기념품으로 아끼려 합니다.”

이렇게 해서 2005년 태국 홍수 구호 활동은 스승님의 가없는 사랑을 통해, 말레이시아, 캐나다, 형가



리, 싱가포르에서 온 동수들과 태국 동수들이 함께 협력해 수천 명의 이재민들의 물질적, 영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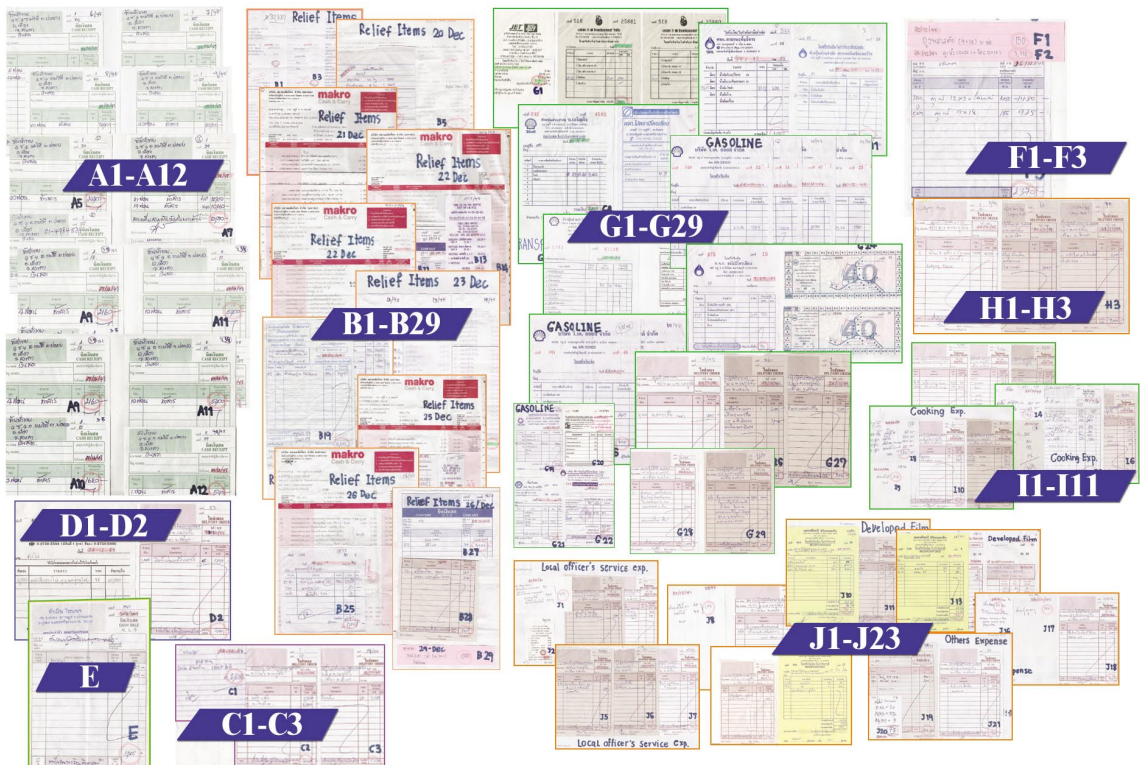
구호 활동에 참여했던 모든 동수들은 동료 인류에 대한 깊고 무조건적인 애정으로써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이에 동수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할 기회를 주시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영성을 고양시킬 수 있도록 해주신 사랑하는 스승님께 감사드렸다. ♥



청하이 무상사와 국제 협회의 태국 남부 수재민 구호 활동 지출 일람표

(단위: 태국 바트)

내역	금액	영수증 번호
구호물품: 식품(쌀, 팜콩, 통조림 음식, 과자, 간식, 우유, 분유, 간장, 식용유, 소금, 고춧가루), 식수, 구급상자, 위생용품 및 장난감	383,831.25	A1-A12, B1-B29, C1-C3
인쇄비: 전단지, 포스터, 스티커	68,320.00	D1-D2, E, F1 -F3
교통비: 연료, 고속도로 통행료, 화물비, 차량 임대료	28,634.00	G1-29
구호 팀 숙박비	12,338.00	H1-H3, I1-I11
기타 경비	7,800.00	J1-J23
총계	500,923.25바트 (미화 \$12,666.85)	



인도네시아

성난 홍수도 형제애를 가로막을 수 없다

인도네시아 뉴스그룹 (원문 인도네시아어)

2006년 1월 초, 자바에 폭우가 쏟아져 자바 동부와 중부 지방의 여러 지역에 홍수와 산사태가 났다. 동 자바의 켄버(Jember) 지역은 강이 범람하면서 수백 가구가 강물에 휩쓸렸고, 도로와 공공시설이 파괴되었으며 많은 인명 피해가 났다.

홍수 소식을 접한 수라바야(Surabaya)와 말랑(Malang) 지역의 동수들은 즉시 구호 팀을 조직하고 식품, 식수, 수건, 이불, 의약품, 위생용품 등의 구호 물품을 준비해서 다음 날 재해 지역으로 출발했다. 구호 활동을 시작하기 전 동수들은 먼저 인도네시아 적십자사에 연락해 이재민들에게 구호품을 나눠줄 장소와 방식에 대해 자문을 구했다. 한 적십자사 직원은 동부 누사 텡가라 지역에서 있었던 앞선 구호 활동 기간 동안 발리 센터 동수들과 함께 일한 적이 있어서 스승님과 우리 협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동수들은 즉시 승인을 얻어 적십자사의 이재민 캠프에 물품을 전달할 수 있었다.

한편, 2006년 1월 4일 새벽 자바 중부 지방의 반자네가라(Banjarnegara) 지역은 계속된 폭우로 대규모 산사태가 나서 주민 백여 명이 피해를 입었다. 이 사태는 사람들이 대부분 잠자고 있을 무렵에 일어난 탓에 많은 이들이 대피하지 못해 사망했다.



자카르타 센터로부터 재해 소식을 전해들은 푸르발링가(Purbalingga) 근처의 동수들은 즉시 우유와 건빵 같은 구호물품을 구매했다. 준비가 끝나자 동수들은 세 대의 차량으로 61km를 운전해 재해 지역으로 향했다.

가는 동안 동수들은 교통이 막히고 좁은 길을 만나고 폭우가 계속되는 등 숏한 어려움에 부딪혔다. 또 목적지를 2km 남짓 남겨 두고 트럭 두 대가 앞길을 가로막아 3시간 동안 움썽달썽 못하기도 했다. 그러나 스승님의 강렬한 축복 덕분에 한 주민이 나타나 동수들의 차가 그 트럭을 지나 범람한 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도록 안내해 주었다.

홍수 지역에 도착한 구호 팀이 구호물품을 내려놓자, 적십자사 직원들은 시기 적절한 도움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나타냈다. 동수들 또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동포들에게 스승님의 자비를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렸다. ❤️





자비로운 신이 추운 겨울에 따뜻한 온정을 전하다

서울 뉴스그룹 (원문 한국어)

【서울】 2005년 12월 22일과 26일, 서울 센터 동수들은 센터가 위치한 포이동과 인근 개포동에 스승님의 사랑과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원금을 전해주었다. 동수들은 한 가구 당 20만원(미화 약 200달러)의 지원금과 쌀 20kg 한 포대씩을 전달했다.

포이동과 개포동에는 극빈 가구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는데 그곳의 주민들은 대부분 리어카를 끌고 다니며 폐지와 비닐, 고철, 유리병을 주워 생계를 이어 나가는 넝마주이다. 동수들은 한국전력공사의 협조를 얻어 어려운 형편으로 전기세를 내지 못해 단전된 포이동과 개포동 일대의 13가구를 파악했다.

동수들이 방문한 가구 대부분은 사회 복지 수혜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아무 지원도 받은 적이 없었다. 그래서 동수들이 이들에게 연락하자 그들은 놀라워하며 모두들 하나같이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다. 한국에서는 사회 복지 수혜자로 분류되면 자선단체들의 봉사활동과 지원을 종종 받곤 한다. 그러나 전기세도 못 낼 정도로 형편이 어려워 정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많은 가정이 정부에서 제시한 조건을 채우지 못한다는 이유로 복지 대상자에 등록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개포동에 사는 한 장애우는 “정말로 어렵고 절박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회는 겉으로 드러난 불우 가정만 도와요.”라고 하며 우리 동수들에게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우리가 단전 가구들을 돕고 있다고 말하자 그는 “정말 좋고 필요한 일을 하고 있군요.”라고 하면서 거듭 칭찬하며 고마워했다.

방문한 집마다 모두 가슴 아픈 사연들을 들려주었다. 그들 대부분 할머니 혼자서 손자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위에 언급한 대로 정부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외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형편이었다. 예를 들어 홀로 손자를 키우는 할머니는 손자의 학교 등록금도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동수들이 등록금을 지원해 주자 깊이 감사해했다.



어떤 가정에서는 출소한 뒤 직업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삼촌이 조카까지 맡아 키우고 있었다. 또 다른 집은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불운으로 어머니 홀로 아들을 키우며 빚을 갚아나가고 있었다. 절망적인 상태였던 그 어머니는 동수들이 스승님의 선물을 전해 주자 주체할 수 없는 감격에 눈물을 흘리며 감사해하면서 스승님이 누구신지 꼭 알고 싶다는 큰 관심을 표했다.

또 다른 두 가구는 동수들의 지원을 사양하면서 “이웃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니 이들을 도와주세요.” 하고 애기했다. 동수들은 이들의 뜻에 따라 가장 어려운 한 가정에 다시 들러 그들의 마음을 전하고 선물을 보태주었다.

30년 만에 가장 춥다는 이번 겨울은 매서운 한파와 폭설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주었지만 신은 이웃들의 따뜻한 손을 통해 사랑과 은총, 그리고 절실히 필요했던 물질적 도움까지 전하셨다. 동수들은 불우한 동포를 도울 수 있도록 해주신 스승님께 감사 드리는 한편 세상의 고통 받는 모든 이들이 평안과 행복을 누리길 기원했다. ♥

부산

어려운 이들을 도우며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다

부산 뉴스그룹 (원문 한국어)

[부산] 2005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부산 동수들은 서울과 부산을 잇는 기차 종착역인 부산역 근처의 한 노숙자 쉼터에서 노숙자들에게 맛있는 채식 음식을 대접하고 따뜻한 옷가지를 선물했다.

부산역 근처의 쉼터들은 대부분 개인과 지역 정부의 지원을 받지만 그 수요에 비하면 언제나 지원이 부족한 형편이다. 특히 휴가철에는 더더욱 그렇다. 게다가 올해에는 한 노숙자 쉼터에서 12월 24일과 25일에 어려운 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할 수 없게 될 상황이었다. 그곳에 음식을 지원하던 부근 교회에서 그날 식사를 제공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수들은 크리스마스 이브 점심 무렵 불우한 친구 40여 명에게 떡국과 과일, 따뜻한 내복을 제공했다.

얼마 후 또 다른 노숙자 시설인 청십자 회관에서 도 도움을 요청해 왔다. 그들은 보통 아침식사와 저녁 식사밖에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동수들은 기쁜 마음으로 청십자회관을 방문해 약 80명에게 떡국을 대접했다. 사람들은 모두 깊이 감동하며 매우 고

마워했다. 또한 동수들은 모든 노숙자들에게 겨울 내복을 나눠주었다. 한국은 겨울에 매우 춥기 때문에 내복은 누구에게나 필수적이다. 선물과 음식을 받은 노숙자들의 얼굴에는 깊은 감사의 마음이 역력하게 떠올랐으며 이는 동수들에게 가장 큰 보상이 되었다. 이 밖에도 동수들은 부곡동의 독거 노인들에게 채식라면 30상자를 전달하기도 했다.

부산 동수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기회를 주신 스승님께 신실하게 감사드렸다. 그리고 “크리스마스에는 선물 받기를 기다리지 말고, 아는 사람들이나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선물을 사십시오. 밖에 나가 노숙자들을 찾아 선물을 주세요. 그것이 가장 좋은 크리스마스입니다.”라고 하신 스승님의 말씀을 영원히 가슴에 새길 것이다. 이렇게 2005년 크리스마스 이브 선물 나누기 활동을 마친 동수들의 마음에는 이 경험을 통해 얻은 내면의 기쁨과 진정한 행복이 남아 있다. ❤️

광주

장애우들에게 시기 적절하게 음식을 전달하다

광주 뉴스그룹 (원문 한국어)

[광주] 광주의 ‘밀알의 집’과 나주의 ‘부활의 집’은 한 지역 목사가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신지체장애우들을 위한 복지 시설이다. 60명의



‘부활의 집’에서 바닥재를 시공하고 있는 광주 동수들.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나주 '부활의 집'의 경우, 광주 센터 동수들이 2004년 11월부터 매달 지속적으로 생필품과 쌀, 김치, 성인용 기저귀 등을 제공하며 직원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새로 바닥재를 시공해 주기도 했다. '밀알의 집'은 일곱 명의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함께 살고 있는데, 동수들은 2005 채식 축제에서 이에 대해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광주 센터 동수들은 2005년 12월 초에 이 두 시설에 배추와 김치를 지원해 주기로 약속했지만, 3주간 계속된 이 지역의 폭설로 인해 약속을 한동안 미루어야 했다. 동수들은 근교의 밭에서 400포기가 넘는 배추를 매입했지만 밭이 폭설에 묻히는 바람에 배추를 뽑을 수가 없었다. 그나마 폭설이 그친 후 3주 만에 겨우 캐낸 배추는 대부분 얼거나 시들어서 동수들은 할 수 없이 시장에서 세 배 이상 오른 가격에 배추를 추가 구입해야 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동수들은 2006년 1월 1일부터 사흘간 김치를 정성껏 담근 후 1월 6일 '밀알의 집'에 배추 150포기를 전달하고, 1월 7일에는 '부활의 집'에 채식 김치 150kg을 전달했다.

배추 값이 폭등해 걱정하고 있었던 두 시설의 대표들은 배추와 김치를 제공해 준 동수들에게 마음 깊이 고마워했다. 이렇게 해서 폭설로 늦춰진 김치 전달은 오히려 시기 적절하고 소중한 지원이 되었다. 장애우들이 채식 김치를 먹으며 "맛있어요!"하고 기뻐하는 모습에 동수들의 마음도 흐뭇해졌다.

'밀알의 집'과 '부활의 집'에서 음식 나누기 행사를 펼친 광주 동수들은 신은 언제나 그렇듯이 재난 뒤에도 이웃의 손길을 통해 위안을 전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에 동수들은 더욱 굳은 마음으로 최근 심각한 폭설 피해를 입은 재해 지역 복구 활동을 돕기로 다짐했다. ♥

영국

불우 이웃에게 크리스마스의 기쁨과 희망을

런던 뉴스그룹 (원문 영어)

2005년 12월 17일 토요일, 런던 센터 동수들은 런던 남부에 있는 에이스 오브 클럽(Ace of Clubs)이라는 노숙자 쉼터를 찾았다. 요리사를 제외하고는 전적으로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운영되는 이곳은 일년 365일 문을 열고 노숙자들에게 점심과 저녁 식사, 세탁 및 샤워 시설, 숙박, 복지와 건강에 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동수들은 에이스 오브 클럽을 찾는 노숙자들에게 성대한 크리스마스 점심을 대접하기로 했다. 크리스마스날 아침 동수들은 금빛 찬란한 장식물로 테이블을

꾸미고 과일, 무알콜 와인, 무알콜 맥주, 각양각색의 초콜릿과 사탕, 케이크와 감자 칩 등을 마련했다. 또한 이동 스테레오로 친숙한 크리스마스 캐럴을 틀어 놓아 노숙자들을 흥겹게 했다.

정오에 쉼터가 열리자 노숙자들은 먼저 뜨거운 음식 코너에 들린 후 동수들이 마련한 "행복한 식탁"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들은 차려진 음식을 보고 매우 기뻐했으며 추운 겨울 밤을 대비해 남은 음식을 챙기기도 했다. 동수 몇몇은 식사하던 사람들과 그들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는데, 그 중 한 사람은



동수들의 진실한 마음과 친절에 깊이 감동한 나머지 동수들을 볼 때마다 눈물을 글썽이곤 했다.

노숙자들이 식사를 마치고 쉬는 휴게실에서 동수들은 비디오 ‘사랑의 길을 걷다’와 ‘용기 있게 삶에 맞서라’를 상영하는 한편 가까운 계시대에 스승님의 견본책자와 뉴스잡지를 전시했다. 점심식사를 마친 대부분의 손님들은 휴게실로 들어왔다. 그 중 한 남성은 자기 나름대로 명상한 적이 있었다면서 동수들과 이야기를 한 뒤 관음법문이 자신이 찾고 있던 법문인 것 같다며 방편법에 관심을 보였다.

이어 산타 복장을 한 사형이 털모자, 장갑, 양말, 목욕 용품, 간식거리 등으로 된 크리스마스 선물로 가득 찬 자루를 갖고 나타나 손님들에게 인사하자, 그들의 얼굴은 기대감으로 환해졌다. 모든 이들이 선물을 받으면서 함박웃음을 띠었는데, 그들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나타내는 이 선물이 그들에게 굉장한 의미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었다.

이날 행사는 복권 추첨으로 가장 고조되었다. 당

첨 복권을 가진 사람들은 침낭과 담요 또는 점퍼를 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번호표를 나눠줬을 때 모두들 굉장한 흥미와 기대, 행복감을 나타냈으며, 당첨자들은 축하의 박수를 받았다.

동수들이 선물을 다 나눠주고 물건을 정리해 짐을 싸고 있을 때, 어떤 노숙자가 한 사저에게 자신의 아내에게 줄 점퍼를 하나 더 얻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점퍼가 다 배분되고 없다고 하자, 그의 얼굴에 실망감이 나타났고, 이를 본 그 사저는 자기가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 주었다.

스승님의 무소부재한 사랑과 은총 덕분에 동수들은 이번 크리스마스에 에이스 오브 클럽 노숙자 쉼터에서 노숙자들에게 점심 식사와 선물을 나눠주며 그들에게 봉사할 수 있었고, 불우한 형제자매들에게서 사랑의 보답도 받을 수 있었다.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있어 노숙자들이 감사하는 모습은 진귀한 황금처럼 느껴졌다. ♥

캐나다

눈 오는 날 노숙자에게 전해진 온정의 선물

몬트리올 뉴스그룹 정리 (원문 영어)



2005년 12월 18일 일요일 단체명상이 끝난 후 몬트리올 동수들은 몬트리올 시내의 노숙자들에게 나눠줄 크리스마스 선물 꾸러미 150개를 준비했다. 각 주머니에는 채식 샌드위치, 과일, 초콜릿 바, 음료, 털모자, 장갑이 들어 있었다.

퀘벡의 12월은 뼈를 시리는 듯한 바람이 불고 혹독한 눈보라가 치는 데다 오후 네 시부터 아침 일곱 시까지 기나긴 겨울밤이 계속된다. 행사 당일, 기온이

영하 15도(화씨 5°)나 되었지만 스무 명 정도의 사형사저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시내의 노숙자들이 최소한 이날 하루만이라도 따뜻하고 편하게 지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선물 꾸러미를 나누어주었다. 몬트리올 시내에 도착한 동수들은 길가와 지하철역에서 많은 노숙자들을 만났다. 그들에게 선물을 주면서 “칭하이 스승님이 즐거운 크리스마스 인사를 전하십니다.”라고 하며 그들을 축복해 주었다. 노숙자 대부분은 상당히 놀라면서

서도 기쁘게 선물을 받았고, 어떤 이들은 스승님에 대해 물어 보기도 했다.

거리에서 선물 나눠주기를 마친 후, 동수들은 노숙자들에게 기초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인 라 메이슨 두 페레(La Maison du Pere-아버지의 집)로 향했다. 도착해 보니 수백 명이 구호소가 열리기를 기다리며 길거리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동수들은 그들에게 남은 선물 꾸러미 전부를 빠르게 나누어주었다. 그들 중 한 사람은 선물 꾸러미를 나눠준 사자에게 다정하게 플라스틱 꽃을 선물하기도 했다. 따뜻한 분위기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빠르게 확산되었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삶에 대해 얘기를 시작하기도 했다.

그 중 한 남자는 우주 항공 산업 분야의 첨단 제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회사에서 27년간 재직하다가 일자리를 잃고 무일푼으로 거리로 내몰려 몬트리올의 살

벌한 겨울바람을 피할 방안 모자도 없이 길거리에서 지내게 됐다고 했다. 그가 자신의 사연을 들려주고 있을 때, 보호소 입구에 줄서 있던 다른 많은 사람들이 “칭하이! 칭하이! 칭하이!”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말할 것도 없이, 그 순간 동수들의 마음은 멋지기도 따뜻한 느낌으로 가득해졌다.

2005년 크리스마스 선물 나누기 활동을 진행하면서 몬트리올 동수들은 온 마음으로 스승님을 믿고 의지하는 법을 배웠으며,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누는 스승님의 본모기를 따를 수 있었다. 한 사자가 했던 다음 말은 참여한 모든 동수들의 심정을 대변한 것이었다. “제게 노숙자들 내면에 신이 있음을 느끼고 보게 해주신 데 대해 스승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가운데에서 저는 사랑과 겸손이라는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

미국

캘리포니아

노숙자들에게 찾아온 휴일의 기쁨과 평화

로스앤젤레스 뉴스그룹 (원문 영어)

2005년 1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동수들은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Orange County)에 있는 애너하임(Anaheim), 풀러턴(Fullerton), 그리고 산타아나(Santa Ana) 등지의 노숙자 쉼터 네 곳에서 노숙자 친구들에게 연말연시 선물 꾸러미 329개를 나눠줌으로써 스승님의 사랑과 축복, 그리고 소중하고 고귀한 스승님의 가르침을 지역 사회와 함께 나누었다.

선물 꾸러미에는 담요, 손가방, 스카프, 개인 위생용품과 함께 채식 닭고기 볶음, 국수, 볶음밥, 신선한 샐러드, 채소 디저트로 구성된 영양 만점인 채식 도시락이 포함돼 있었다. 각 지역에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물을 나눠주자 노숙자들은 자신들의 느낌을 즐겁게 표

현했다. 그 중 한 명은 다음과 같이 얘기하기도 했다. “난 이것들을 너무도 오랫동안 갖고 싶었어요. 특히 손가방을요. 내 생각에는 신이 내가 원하는 걸 아시고 여러분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참 훌륭한 단체입니다. 또 굉장한 스승님을 모시고 있네요.”

이 행사 기간 동안 나눠준 건강에 좋고 자연적이며 맛있는 채식 도시락은 많은 칭찬을 받았다. 쉼터 직원들과 노숙자들 모두 동수들의 정성어린 솜씨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이게 채식 닭고기라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진짜 닭고기 맛이예요.” 하고 입을 모아 극찬했다. 선물을 받은 노숙자들은 관음법문과 채식에 대해 자주 질문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더



많은 채식 음식을 맛볼 수 있기를 희망했다.

2005년 노숙자들과 함께한 연말연시 선물 나누기 활동을

통해, 로스앤젤레스 사형사저들은 모두 스승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스러운 힘이 가슴으로 밀려들어오는 것을 경험했다. 이로써 영적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었다.

다소 불우한 친구들에게 스승님의 자비와 축복을 전하는 다리 역할을 수행한 동수들은 계속해서 스승님의 훌륭한 도구가 되어 언제나 전세계 각지로 달려가 일하기로 맹세했다.

후기: 2005년 연말연시 선물 및 음식 나누기 활동을 통해 채식이 맛있고 건강에도 좋다는 것을 깨닫게 된 노숙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고, 로스앤젤레스 센터는 활동의 폭을 넓혀 현재 매달 캘리포니아 남부의 로스앤젤레스와 오렌지카운티에 있는 몇몇 노숙자 보호소에 채식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 ♥

텍사스

희망과 믿음, 신의 선물로 노숙자들을 감동시키다

휴스턴/ 다이애나 응우옌 (원문 영어)

영광스럽고 즐거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즐기면서도 휴스턴 센터의 동수들은 이 사회에 아직도 불우한 이웃들이 있음을 잊지 않았다. 특히 최근 미국 남동부 해안 지대에 발생한 자연 재해로 많은 피난민들이 유입되었고 그 중 상당수가 노숙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겐 이번 크리스마스가 더욱더 힘들게 느껴질 것이다.

이에 동수들은 수건, 티셔츠, 양말이 포함된 200개의 선물 꾸러미를 준비해 스승님의 전단지과 견본책자 등 영성 소식을 같이 전해 줌으로써 이 불우한 이웃들에게 즐거운 기운도 선물하기로 했다. 동수들은 또 선물과 뜨거운 커피, 도넛을 나눠 줄 야외 부스도 설치하기로 했다.

이어서 12월 24일 저녁, 동수들은 함께 모여 명상을 하며 다음 날 선물 분배 활동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길 기도했다. 크리스마스 아침, 널리 알려진 휴스턴 시내의 노숙자 모임 장소로 이동한 동수들은 순식간에 부스를 설치하고 선물 꾸러미와 김이 모락모락 나



는 커피, 도넛을 차려 놓았다. 또한 부스 주변에 스승님의 책과 사진도 설치한 후 노숙자들에게 스승님의 사랑을 나눠주기 시작했다.

하나 둘씩 노숙자 형제자매들이 다가오자, 동수들은 그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커피와 도넛, 선물을 나눠주었다. 많은 이들이 이 놀라운 휴일 행사에 훈훈한 감사의 마음을 표시했고, 자리를 떠나지 못한 채 스승님과 스승님의 가르침에 대해 질문했다. 동수들은 이들의 얼굴에 피어나는 희망과 믿음의 싹을 보며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는 것 같았다.

2005년 크리스마스 선물 나눠주기 행사를 마친 후, 집을 꾸리며 집에 갈 준비를 하던 동수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봉사하고 그 활동으로 완벽한 보답을 받게 된 것에 깊이 감사했다. 동수들은 앞으로도 계속 일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모두들 이 날을 기억하고 더불어 스승님의 사랑과 자비를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나눈 느낌을 기억하고자 했다. ♥



뉴저지

희망과 믿음, 신의 선물이 노숙자들을 감동시키다

뉴저지 뉴스그룹 (원문 영어)

최근 뉴저지 동수들은 스승님의 축복 속에 지역 노숙자 쉼터의 노숙자들을 위해 매달 채식 요리를 해주겠다고 등록해 이번 기회를 통해 스승님의 가르침을 정기적으로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

추수 감사절 다음날인 2005년 11월 25일, 사형사 저들은 뉴저지 캠던(Camden)에 있는 노숙자 쉼터 레벤하우스(Leavenhouse) 사람들에게 으깬 감자, 그레이비 소스, 채식 칠면조로 이루어진 맛있는 전통 추수 감사절 저녁 식사를 접대했다. 동수들은 먼저 스승님의 창작 가곡 DVD를 틀어 행사장이 스승님의 축복으로 가득 차도록 했다. 노숙자들은 DVD를 보면서 스승님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인해 형성된 따뜻한 분위기를 즐기며 식사를 했다. 그 중 많은 노숙자들이 앉아서 냇을 읽고 비디오를 시청했는데, 한 남자는 스승님의 노래들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음을 바로 외워 즐겁게 "Go! Go! Go!" 노래를 따라 불렀다.

동수들은 뜨거운 음식 외에도 150개의 선물 꾸러미를 준비해 나눠주었다. 그 손님들은 양말, 치약, 칫솔, 비누, 수건, 과자, 사탕, 그리고 이 선물에 더 큰 영적인 의미를 보낸 스승님의 감로법어가 들어 있는 행운의 과자 등이 포함된 동수들의 사랑과 정성이 듬뿍 담긴 선물을 받고 매우 좋아했다.

이어서 동수들은 12월 17일 크리스마스 선물과 감이 모락모락 나는 채식 헝가리 굴라쉬 등 따끈한 음식을 가지고 그곳을 다시 방문했다. 날씨가 매우 추워졌기 때문에 모두들 맛있고 따끈한 수프와 그에 곁들인 프랑스 빵, 디저트로 제공된 케이크 한 조각을 아주 좋아했다.

스승님의 강연 DVD가 상영되기 시작하자, 쉼터 내부 분위기는 곧 눈에 띄게 바뀌기 시작했다. 참석한



사람들은 이 의미 깊고 아름다운 프로그램을 매우 마음에 들어하며 이러한 접대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며 고마움을 전했다. 신의 사랑은 햇살처럼 그들의 그늘을 물리치고 참석한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까지 감동시켰음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었다.

그 쉼터의 운영자는 노숙자들에 대한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의 지원과 염려에 감사하는 편지(다음 페이지 참고)도 보내 왔다.

레벤하우스 활동을 통해 뉴저지 동수들은 같이 일하는 법을 배우고, 신의 안배가 얼마나 완벽한지 목격할 수 있었다. 또한 다른 이들에게 봉사함으로써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울 기회를 주신 신께 감사드렸다. ♥



644 STATE STREET • CAMDEN, NJ 08102 • TELEPHONE 856-966-4596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사서함 730247

캘리포니아, 산호세 95173-0247

칭하이 무상사의 가르침을 따르는 분들께

저는 톰 노셰(Tom Knoche)라고 합니다. 저는 뉴저지 캠던 시에서 노숙자들에게 음식과 거처를 제공하는 곳인 레번하우스 운영 위원회의 일원입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칭하이 무상사를 따르는 분들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토요일마다 우리 센터를 방문해 이용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토요일에 대개 75명에서 100명 정도에게 봉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단체는 영양 높은 음식을 가져 와 매우 평온하고 기품 있는 모습으로 노숙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과 배려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레번하우스는 어떤 종교와도 관계가 없는 비영리 자선 단체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자원봉사자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적절한 음식과 잠자리, 교육, 보건, 그리고 생계를 유지할 일자리를 얻을 자격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러한 지원과 기회를 필요로 하는 많은 구성원들에게 이런 것들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관대한 지원과 관심을 베풀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레번하우스 운영 위원회

톰 노셰 드림



호주

스승님의 사랑과 기쁨이 아름다운 영혼들에게 퍼져 나가다

시드니 뉴스그룹 (원문 영어)

2005년 12월 22일 저녁, 시드니 센터의 동수 20여 명은 거리의 노숙자들에게 148개의 크리스마스 선물 꾸러미를 나누어주었다. 노숙자들은 밝고 다채로운 색상으로 포장된 선물들을 보곤 매우 감사해하고 행복해했으며, 동시에 스승님과 우리 협회에 대해 큰 호기심을 보였다.

각 선물 꾸러미에는 비스킷과 감자 칩, 음료수, 개인 위생용품들과 더불어 스승님과 관음법문을 소개하는 전단지, 그리고 크리스마스 카드가 들어 있었다. 동수들은 선물 꾸러미를 나눠준 후 다시 생수와 간식을 나눠주었다.

나중에 한 사제는 한 남자가 다른 노숙자들 무리

에서 떨어져 혼자 가부좌를 하고 눈을 감은 채 명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의 주변에는 크리스마스 카드와 스승님의 전단지가 놓여 있었다. 사제는 마지막 남은 물병을 조용히 그의 곁에 놓고 돌아 나오면서 방금 목격한 그 아름다운 모습에 깊이 감동했다. 사제는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선물을 전해준 이번 활동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 아름다운 영혼들을 만날 수 있었던 건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너무나 순수하고 겸손하며, 신과 가까워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나야말로 선물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 영혼들과 만나게 된 은총은 지금껏 받은 것 중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

파키스탄

스승님의 사랑이 파키스탄 지진 이재민들을 다시 한 번 비추다

타이베이 뉴스그룹 정리/ 포모사 (원문 중국어)

2005년 10월 8일, 리히터 규모 7.6의 강진이 북부 파키스탄을 강타했다는 소식을 접한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회원들은 즉시 구호 팀을 조직했다. 구호 팀은 의료 지원과 수톤의 구호물자를 제공했으며 이밖에 특별히 추위를 막아 줄 텐트와 목도리, 모자 등을 구매해 재해 지역에 전달했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잡지 161호 참조.) 그러나 추위가 계속되면서 따뜻한 옷가지가

부족해 많은 이재민과 어린이들이 폐렴에 걸려 의료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신문 기사를 보고 이재민들의 고통을 아시게 된 스승님은 포모사 동수들에게 가능한 빨리 의료 봉사 팀을 구성해 무료 진료를 해주고 지진 피해 지역에 추운 겨울을 지낼 옷을 보내도록 지시하셨다.

동수들은 지시에 따라 곧바로 물품 공급 팀과 의



로 봉사 팀을 구성했다. 의료 팀은 홍콩과 포모사, 태국, 중국, 미국에서 온 사형사저들로 이루어졌다. 또한 몇몇 싱가포르 동수들이 이재민들에게 필요한 옷을 알아 본 후 그 물품을 서둘러 구매하고 배분하기 위해 파키스탄으로 출발했다. 이렇게 해서 여러 나라에서 온 19명의 동수들이 이번 구호 활동에 참가해 1월 28일부터 2월 16일까지로 기간을 예상하고 2교대 방식으로 재난 지역에서 무료 진료와 구호 활동을 중단 없이 진행할 계획을 세웠다.

스승님의 축복으로 1월 28일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한 첫 번째 의료 팀은 곧바로 만세라(Mansehra) 시로 향해 다음 날 새벽, 큰 강 계곡에 위치한 갈라트(Garlat) 마을에 도착했다. 이재민들은 그곳의 계곡 양쪽으로 뻗뻗하게 늘어선 1만여 개의 텐트에서 임시로 거주하고 있었다. 지진이 일어난 지 4개월이 지났고, 이 지역 90퍼센트 이상의 집들이 무너졌지만 아직도 재건 조짐은 보이지 않았다. 전세계 각국에서 자원 봉사자들이 와 있었지만 이재민들의 수가 워낙 많아 이재민들의 요구를 거의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설상가상으로 1월 초 이 지역에 불어닥친 눈보라로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있었다. 얼어붙은 추위 속에서 조잡한 텐트는 햇빛은 이재민들에게 아무런 보호막도 되어 주지 못했고 이에 따라 많은 이들이 폐렴에 걸려 응급조치가 필요했다!

1월 29일, 동수들은 현지에서 천막을 빌려 무료 진료소를 열었다. 촌장의 도움으로 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가 무료 진료를 개시했다는 소식이 주민들에게 빠르게 전달되었다. 첫 날 세 명의 전문의가 백 명이 넘는 환자들을 돌보았고, 촌장은 의사 동수들의 관심과 전

문적 자세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환자의 수가 매우 많았지만 동수들은 스승님의 축복 덕분에 진료하는 내내 맑은 정



신으로 성공적으로 진료를 마칠 수 있었다. 그 다음 며칠 동안 사형사저들은 계속해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발라코트(Balakot) 지역 부근의 몇몇 마을을 방문해 의료 활동을 펼쳤다. 많은 마을 주민들이 호홉기계 감염과 천식, 폐렴, 피부병 등을 앓고 있었다. 장기간의 텐트 생활에다 제대로 된 음식도 먹지 못한 까닭에 영양실조와 만성피로 증상도 흔하게 보였다. 노인들은 대부분 요통이 있었고, 환경이 불결하고 의료 지원이 부족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충치와 중이염, 피부병, 기생충 감염과 같은 여러 질병들을 앓고 있었다. 동수들이 진료를 시작한 처음 며칠 동안에는 환자 대부분이 남자나 아이들이었고 여자는 거의 없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무슬림 여성들은 종교적 규제로 마을을 벗어나 낯선 이들과 접촉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었다. 구호 팀이 4, 5일째 같은 마을에 남아 사려 깊은 태도로 봉사를 계속하자 그제서야 많은 여성들이 찾아와 진료를 받았다. 그 중 대부분은 진료를 처음 받는 것이 라고 얘기했다.

1월 29일에는 싱가포르 재난 구호 팀도 갈라트에 도착해 의료봉사 팀과 함께 각 마을마다 3, 4백 명의 이재민이 있는 여러 재해 지역들을 찾아가 구호물자들을 나누어주었다. 의료 팀은 이 지역 이재민들 대부분이 영양실조에 걸린 것을 발견했다. 이에 우리는 주민들에게 비





타민과 갈슘, 철분을 제공하기 위해 1kg짜리 분유 4천 통과オート밀 1천 2백 봉을 구입하고 따뜻한 겉옷과 담요, 양말, 어린이 신발과 여성 신발도 구입해서 전해 주었다. 한 마을의 촌장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난 4개월간 물과 음식은 많이 받아 봤지만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처럼 따뜻한 옷과 같은 물품을 제공해 준 곳은 없었습니다. 우리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으며 시기 적절한 지원을 전해 주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스승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것은 구호 팀이 활동을 시작하기 전 스승님께서 사려 깊게 이런 방한 품목들을 준비하도록 알려 주신 덕분이었다.

지난 2005년 10월에 있었던 구호 활동 중 동수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던 아쉬라프 씨는 이번에 다시 한번 우리와 일할 인연을 갖게 되었다. 아쉬라프 씨는



스승님의 가르침에 전적으로 공감했고 스승님이 지시하신 의료 봉사와 구호물자 제공은 아주 특별한 일로서 다른 단체들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했다. 또한 구호 팀원들이 매우 성실하게 일하며 쉬는 시간에는 항상 조용히 명상을 한다는 것도 눈여겨보았다. 그래서 이번 두 번째 활동을 하는 동안 사형사자들이 그에게 관음법문의 힘과 명상 및 채식의 중요성을 설명해 주자 그는 “저는 파키스탄의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원래부터 채식을 하고 있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아쉬라프 씨는 나중에 방편법을 배우고 좋은 체험도 했다.

지역의 통역자와 공무원들의 도움 덕분에 구호 활동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2월 2일까지 동수들의 진료를 받는 환자가 거의 6백 명에 달했다. 동수들은 의료 활동과 더불어 스승님의 사진과 채식을 권장하는 ‘대안적인 삶’ 전단지도 나눠주었다. 지역의 어린이들은 스승님의 사진을 매우 좋아해서 카메라를 향해 웃는 얼굴로 사진을 들어 올리며 구호 팀원들과 즐겁게 자세를 취했다. 어린이들의 그런 모습은 이 열악한 상황도 그들의 순수한 본성과 신의 은총에 대한 믿음을 알아갈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

후기: 우리 협회의 의료 봉사 및 재난 구호 활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후 내용은 다음 호 뉴스잡지에 게재될 것이다.



사랑과 온정으로 추위를 이겨내다

타이베이

노숙자들의 새로운 인생

타이베이 뉴스그룹 (원문 중국어)

포모사에 한파가 몰아치자 타이베이 센터 동수들은 2005년 크리스마스를 맞아 타이베이 시내의 노숙자 쉼터인 ‘돌봄의 집’, ‘평화의 집’, ‘중허 노숙자 쉼터’를 방문해 불우한 친구들에게 선물을 전함으로써 우울한 겨울을 밝게 바꾸었다. 타이베이 동수들은 또한 타이베이 완화 지역의 독거노인들과 바리 향의 아이웨이 요양원의 심신 지체 및 뇌성마비 장애인들도 방문했다.

이 밖에 타이베이 시 노동부에서 노숙자들이 직장 면접에 입을 양복을 구하느라 고심하고 있을 때, 동수들은 때 맞춰 깨끗하고 편안한 옷을 제공해 노숙자들이 이 옷들을 입고 자신감을 얻어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타이베이 현 노숙자들을 위한 ‘돌봄의 집’ 건물은 옛날 군대 병영을 개조한 것으로 깨진 창문과 문틈으로 황소바람과 찬 공기가 들어왔다. 그래서 동수들은 스승님이 주신 지원금으로 빨래를 말리는 쪽으로 벽에 돌아가며 처마를 치고 창문을 새로 갈고 천장용 선풍기와 거주자들이 간단히 운동할 수 있는 기구들을 설치해 주었다. 그러고 나서 집안의 벽을 새로 칠하자, 건물은 새해를 맞이할 단장을 끝내게 되었다. 새로 단장한 집을 본 거주자들은 새집을 마련해 주신 스승님의 사랑과 관심에 매우 고마워했다.

건물을 수리하는 외에 동수들은 노숙자들에게 선물꾸러미와 맛있는 채식 간식을 마련해 대접했다. 저녁 식탁이 맛깔스런 채식 음식으로 가득 찬 것을 본 ‘돌봄의 집’ 황 이사장은 벅찬 마음으로 말했다. “칭하이 무상사님의 사랑에 무한한 감사를 보냅니다. 칭

하이 스승님이 계시기에 우리

노숙자들이 사랑과 존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노숙자 친구인 웨이 씨는 3, 4년 전에 스승님의 『즉각 깨닫는 열쇠』 견본책자를 읽고 나서 잘 때면 밝은 빛을 본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올해 타이베이 기차역과 이선 공원에서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가 나눠준 선물을 받았습시다. 스승님의 세심한 관심과 우리를 위해 오래된 숙소와 욕실을 새로 수리해 주신 여러분의 진심 어린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그 덕분에 이제 거동이 힘들었던 거주자들이 이끼 낀 바닥에서 미끄러질까 봐 걱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의 말을 통해 우리는 스승님께서 사랑과 자비로써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신 것에 감동한 거주자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집수리와 선물 나눠주기 외에 동수들은 추운 밤에 산타 복장을 하고 불우한 친구들을 방문하기도 했다. 동수들은 타이베이 현 사회 활동가들의 안내를 받아 노숙자들이 자주 모이는 곳을 찾아가 따뜻한 옷과 선물이 든 꾸러미를 나누어주었다.

추운 밤에 떨고 있던 노숙자들은 이 선물을 받고 선 놀라움과 기쁨을 나타냈다. 이어서 12월 15일 오후에는 타이베이 시 자원봉사 협회 황메이잉 이사장의 도움으로 소속 자원 봉사자들과 함께 추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스승님의 뉴스잡지와 견본책자, 사탕, 곡물과 견과류가 든 영양죽, 따뜻한 옷을 반치아오, 신장, 슈린 등지의 노숙자들에게 나누어주었다.

가는 도중 일행은 몸이 불편해서 서 있기도 힘든



한 노숙자와 교통 사고로 부상을 당한 또 다른 노숙자를 만났다. 이들의 상태를 본 황 이사장은 지역의 병원에 연락했고, 동수들은 그들을 따

라가 진료를 받게 해주었다. 이 밖에 공원과 사원 부근, 그리고 야구장 등도 찾아다니며 많은 노숙자 친구들에게 선물을 주자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다.

타이베이 시 사회국 노숙자 상담원인 귀련자오 씨는

두 노숙자가 타이베이 노숙자 서비스 센터의 도움을 통해 새 인생을 시작하게 된 사연을 알려 주었다. 그들의 변화된 모습은 다른 노숙자들이 자신감을 되찾는 데 훌륭한 본보기가 되었으며,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의 물질적, 영적인 도움은 그들이 재출발할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다.

2005년 크리스마스 사랑 나누기 활동을 통해 타이베이 동수들은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는 황금시대가 정말 시작되었음을 느꼈다. 또한 세상의 어떤 이들에게는 행운이 계속 비껴간다 해도 우리가 사회적, 문화적 벽을 초월하는 신의 사랑을 나누기만 한다면 이들이 느낄 수도 있는 불만이나 어떠한 부족한 마음도 충분히 보상할 수 있을 것이며, 불우한 이들의 마음에 희망의 불씨를 지피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이다. ♥

신주

신의 사랑을 나누다

신주 뉴스그룹 (원문 중국어)

2006년이 다가옴에 따라 신주 동수들은 연휴 기간에 모두들 바빠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의 존재를 잊기 쉬우니 그들을 도우라는 스승님의 사랑이 담긴 조언을 되새겨 '겨울철 신의 사랑 나누기' 행사를 통해 저소득층 독거 노인인과 노숙자들이 이 추운 계절을 잘 날 수 있도록 방한용품을 나눠주기로 했다.

신주 동수들은 먼저 신주 현과 신주 시 사회국에 연락해 노숙자들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방식에 대해 문의했다. 그러자 신주 현 정부 사회국은 권잉 공익발전 협회(The Cyun Ying Work Group Advance Fraternity)에 구호물품을 전해주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다. 권잉 협회는 권잉 현 정부 사회국의 위탁을 받아 오랫동안 노숙자들을 상담하고 독거 노인들을 방문해 보살피고 있는 단체라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물품을 전달할 수 있다. 또 신주 시 사회국은 노숙자들에게 음식과 쉼 공간을 제공하는 '신주 평화 보

호소'에 물품들을 보낼 것을 추천했다.

이 제안에 따라 동수들은 권잉 협회와 평화보호소에 각각 연락해 필요한 물품과 수량을 조사

하고 구입했다. 다음으로 12월 16일 새벽, 20여 명의 사형사자들은 열 대의 차에 물품을 가득 싣고 목적지로 향했다. 처음 도착한 곳은 권잉 협회에서 운영하는 주동 읍의 '츠인 센터'였다. 동수들은 이곳 노숙자들에게 침낭과 겨울 코트, 라면, 가피물 등을 나누어주는 한 편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들에게 외투 140벌을 선물했다. 물품들을 제공하는 동안, 동수들은 스승님



신주시 사회복지국 구조과, 린안 사회 복지재단 신주분원, 신주 평화 보호소 등의 대표자들과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동수들의 단체 기념사진.

의 견본책자와 뉴스잡지를 통해 관음법문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호소 관리자인 린 주임과 사회국 공무원들에게도 스승님의 강연 DVD와 책을 기증했다.

다음 목적지는 ‘신주 평화 보호소’였다. 신주 시 기차역 부근에 있는 이 시설은 런던 사회 복지 재단에서 설립한 곳이다. 우리가 도착하자 노숙자들이 자발



동수들이 초인 센터에 도착해 구호물품을 내리는 동안, 그곳 노인들이 지켜보다가 이 물품이 자신들에게 전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행복한 웃음을 터트렸다.

적으로 물품을 내리고 운바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이어서 신주 사회복지국 공무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동수들은 탈수기, 쌀, 간장, 쉐러드유, 라면, 축복 음식, 침낭 등의 물품들을 이 재단 지역 분

원에 기증했다. 동수들은 또 노숙자들에게 선물 꾸러미들도 나누어주었다. 동수들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선물을 나눠주는 동안 모두들 그 속에 포함된 신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노숙자들은 스승님께 진심으로 고마워했으며 일부는 뉴스잡지부터 꺼내 읽기도 했다.

집으로 오는 길에 동수들은 노숙자들이 침낭을 끌어안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흐뭇해졌다. 불우한 이웃들을 보고 난 동수들은 인생이 덧없으며, 신의 사랑만이 무한하다는 것을 더욱 절실히 깨달을 수 있었다. ♥



동수들은 신주시 사회복지국의 직원들과 함께 독거노인에게 따뜻한 외투를 기부하고 그들에게 새 옷을 입혀 주었다.

지아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행복하다

지아이 뉴스그룹 (원문 중국어)

2005년 겨울 동안, 지아이 동수들은 노숙자들의 수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동수들은 ‘겨울철 사랑과 온정의 노숙자 돕기’ 활동을 마련해 이들에게 스승님의 사랑과 관심이 전달되기를 희망했다.

보통 노숙자들은 한밤이 지나서야 자신이 지내는 곳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 활동도 한밤중에 전개되었다. 12월 15일, 동수들은 견본책자, 따뜻한 옷, 영양가 있는 파끈파끈한 채식 수프를 가지고 공원, 버스, 기차 정류장 등 노숙자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들을 찾아다녔다. 노숙자 중 몇몇은 필요한 것들을 따로 말하기도 했는데, 동수들은 최선을 다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자 했다. 이때 동수들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라는 말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으며, 그와 동시에 스승님의 사랑이 그 활동을 통해 모두를 계속해서 축복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12월 22일 두 번째 한파가 몰아치자, 동수들은 노숙자 친구들을 다시 한번 방문했다. 이날은 일년 중 가장 날이 짧은 동지라서 기온이 계속 떨어져 동수들은 두꺼운 겨울 외투 외에 따뜻하고 달콤한 완자탕도 함께 제공했다. 노숙자 친구들은 완자탕을 먹으며 신께 거듭 감사드렸고, 스승님의 끝없는 사랑에 신실한 감사와 찬탄을 표했다. 또 오랫동안 먹지 못했던 맛있는 완자탕을 더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동수들의 관대한 마음에 감동한 지아이 시 철도 공무원 장 선생은 동수들에게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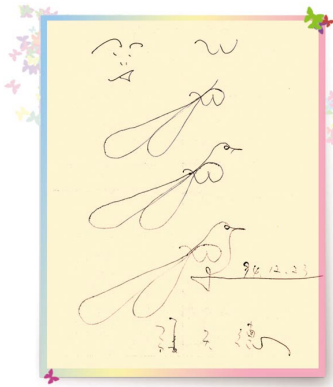


동수들이 지아이 기차역에 있는 노숙자들에게 스승님의 관심과 함께 따뜻한 옷과 음식을 전한다.



차역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노숙자가 한 사람 더 있다고 알려 주며 우리를 그에게 안내해 주었다. 나중에 그는 동수들이 이 노숙자 친구를 방문하는 틈을 타 그림을 한 장 그려 선물했다.

또한 지아이 동수들은 기차역 대기실에 있는 승객들에게도 완자탕을 나누어주었



다. 그 중에는 어울락에서 온 외국인 친구도 두 명 있었는데, 그들은 완자탕이 정말 맛있다고 극찬했다. 또 스승님의 견본책자를 받고선 자신들이 위대한 스승님과 동포라는 것을 알고 영광스러워했다.

이 두 번째 활동을 마치니 새벽 2시였다. 기온이 6도 정도로 떨어져 있었고 올겨울 중 가장 추운 날이었지만 모든 이의 가슴속엔 스승님의 사랑이 가득해 그 어떤 날보다 따뜻하게 느껴졌다. ♥

창화

인지상정으로 불우이웃을 돕다

창화 뉴스그룹 (원문 중국어)

2005년 들어 한파가 계속 되자 창화 동수들은 안 그래도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이웃들을 도와야겠다고 생각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는 마음으로 동수들은 빈민 가정에 사랑을 나누는 활동을 실천했다.

동수들은 스승님의 견본책자와 뉴스잡지, 성금에다 침낭과 이불, 모직옷, 모자, 양말, 외투, 음식을 준비해 산스 마을과 엔스 마을에 사는 극빈 세대를 방문했다. 동수들은 먼저 마을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물어본 다음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했다. 이어서 지아스 마을을 방문했을 때, 마을 촌장은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다. 촌장의 성실한 애민 봉사로 그 마을은 행복하고 평온해서 한 가족도 도움이 필요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도 동수들은 뉴스잡지와 스승님의 견본책자를 나누어주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이들에게 스승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민들의 영성이 고양되기를 기원했다.

이번 2005년 사랑의 선물 나누기 활동을 통해 창화 동수들은 많은 동포들이 불행과 역경을 겪고 있는 것을 목격하면서 살아 계신 큰스승을 따르게 된 자신의 행운을 보다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



이란

2005년 12월 13일 저녁, 추위와 비가 휩쓰는 가운데, 이란 동수들은 침낭과 두꺼운 외투, 장갑, 두꺼운 양말 등 따뜻한 옷가지를 가지고 오갈 데 없는 노숙자들을 방문해 스승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들의 상황을 살피고 그들에게 평화와 행복을 기원했다. 노숙자들은 선물을 받고 감동했다. ♥



매체 보도

(원문 중국어)

포모사 2005년 12월 10일 토요일자 『연합일보』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에서 노숙자들에게 옷을 기증하다

【타이베이-양정민 기자】 노숙자들이 새로 직업을 구하려 해도 때로는 면접에 입고 갈 만한 변변한 옷이 없을 때도 있다.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는 어제 타이베이 시청부 취업 안내 센터의 지도를 받고 있는 노숙자 친구들에게 옷 200벌을 기증해 이들이 단정한 옷차림으로 면접을 보고 고용주의 호감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취업 안내 센터가 1990년 8월부터 한 시설을 통해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취업 상담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1,544명이 지원을 받았고 그 중 65%인 1,007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취업 안내 센터의 비서인 류지아홍 씨는 “노숙자 친구들은 취업 면접에서 깔끔하게 보여야 하는데, 전에 준비해 두었던 옷들은 모두 다 나눠주고 없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노숙자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회원들이 이 상황을 접하고 겹 옷과 면바지 200벌을 기증했다.

中華民國九十四年十二月十日 農曆乙酉年十一月初十 星期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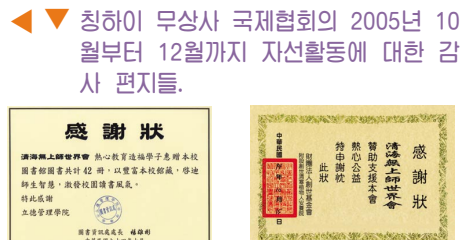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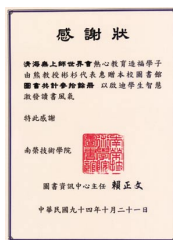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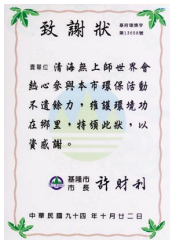
清海無上師世界會 衣贈街友

【記者楊正敏／台北報導】街友想要重新回歸社會，有時連一套像樣的面試衣服都沒有，清海無上師世界會昨天捐贈200套衣服，給台北市政府就業服務中心輔導的街友，讓他們面試時可以穿得體面，獲得雇主的青睞。

市政府就業服務中心，從90年8月開始輔導街友重新就業，成立前，介後捐贈200套夾克和運動長褲。



2005년 10월부터 12월까지 포모사 내 각종 자선 활동 및 구호 활동 사진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의 2005년 10월부터 12월까지 자선활동에 대한 감사 편지들.



▲ 지룽 시 해변 청소에 참여한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회원들.



▲ 포모사 미아오리 동수들이 신체 마비 및 정신 장애 노인을 위한 바자회에 참여하다.

▲ 책을 통해 진리를 나누다-타이난 동수들이 타이난 현 여러 도서관에 영성 서적을 기증하다.





2005년 10월부터 12월까지 포모사 내 각종 자선 활동 지출 일람표

표 1과 표 2 합계: NT\$ 1,563,810 (미화 약 46,947달러)

표 1: 2005년 10월부터 12월까지 포모사 내 각종 자선 활동 지출 명세표

(단위: 대만 NT)

지역	날짜	활동 내역	금액	부록
화롄	2005. 10. 3.	화롄 지방 법원 검찰 보호서의 보호를 받고 있는 가석방자들을 방문. 영성 세미나 개최 및 방편법 지도. (동수 자원 봉사)	0	
미아오리	2005. 10. 15.	신체 마비 노인 돕기 사랑의 바자회에 참여, 채식 부스를 통해 불우이웃을 돕다.	4,330	A
지룽	2005. 10. 22.	지룽 환경보호국의 환경 보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우룬 해변 청소. (동수 자원 봉사)	4,373	B
창화	2005. 10. 26.	창화 교도소 방문. 재소자들을 위한 영성 세미나 개최 및 방편법 지도. (동수 자원 봉사)	0	
타이난	2005. 10. 27.	타이난 교도소 방문. 재소자들을 위한 영성 세미나 개최 및 방편법 지도. (동수 자원 봉사)	0	
타이난	2005. 10. 31.	지역 사회를 돌보고 인류를 고양시키기 위해 9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타이난 시 39개 도서관에 영성 서적 기증.	244,970	C
타이베이	2005. 11. 3.	10월 29일부터 11월 3일까지 타이베이 시립 교육관에서 마음을 정화하고 사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칭하이 무상사 예술 작품 전시회 개최. 시민들에게 영성과 시각 예술이 어우러진 축제 제공.	10,821	D
마아오리	2005. 11. 6.	“은혜에 감사, 심신지체 장애 노인에게 집요!” 행사에 참여, 채식 간식 제공.	7,270	E
타이난	2005. 11. 23.	타이난 명터 개방 교도소 방문. 재소자들을 위한 영성 세미나 개최 및 방편법 지도. (동수 자원 봉사)	0	
타이난	2005. 11. 24.	타이난 명터 개방 교도소 방문. 재소자들을 위한 영성 세미나 개최 및 방편법 지도. (동수 자원 봉사)	0	
타이베이	2005. 11. 24.	타이베이 현 정부 사회국에 “사랑의 바다” 이동 목욕 차량을 기증해 노숙자들에게 뜨겁고 깨끗한 목욕 시설을 제공함.	771,243	F
이란	2005. 12. 14.	겨울을 맞아 노숙자들에게 온정이 담긴 구호물품 전달.	4,000	G
신주	2005. 12. 16.	겨울을 맞아 노숙자, 독거 노인, 빈민 가정에 온정이 담긴 구호물품 전달.	100,124	H
창화	2005. 12. 18.	연말 환경 보호 활동. 시우웨이 향 산스 마을 도로 청소.	1,770	I
타이난	2005. 12. 22.	타이난 명터 개방 교도소 방문. 재소자들을 위한 영성 세미나 개최 및 방편법 지도. (동수 자원 봉사)	0	
지아이	2005. 12. 22.	겨울을 맞아 노숙자들에게 온정이 담긴 구호물품 전달.	16,375	J
타이베이	2005. 12. 22.	“겨울철 불우 이웃 돕기” 활동. 타이베이 시 노동국에 노숙자 취업 보조금 전달.	80,000	K
타이베이	2005. 12. 25.	12월 5일부터 25일까지 노숙자들에게 겨울철 구호물품 전달.	224,534	L
타이베이	2005. 12. 28.	타이베이 현 아이웨이 요양원 방문. 심신지체 및 뇌성마비 장애인을 위해 성인용 기저귀와 로션, 양말, 분유 제공. (동수 자원 봉사)	0	
총 계:			NT\$1,469,8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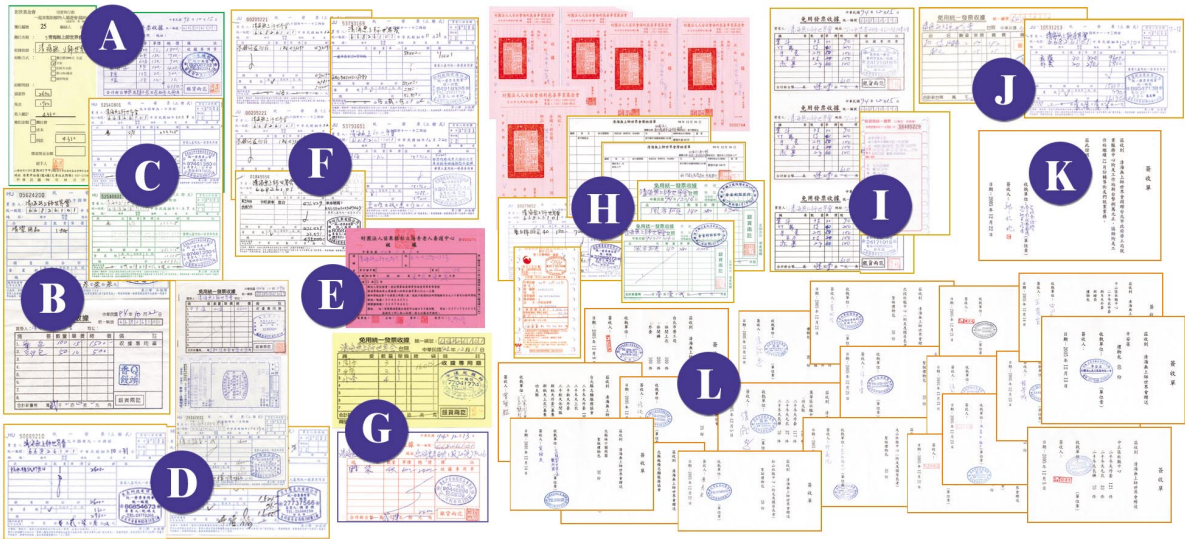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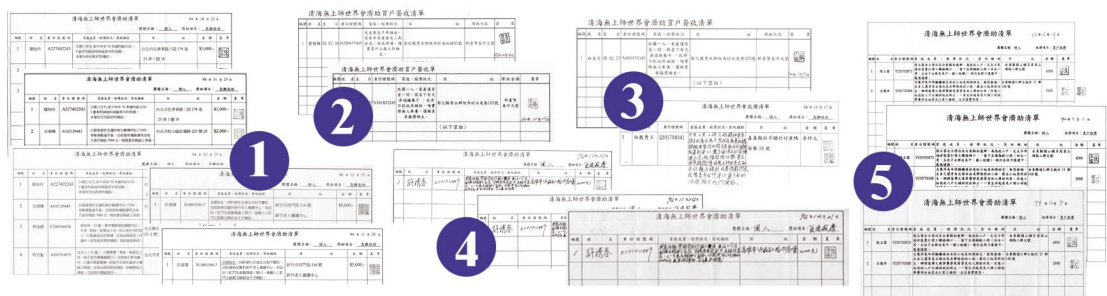


표 2 2005년 10월부터 12월까지 포모사 내 극빈 가정 돕기 지출 명세표

(단위: 대만 NT)

지역	2005년 10월		2005년 11월		2005년 12월		부록
	가구 수	금액	가구 수	금액	가구 수	금액	
타이베이	3	10,000	4	15,000	5	18,000	1
창화	1	3,000	1	3,000	1	3,000	2
지아이	1	3,000					3
가오슝	1	4,000	1	4,000	1	4,000	4
타이중	2	9,000	2	9,000	2	9,000	5
월별 소계	8	29,000	8	31,000	9	34,000	





2005년 1월부터 12월까지 청하이 무상사와 국제협회의 전세계 재난 구호 활동

수혜국	날짜(달)	활동 내역	지출 금액	미화 환산 금액	참고 뉴스잡지
인도	1월	남아시아 쓰나미 이재민 구호 활동	1,462,311.21루피	\$33,849.80	156
인도네시아	1월	남아시아 쓰나미 이재민 구호 활동	552,632,312.00루피아 181,820.00NT\$	\$65,047.45	156
	3월	니아스 섬 지진 구호 활동	146,526,000.00루피아	\$15,756.00	158
	6월	아체 지방 이재민들의 재건을 돕기 위해 학생들에게 교복 전달	419,349,045.00루피아	\$44,142.00	159
	7월	롬복과 쿠팡의 영양 실조 어린이 돕기	40,266,590.00루피아	\$4,238.59	160
코스타리카	1월	홍수 이재민 구호 활동	18,883,581.00콜론	\$41,064.31	157
태국	1월	남아시아 쓰나미 이재민 구호 활동	237,483.25바트	\$6,061.34	156
	12월	태국 남부 지역 홍수 이재민 구호 활동	500,923.25바트	\$12,666.85	163
소말리아	1월	남아시아 쓰나미 이재민 구호 활동	20,000.00달러	\$20,000.00	156
스리랑카	1월~2월	남아시아 쓰나미 이재민 구호 활동	12,060,980.00원 7,942,972.41루피	\$91,350.21	156, 157
칠레	2월	홍수 이재민 집 수리	700,000.00페소	\$1,200.00	159
영국	3월	밴드에이드 자선 단체에 기부	100,000.00달러	\$100,000.00	158
대한민국	3월	동수 수술비 지원.	5,000.00달러	\$5,000.00	157
브라질	5월	홍수 이재민 구호 활동	4,028.46레알	\$1,549.40	159
불가리아	8월	홍수 이재민 구호 활동	19,946.00달러	\$19,946.00	161
미국	8월~9월	허리케인 카트리나 이재민 구호 활동	92,782.60달러	\$92,782.60	160
	9월	허리케인 리타 이재민 구호 활동	11,112.50달러	\$11,112.50	161
	10월	허리케인 윌마 이재민 구호 활동	14,149.59달러	\$14,149.59	161
파키스탄과 카슈미르	10월	지진 이재민 구호 활동	12,016,618.00루피	\$202,428.60	161
프랑스	10월	프랑스에 거주하는 루마니아 빈민 돕기	3,913.78프랑	\$4,305.16	162
어울락	10월	태풍 이재민 구호 활동	21,000.00달러	\$21,000.00	162
포모사	1월~12월	매월 극빈 가정 돕기	386,000.00NT\$	\$12,062.50	157, 159, 161, 163
	1월~12월	전국 자선 활동 및 공익 활동	2,369,151.00NT\$	\$74,035.97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총 계:			미화 893,748.87달러		

다음 명단은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는 훌륭한 나라에 있는 연락인과 연락처입니다.
여러분의 지역에 연락인이 없다면 우리 본부나 가장 가까운 센터로 연락해 주십시오.

전세계 연락처

P.O.Box 9, Hsihu, Miaoli 36899, Formosa, R.O.C.
P.O.Box 730247, San Jose, CA 95173-0247, U.S.A

■ 아프리카 ■	라시페/ Ms. Monica Tereza Nogueira/ 55-81-8742-3431, 55-81-3304-0452
★ 앙골라: 센터/ 244-923-338082/ luandacentre@yahoo.com	상파울루/ 센터/ 55-11-5904-3083, 55-11-5579-1180/ br_center@yahoo.com.br
★ 베난: 센터/ 229-21-383982/ smbenin@yahoo.fr	★ 케냐:
★ 부르키나파소: 와기두구 센터/ 226-50-341704/ smburkinafaso@yahoo.fr	에드먼턴/ Mr. Brian Hokanson/ 1-780-444-6568
★ 카메룬: 두알라 센터/ 237-3-437232/ smcameroon@hotmail.com	에드먼턴/ Mr. & Mrs. Dang Van Sang/ 1-780-963-5240/ anh2sd@hotmail.com
★ 콩고민주공화국: 킨샤사/ 센터/ 243-810583010/ blessedcongo@yahoo.fr	런던/ 센터/ 1-519-933-7162/ uniself@yahoo.com
★ 가나: 센터/ 233-277607-528/ smghanac@yahoo.com	몬트리올/ 센터/ 1-514-277-4655/ smchmontreal@sympatico.ca
★ 케냐: 센터/ 254-726944744/ smoothgoing@gmail.com	몬트리올/ Ms. Euchariste Pierre/ 1-514-481-9816/ p_euchariste1@sympatico.ca
★ 마다가스카르: 안타나나리보/ Mr. Eric Razahidah/ 261-33-1115197/ hidahraza@yahoo.fr	몬트리올/ Mr. Hung The Nguyen/ 1-514-494-7511/ thehungnguyen@sympatico.ca
★ 모리셔스:	오타와/ Mr. Jianbo Wu/ 1-613-829-5668/ jianbowu2002@yahoo.ca
포트루이스/ Mr. Liang Dong Sheng/ 230-2566286/ sifu_liang91@hotmail.com	토론토/ 센터/ 1-416-503-0515
포트루이스/ Ms. Josiane Chan She Ping/ 230-242-0462/ smchmauritius@intnet.mu	토론토/ Ms. Diep Hoa/ 1-905-828-2279/ hoadiep0723@yahoo.com
★ 남아프리카공화국:	토론토/ Mr. & Mrs. Lenh Van Pham/ 1-416-282-5297/ hiepham@rogers.com
케이프타운/ 센터/ 27-83-952-5744/ capetowncentre@yahoo.com	토론토/ 연락인 사무실/ torontotcontact@yahoo.ca
요하네스버그/ Mr. Gerhard Vosloo/ 27-82-570-4437/ ghvosloo@mweb.co.za	밴쿠버/ Ms. Li-Hwa Liao/ 1-604-541-1530/ jsung2277@yahoo.ca
요하네스버그/ Ms. Khena Refiloe Truelove/ 27-83-5014853/ emzinikababa@yahoo.com	밴쿠버/ Ms. Sheila Coodin/ 1-604-580-4087/ qycontactperson@yahoo.ca
★ 토고:	밴쿠버/ Ms. Nguyen Thi Yen/ 1-604-581-7230/ yentnguyen2002@yahoo.com
팔리메/ 센터/ 228-4-410-948	★ 칠레:
로메/ 센터/ 228-2-222-864/ smtogo@yahoo.com	라세레나/ Mr. Esteban Zapata Guzman/ 56-51-451019/ laserenacenter@hotmail.com
로메/ Mr. David Chine/ 228-2-215-551	산티아고/ 센터/ 56-2-6385901/ chilecenter@hotmail.com
★ 우간다: 캄팔라/ Mr. Samuel Luyimbaazi/ 256-7764-9807	산티아고/ Mrs. Millaray Lizana Lizana/ 56-2-4544278/ millaraynoemi@yahoo.com
■ 아메리카 ■	★ 콜롬비아: 보고타 센터/ 57-1-2712861/ luzdelsonido@yahoo.com
★ 아르헨티나:	★ 코스타리카:
부에노스아이레스/ Ms. Mabel Alicia Kaplan/ 54-11-4-545-4640/ regresandoacasa25@yahoo.com.ar	산호세/ 센터/ 506-2200-753
★ 볼리비아:	산호세/ Ms. Laura Chen/ 506-3632-748/ lauracmesa401@hotmail.com
산타크루즈/ Ms. Adalina da Graca Munhoz/ 591-3-3301758/ adamunhoz@hotmail.com	★ 온두라스: 테구시갈파/ Ms. Edith Sagrario Ochoa/ 504-2250120
트리니다드/ Mr. Wu Chao Shien/ 591-4625964	★ 멕시코:
★ 브라질:	멕시코/ Ms. Sylvia Lagrange/ 52-686-568-4575/ godsdirectlove@yahoo.com.mx
벨렐/ Mr. Wei Cheng Wu/ 55-91-32234424, 55-91-32746611/ belemcenter@yahoo.com.br	멕시코 주/ 연락인 사무실 /52-55-5852-1256/ texcenter@gmail.com
고이아니아/ Mr. & Mrs. Erwin Madrid/ 55-62-3941-4510/ erwinserrano@terra.com.br	몬테레이/ Mr. Roque Antonio Leal Suffo/ 52-8-18104-1604/ monterreycenter@yahoo.com.mx
라시페/ 센터/ recifecenter@click21.com.br	★ 니카라과:
라시페/ Ms.Maria Vasconcelos de oliveira/ 55-81-3326-9048/ mariaoliveira_cultural@click21.com.br	마나과/ Mrs. Pastora Valdivia Iglesias/ 505-248-3651/ pastora7iglesia@yahoo.com

★ 파나마:	* 센터카:
파나마/ 센터/ 507-236-7495	프랭크퍼트 센터/ kycenter2000@yahoo.com
파나마/ Ms. Maritza E. R. de Leone/ 507-260-5021/ mrleone2@yahoo.com	프랭크퍼트/ Mr. & Mrs. Nguyen Minh Hung/ 1-502-695-7257/ Fujl.Nguyen@ky.gov
★ 파라과이:	* 센터카: Mr. & Mrs. Nguyen Minh Hung/ 1-502-695-7257/ Fujl.Nguyen@ky.gov
아순시온/ Ms. Emilce Cespedes Gimenez/ 595-2-523684/ ec_py2002@yahoo.com.ar	* 루이지애나: Mr. John L. Fontenot/ 1-504-914-3236/ jfontenot@hotmail.com
★ 페루:	* 메릴랜드: Mr. Nguyen Van Hieu/ 1-301-933-5490/ marylandcenter@yahoo.com
아레키파/ Mr. Julio Cardenas Pelizzari/ 51-54-453828/ qyarequipa@yahoo.com	* 메사추세츠:
쿠스코/ Ms. Patricia Kross Canal/ 51-84-232682/ cuscocentro@yahoo.com	보스턴/ 센터/ 1-978-528-6113/ bostonctr17@yahoo.com
리마/ Mr. Edgar Nadal & Ms. Teresa de Nadal/ 51-1-4667737/ edyter@viabcp.com	보스턴/ Ms. Gan Mai-Ky/ 1-508-791-7316
리마/ Mr. Victor Carrera/ 51-1-2650310	보스턴/ Mr. & Mrs. Huan-Chung Li/ 1-978-957-7021
푸노/ Ms. Mercedes Rodriguez/ 51-54-353039/ punocentroperu@yahoo.es	* 미시간: Mr. Martin John White/ 1-734-327-9114/ mading02000@yahoo.com
트루히요/ Mr. & Mrs. Raul Seugra Prado/ 51-44-221688/ rsp_trujillo@hotmail.com	* 미네소타: Ms. Quach Ngoc/ 1-612-722-7328/ quachmn@yahoo.com
★ 미국:	* 미주리: 블라/ Mr. & Mrs. Genda Chen/ 1-573-368-2679/ gchen@umr.edu
* 애리조나: 센터/ 1-602-264-3480	* 네바다: 라스베이거스/ Ms. Helen Wong/ 1-702-242-5688
* 애리조나: Mr. & Mrs. Kenny Ngo/ 1-602-404-5341/ kennyngoaz@hotmail.com	* 뉴멕시코: Mr. & Mrs. Nawarskas/ 1-505-342-2252/ nawarskas@comcast.net
* 아칸사스: Mr. Robert Jeffreys/ 1-479-253-8287/ bobodj@cox.net	* 뉴욕:
* 캘리포니아:	뉴욕/ Mr. & Mrs. Zhihua Dong/ 1-718-567-0064/ dong@physics.columbia.edu
로스앤젤레스/ 센터/ 1-951-674-7814	로체스터/ Ms. Debra Couch/ 1-585-256-3961/ dcouch@rochester.rr.com
로스앤젤레스/ Mr. & Mrs. Tsung-Liang Lin/ 1-626-914-4127/ tlin54@hotmail.com	* 노스캐롤라이나: Mr. & Mrs. Huynh Thien Tan/ 1-704-535-3789/ northcarolinacenter@hotmail.com
로스앤젤레스/ Mr. & Mrs. Dong Phung/ 1-626-284-9994/ SanGabriel99@hotmail.com	* 오하이오:
로스앤젤레스/ Mr. Gerald Martin/ 1-310-836-2740/ gmartin0999@hotmail.com	해밀턴/ Mr. & Mrs. Vu Van Phuong/ 1-513-887-8597/ ohiocenter@yahoo.com
세크라멘토/ Mr. & Mrs. Hieu De Tu/ 1-916-682-9540/ saccenter.ca@gmail.com	해밀턴/ Mr. Gilbert Rivera/ 1-513-226-3686/ wisdmeye@aol.com
샌디에이고/ 센터/ 1-619-280-7982/ quanyinsd@juno.com	* 오클라호마: Mr. & Mrs. Tran Kim Lam/ 1-405-632-1598/ ltran2292@yahoo.com
샌디에이고/ Mr. & Mrs. Tran Van Luu/ 1-619-475-9891	* 오리건:
샌프란시스코/ 센터/ khoaluong@aol.com	포틀랜드/ Mr. & Mrs. Minh Tran/ 1-503-614-0147/ oregon_center90@yahoo.com
샌프란시스코/ Mr. & Mrs. Khoa Dang Luong/ 1-415-753-2922	포틀랜드/ Ms. Youping Zhong/ 1-503-257-2437/ youping320@yahoo.com
샌프란시스코/ Mr. & Mrs. Dan Hoang/ 1-415-333-9119/ sfcenter@hotmail.com	* 펜실베이니아: Mr. & Mrs. Diep Tam Nguyen/ 1-610-529-3114/ DiepAshleyPa@aol.com
산호세/ Ms. Sophie Lapaire/ 1-650-464-8066/ Margorilico@yahoo.com	* 펜실베이니아: Mrs. Ella Flowers/ 1-215-879-6852
산호세/ Mr. Loc Petrus/ 1-510-813-2300/ petrul2k4@gmail.com	* 텍사스:
* 콜로라도: Ms. Victoria Singson/ 1-303-986-1248/ torahk@ureach.com	오스틴/ 센터/ 1-512-396-3471/ jldawu@yahoo.com
* 플로리다:	오스틴/ Mr. Dean Duong Tran/ 1-512-989-6113/ trandungdean@yahoo.com
케이프코랄/ Mr. & Mrs. Thai Dinh Nguyen/ 1-239-458-2639/ CapeCoralCenter@Gmail.com	달라스/ 센터/ 1-214-339-9004/ DallasCenter@yahoo.com
케이프코랄/ Ms. Trina L. Stokes/ 1-239-433-9369/ moonwater33597@yahoo.com	달라스/ Mr. Tim Mecha/ 1-972-395-0225/ tmecha@comcast.net
올랜드/ Mr. Michael Stephen Blake/ 1-407-333-0178/ smch_orlando@yahoo.com	달라스/ Mr. Weidong Duan/ 1-972-517-5807/ water96@yahoo.com
* 조지아: Mr. James Collins/ 1-770-294-1189/ georgiacenter@hotmail.com	달라스/ Mr. Jimmy Nguyen/ 1-972-206-2042/ JimmyHN Nguyen@yahoo.com
* 조지아: Mr. Roddell Pleassants/ 1-678-429-7958	휴스턴/ 센터/ 1-281-955-5782
* 조지아: Ms. Kim Dung Thi Nguyen/ 1-404-292-7952	휴스턴/ Ms. Carolyn Adamson/ 1-713-6652659/ cadamson@houston.rr.com
* 하와이: 센터/ 1-808-735-9180/ hawaiictr@hotmail.com	휴스턴/ Mr. & Mrs. Charles Le Nguyen/ 1-713-922-1492/ cuc-le@houston.rr.com
* 하와이: Mrs. Dorothy Kaomi Sakata/ 1-808-988-6059/ DorothySakata@aol.com	휴스턴/ Mr. & Mrs. Robert Yuan/ 1-281-251-3199/ ryuan@houston.rr.com
* 일리노이: Mr. Tran, Cao-Minh Lam/ 1-773-506-8853/ caominhtran@yahoo.com	샌안토니오/ Mr. Khoi Kim Le/ 1-210-558-2049/ lethong@hotmail.com
* 인디애나: Ms. Josephing Poelinitz/ 1-317-842-8119/ joslepoe@sbcglobal.net	* 버지니아: 센터/ 1-703-941-0067

버지니아비치/ 센터/ 1-757-461-5531/ liem_je23502@yahoo.com	서울/ 센터/ 02-577-2158/ goldenseoul@yahoo.co.kr
버지니아비치/ Mr. & Mrs. Hua Phi Anh/ 1-703-978-6791/ anhhly@hotmail.com	서울/ 유태인/ 02-795-3927
* 워싱턴:	부산/ 센터/ 051-334-9204~5/ chinghaibusan@hanmail.net
시애틀/ Mr. Ben Tran/ 1-425-643-3649/ benptran@aol.com	부산/ 송호준/ 051-903-4552
시애틀/ Mr. Edward Tan/ 1-206-228-8988/ edtan@usa.com	부산/ 황상원/ 051-805-7283
* 와이오밍: Ms. Esther Mary Cole/ 1-307-332-7108/ sumaemo@yahoo.com	대구/ 센터/ 053-743-4450/ chinghaidaegu@hanmail.net
★ 푸에르토리코:	대구/ 김익현/ 053-633-3346
카위/ Mrs. Disnalda Hernandez Morales/ 1-787-262-1874/ disnalda@caribe.net	대구/ 한현희/ 053-746-5338
■ 아시아 ■	대구/ 차재현/ 053-856-3849
★ 포모사:	대전/ 센터/ 042-625-4801/ smdaejjeon@yahoo.co.kr
타이베이/ 센터/ 886-2-2706-6168 / tpe.light@msa.hinet.net	대전/ 도봉희/ 042-471-0763/ dbhs44463@yahoo.co.kr
타이베이/ Mr. & Mrs. Loh, Shih-Hung/ 886-2-27062628/ shloh@ndmctsg.edu.tw	전주/ 센터/ 063-274-7553/ shc5824@hanmail.net
미아오리/ Mr. & Mrs. Chen, Tsan Gin/ 886-37-221618	전주/ 신현창/ 063-254-5824
미아오리/ Mr. Chu, Chen Pel/ 886-37-724726	광주/ 센터/ 062-525-7607
가오슝/ Mr. & Mrs. Zeng, Huan Zhong/ 886-7-733-1441	광주/ 조영대/ 061-394-6552/ smgwangju@naver.com
★ 홍콩:	인천/ 센터/ 032-867-5351/ lightundinchon@yahoo.co.kr
홍콩/ 센터/ 852-27495534	인천/ 이재문/ 032-812-1250
홍콩/ 연락인 사무실/ 852-26378257/ sm_hongkong@yahoo.com	안동/ 김삼태/ 054-821-3043/ smandong@hanmail.net
★ 인도: 캘커타/ Mr. Ashok Sinha/ 91-332655-6741/ shiva@cal.vsnl.net.in	창곡/ 센터/ 054-673-1399
★ 인도네시아:	★ 라오스:
발리/ 센터/ 62-361-231-040/ smch_ball@yahoo.com	비엔티안/ Mr. Somboon Phetphommassouk/ 856-21-415-262/ sobopphet@yahoo.com
발리/ Mr. Agus Wibawa/ 62-81-855-8001/ wibawa001@yahoo.com	★ 마카오:
자카르타/ 센터/ 62-21-6319068/ smch-jkt@dnet.net.id	마카오/ 센터/ 853-532231/ mcdvlove@yahoo.com.hk
자카르타/ Mr. Tai Eng Chew/ 62-21-6319061/ cle@envirotec.co.id	마카오/ 연락인 사무실/ 853-532995
자카르타/ Ms. Lie Ik Chin / 62-21-6510715/ herlina@ueil.com	★ 말레이시아:
자카르타/ Ms. Murniati Kamarga/ 62-21-3840845/ hai@cbn.net.id	알로르세타르/ Mr. Chiao-Shui Yu/ 60-4-7877453
자카르타/ Mr. I Ketut P. Swastika/ 62-21-7364470/ ketut@sinarma.co.id	조호르바루/ Mr. & Mrs. Chi-Liang Chen/ 607-6622518/ supreme2@tm.net.my
말랑/ Mr. Judy R. Wartono/ 62-341-491-188/ yudi_wartono@telkom.net	팔라롬푸르/ 센터/ 60-3-21453904/ kismch@yahoo.com
말랑/ Mr. Henry Soekianto / 62-341-325-832	팔라롬푸르/ Mr. Phua Kai Liang/ 60-12-307 3002/ klnet23@yahoo.com
메단/ Mrs. Merlinda Sjaifuddin/ 62-61-4514656/ smch_medan@hotmail.com	페낭/ 센터/ 604-2285853/ pgsmch@pd.jaring.my
수라바야/ 센터/ 62-31-5612880/ ahimsasb@indosat.net.id	페낭/ Mr. & Mrs. Lim Wah Soon/ 604-6437017
수라바야/ Mr. Harry Limanto Liem/ 62-31-594-5868/harry_k@sby.dnet.net.id	★ 몽골:
육아카르타/ Mr. Augustinus Madyana Putra / 62-274-411-701/ tadlaningtyas@lycos.com	울란바토르/ Ms. Erdenechimeg Baasandamba/ 976-11-310908/ baasandamba@yahoo.com
★ 이스라엘: Mr. Yaron Adari/ yadari@freeuk.com	바가누르/ Mr. & Mrs. Gursad Bayarsaikhan/ 976-121-21174
★ 일본:	★ 미얀마: Mr. Sai San Aik/ 951-667427/ ssaikss@mptmail.net.mm
군마/ Ms. Hiroko Ichiba/ 81-27-9961022/ divinaiv@mith.biglobe.ne.jp	★ 네팔:
도쿄/ Ms. Yukiko Sugihara/ 81-90-6104-5770/ lotus@sky.plala.or.jp	카트만두/ 센터/ 977-1-4254-481/ chinghai_kathmandu@hotmail.com
도쿄/ Ms. Yoshie Takeda/ 81-90-3963-0755/ y-plus@f6.dion.ne.jp	카트만두/ Mr. Ajay Shrestha/ 977-1-4473-558/ ajaystha@hotmail.com
★ 대한민국:	포카라/ 센터/ 977-61-531643
출판사/ 042-543-9250/ chinghaikpt@yahoo.co.kr	포카라/ Mr. Bishnu Neupane/ 977-61-31643/ neupanebishnu@hotmail.com
영동/ 센터/ 054-532-5821/ hounri21@yahoo.co.kr	★ 필리핀: 마닐라 센터/ 63-917-474-9845/ manilach@hotmail.com

<p>★ 싱가포르:</p> <p>싱가포르/ 센터/ 65-6741-7001/ chinghai@singnet.com.sg</p> <p>싱가포르/ 연락인 사무실/ 65-6846-9237</p> <p>★ 스리랑카:</p> <p>플롬보/ Mr. Lawrance Fernando/ 94-1-412115/ samantha_nbl@zeynet.com</p> <p>★ 태국:</p> <p>방콕/ 센터/ 662-674-2690/ bkcc66@gmail.com</p> <p>방콕/ Ms. Laddawan Na Ranong/ 66-1-8690636/66-2-5914571/ edasnlad@stou.ac.th</p> <p>차앙마이/ Ms. Siriwan Supatrchamnian/ 66-50-332136/ sirwanliy@gmail.com</p> <p>콘퀸/ 센터/ 66-43-378112</p> <p>송크라/ 센터/ 66-74-323694</p> <p>■ 유럽 ■</p> <p>★ 오스트리아:</p> <p>비엔나/ 센터/ 43-699-12272892/ Chinghai@gmx.at</p> <p>비엔나/ Mr. & Mrs. Nguyen Van Dinh/ 43-2955-70535</p> <p>★ 벨기에:</p> <p>브뤼셀/ Ms. Ann Goorts/ 32-472-670272/ qybelgium@yahoo.com</p> <p>브뤼셀/ Mr. Ellen De Maesschalk/ 32-486-242248</p> <p>★ 불가리아:</p> <p>소피아/ Mr. Ruslan Staykov/ 359-2-8575358/ www.ruslan@yahoo.com</p> <p>플로브디프/ Mrs. Miglena Bozhikova/ 359-32-940726/ chinghaiplovdiv@yahoo.com</p> <p>★ 크로아티아/ Mr. Zeljko Starcevic/ 38551251081/ zeljko@mindless.com</p> <p>★ 체코:</p> <p>프라하/ 센터/ 42-02-6126-3031/ czech-center@spojenisbohem.cz</p> <p>프라하/ Mrs. Marcela Gerlova/ 42-0-608-265-305</p> <p>★ 덴마크: Mr. Thanh Nguyen/ 45-66-190459/ my@webspeed.dk</p> <p>★ 핀란드:</p> <p>헬싱키/ Mr.Jussi Pohjolainen/358-40-548-3533/ jussi_pohjolainen@yahoo.com</p> <p>헬싱키/ Mr.Hannu Hovilainen/ 358-40-734-3516/ helsinkicenter@yahoo.com</p> <p>★ 프랑스:</p> <p>알사스 센터/ Ms. Despretz Anne-Claire/ 33-3-89770607/ arclal@infonie.fr</p> <p>아르데슈/ Ms. Reynet Jeanine/ 33-4-75376232</p> <p>몽펠리에/ Mr. Nguyen Tich Hung/ 33-4-67413257/ tich,hung@infonie.fr</p> <p>파리/ 센터/ 33-1-4300-6282</p> <p>파리/ Ms. Lancelot Isabelle/33-1-7069-3210/ llancelot@celestiafamily.net</p> <p>★ 독일:</p> <p>베를린/ 센터/ 49-30-3470-9262/ Grigorii.Guinzbourg@gmx.de</p> <p>뒤셀도르프/ 연락인 사무실/ 49-203-4846374/ ngoc-thao.nguyen@gmx.de,dusseldorfcenter@hotmail.com</p> <p>함부르크/ 연락인 사무실/ 49-58115491/ HamburgCenter@gmx.de</p> <p>뮌헨/ Ms. Johanna Hoening/ 49-8170-997050/ ChingHai@aol.com</p> <p>뮌헨/ Ms. Kang Cheng/ 49-89-3616347/ lovesource@yahoo.de</p>	<p>★ 그리스:</p> <p>아테네/ Ms.Vicky Chrisikou/ 30-210-8022009, 30-6944-470094/ luckychrisikou@yahoo.gr</p> <p>★ 네덜란드:</p> <p>암스테르담/ Mr. kamlung cheng/ 31-647838638/kamlung27@hotmail.com</p> <p>★ 헝가리:</p> <p>부다페스트/ 센터/ 361-363-3896/ budapestcenter@freemail.hu</p> <p>부다페스트/ Mr. Lehel Csaba/ 36-96-2400-259/ clehel@freemail.hu</p> <p>부다페스트/ Gabor Soha/ 36-20-221-5040/ gabor.soha@gmail.com</p> <p>★ 이탈리아:</p> <p>페스카라/ Bettina ADANK/ 39-085-454-9184/ bettina.adank@fastwebnet.it</p> <p>★ 아일랜드:</p> <p>더블린/ Mr. & Mrs. Bernard Leech/ 353-1-6249050/ dublinquanyin@yahoo.co.uk</p> <p>★ 노르웨이:</p> <p>오슬로/ Ms. Marte Hagen/47-64978762, 47-92829803/ marte.hagen@gmail.com</p> <p>★ 폴란드:</p> <p>슈체친/ Mrs. Grazyna Plociniazk/ 48-91-4874953/ gingal@wp.pl</p> <p>바르샤바/ Ms. Elzbieta Ukleja/ 48-22-8367814/ elzbieta_q1@yahoo.com</p> <p>★ 포르투갈:</p> <p>레이리아/ Mr. Antonio Jose Vieira Caldeira/ 3512625-97924/ alcoa_center@hotmail.com</p> <p>★ 루마니아: 부차레스트/ 센터/ bucharestq@yahoo.com</p> <p>★ 러시아:</p> <p>모스크바/ Mrs. Leera Gareyeva/ 7-095-732-08-32/ boulgakov@tri-el.ru</p> <p>★ 슬로베니아:</p> <p>루블랴나/ 센터/ 386-1-5182542/ quanyin@siol.net</p> <p>루블랴나/ Mr. Janez Pavlovic/ 386-41-320-268/ janez.pavlovic@siol.net</p> <p>마리보르/ Mr. Rastislav Alfonz Kovacic/ 386-3-581-49-81/ rast05alfonz@yahoo.com</p> <p>★ 스페인:</p> <p>마드리드/ Ms. Lidia Kong/34-91-547-0366</p> <p>마드리드/ Mr. Claudio Octavio Silva Zuniga/ 34-667090831/ claudiosilvachile@yahoo.es</p> <p>말라가/ Mr. Wang Ya-King/ 34-95-235-1521</p> <p>발렌시아/ Vegetarian House/ 34-96-3744361</p> <p>발렌시아/ Mr. Yu Xi-Qi/ 34-96-3347061/ valenciachinghai@yahoo.es</p> <p>★ 스웨덴:</p> <p>앵겔홀름/ Mrs. Luu Thi Dung/ 46-431-26151/ Angelholmswe@yahoo.com</p> <p>오레/ Ms. Viveka Widlund/ 46-647-32097/ smchsweden@yahoo.se</p> <p>스톡홀름/ Mr. Mats Gigard/ 46-8-882207/ mats.gigard@telia.com</p> <p>★ 스위스:</p> <p>제네바/ Ms. Feng-Li Liu/ 41-22-797-3789/ fengli@lio.org</p> <p>제네바/ Ms. Klein Ursula/ 41-22-369-1550/ uklein@tiscali.ch</p> <p>★ 영국 연방:</p> <p>* 잉글랜드:</p>
---	---

임스위치/ Mr. Shahid Mahmood/ 44-1473-436961/ shahidocean@hotmail.com	멜버른/ 센터/ melbsmch@aol.com
런던/ 센터/ 44-2088-419866/ pnk@mmatters19.freemove.co.uk	멜버른/ Mr. & Mrs. Rob Nagtegaal/ 61-3-5282-4431/ rosrobbery@aol.com
런던/ Mr. Nicholas Gardiner/ 44-2089-773647	멜버른/ Mr. Phong Minh Tan Do/ 61-3-9850-2553/ phonglovene@yahoo.com
런던/ Mrs. C Y Man/ 44-1895-254521/ chuk_yee_man@hotmail.com	멜버른/ Mr. Alan Khor/ 61-3-9857-4239/ ckhor@netspace.net.au
스토크온트렌트: Mrs. Janet Weller/ 44-1782-866489/ j.weller4@ntlworld.com	퍼스/ Mr. David Robert Brooks/ 61-8-9418-6125/ daveb@inet.net.au
서리/ Mr. C. W. Wo/ 44-1293-416698/ stmchw@hotmail.com	퍼스/ Mr. Ly Van Tri/ 61-8-9242-2848
* 스코틀랜드:	시드니/ Mr. Eino Laidsaar/ 61-2-655-04455/ einoforquanyinsydney@yahoo.com
에든버러/ Mrs. Annette Lillig/ 44-131-666-0319/ lillig2002@yahoo.co.uk	시드니/ Mr. Ly An Thanh/ 61-2-9823-8223/ anbinh_sydney@yahoo.com.au
■ 오세아니아 ■	★ 뉴질랜드:
★ 호주:	오를랜드/ Mrs. Noelyne No Thi Ishibasi/ 649-277-9285/ takahide@xtra.co.nz
에들레이드/ Mr. Leon Liensavanh/ 618-8332-6192/ leonadelade@hotmail.com	오를랜드/ Mr. Peter Morrin/ 64-9-579-2452/ ptr@ihug.co.nz
브리즈번/ 센터/ briscentre_en@yahoo.com.au	오를랜드/ Mr. Chang Jen-Hor/ 64-9-2749298/ changjenhor@yahoo.com
브리즈번/ Mr. Gerry Blisshop/ 61-7-3901-6235	크라이스트처치/ Mr. Michael Lin/ 643-343-6918/ nzchchsmch@yahoo.com.au
브리즈번/ Mrs. Tieng Thi Minh Chau/ 617-3715-7230/ ctieng_briscentre@yahoo.com.au	해밀턴/ Mr. Glen Vincent Prime/ 64-211399934/ hamnzcont@yahoo.co.nz
브리즈번/ Mr. & Mrs. Yun-Lung Chen/ 617-3344-2519/ dlch136@hotmail.com	넬슨/ Ms. Sharlene Lee/ 64-3-539-1313/ shale@ihug.co.nz
캔버라/ Mr. Hoang Khanh/ 61-2-6259-1993/ smcanberra@hotmail.com	* * * * *

* 전 세계 연락처는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최신 연락처를 확인하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http:// www.Godsdirectcontact.org.tw/eng/cp/index.htm](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cp/index.htm)

'예술과 영성' TV 프로그램 비디오테이프

이메일: TV@Godsdirectcontact.org

팩스: 1-413-751-0848 (미국)

SM 경서팀

이메일: divine@Godsdirectcontact.org

팩스: 1-240-352-5613/ 886-949-883-778

(스승님의 책을 각국 언어로 번역하실 분은 연락 바랍니다.)

수행 상담소

이메일: lovewish@Godsdirectcontact.org

팩스: 886-946-730-699

SM 보석 주식회사

이메일: smcj@mail.sm-cj.com

전화: 886-2-8791-0860

팩스: 886-2-8791-1216

<http://www.sm-cj.com>

뉴스그룹

이메일: lovenews@Godsdirectcontact.org

팩스: 1-801-740-9196/ 886-946-728-475

포모사 타이베이 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

이메일: smchbooks@Godsdirectcontact.org

전화: (886) 2-8787-3935

팩스: (886) 2-8787-0873

대한민국 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

이메일: chinghaikpt@yahoo.co.kr

전화: 042-543-9250

팩스: 042-543-9258

(영어나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실 수 있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

대한민국 청하이 무상사 무상예술 연락처

이메일: hounmri21@yahoo.co.kr

전화: 054-532-5821

팩스: 054-532-5822

(천의, SM 보석, 해피요기, 만세등, 그림... 등의 주문을 원하시는 분은 영동 센터로 문의해 주십시오.)



스승님의 농담

정말 간단니까!

칭하이 무상사/ 2003. 2. 4.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DVD No. 754

새로 온 목사가 막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긴장한 나머지 한 10분 정도 말하고 나자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그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신학교에서 배운 게 기억났는데, 그건 바로 다음에 할 말이 떠오를 때까지 마지막에 했던 말을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해보기로 하고 마지막 말을 반복했습니다. “보라! 내가 가리라! 내가 곧 가리라!” 그러나 여전히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한 번 더 반복했지요. “보라! 내가 곧 가리라!” 그래도 소용이 없자 또 한 번 시도했지요. 그러나 이번엔 너무 용을 쓴 나머지 앞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연단을 한쪽으로 쓰러뜨리고 꽃병을 넘어뜨린 후 앞줄에 앉아 있던 나이 든 부인의 무릎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젊은 목사는 사과를 하며 어찌된 일인지 설명하려고 했지요. 하지만 그 노부인은 괜찮다고 하면서 말했어요. “젊은 양반, 네 잘못이야. 내가 피했어야만 했는데. 자네가 세 번이나 간단고 미리 말했잖아!” ♥



이젠 알겠지!

칭하이 무상사/ 2003. 2. 4.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DVD No. 754



한 소년이 울면서 엄마에게 쫓아갔어요. 여동생이 그의 머리를 잡아 당겼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소년을 달랬어요. “화내지 마. 그 애는 머리를 당기면 아프다는 걸 몰라서 그런 거야.” 잠시 후 더 큰 울음소리가 들려서 엄마가 가 봤더니 이번엔 여동생이 울고 있었어요. 그 오빠가 말했지요. “이젠 애도 알 거예요!” ♥

스승님의 위 농담을 동영상으로 보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주위 분들과 함께 유쾌한 스승님의 농담을 나누십시오.

<http://www.Godsdirectcontact.net/eng/news/163/jk1.htm> (미국)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news/163/jk1.htm> (포모사)

건강하고 아늑한 천연 개집

지속적으로 모든 중생을 돌보고 계신 자비로운 칭하이 무상사는 최근 사랑의 개집을 디자인해 '인류의 가장 좋은 친구들'에게 따뜻하고 아늑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도록 지지 하셨습니다. 스승님은 개의 생활에 필요한 실질적인 요구와 주인의 편의도 함께 고려하도록 당부하셨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 개집들이 탄생했다.

- ♥ 가볍고, 단순하고, 통풍이 잘 되며 조립하기 쉬움.
- ♥ 단단한 원목으로 제작. 방부 처리 된 받침.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에 건강을 고려해 내벽은 페인트를 칠하지 않고 외벽은 친환경적인 무독성 페인트로 마감함.
- ♥ 비바람을 막기 위해 측면에 문을 배치함.
- ♥ 투명 플라스틱 판으로 덮인 넓은 현관 복도는 비 오는 날과 화창한 날 모두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줌.
- ♥ 편안한 휴식과 취침을 위한 3cm 두께의 의료용 폼패드(foam pad).
- ♥ 두 개의 창문은 탈부착이 가능해서 여름에는 통풍이 잘 되도록 열어두고, 겨울에는 추위를 막도록 닫을 수 있음.

스승님의 조언:

개집은 쾌적하고 좋은 날씨에만 사용하고, 너무 춥거나 더운 날씨, 야간, 위험한 지역에서는 애완동물을 안전한 집 안에 두어 나쁜 이웃과 야생동물, 도둑 등의 위험에서 보호해야 합니다.

중형 개집

(2층집): 아래층은 거실, 위층은 침실용임. 쉽게 청소할 수 있도록 옆 벽면을 떼어낼 수 있고, 지붕을 들어올릴 수 있다.



소형 개집

지붕을 들어올려 한쪽으로 고정시킬 수 있어 청소하기 편리함.



대형 개집

청소하기 쉽게 창을 떼어낼 수 있음.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CD 놀라운 새해 선물 - 스승님의 시 CD 편집 [어울락에]

스승님은 달콤하고 감미로운 목소리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느끼셨던 사랑의 감정과 구도 과정 중에 느끼셨던 내적 갈등, 가슴을 찢는 듯한 출가의 서원 그리고 신의 성스러운 화현을 떠올려 준다. 스승님의 노래는 때로는 낮게 울려 퍼지고 때로는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며, 영혼을 휘젓는 진심이 담긴 멜로디는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세속적인 생각들을 없애주며 천상의 세계로 끌어올려 준다.

- CD-M027 그날과 오늘
- CD-M028 영원히 간직하세요
- CD-M029 향기로운 손길
(어울락 가수가 노래한 스승님의 시)
- CD-M030 한밤의 꿈
- CD-M031 시간을 넘어서
- CD-M032 도대체



예술과 영성 TV 프로그램

-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 DVD TV-4 (영어+15개 국어 자막)

내용 요약: 2004년 12월 26일 남아시아에 발생한 거대한 지진과 해일로 100년 만에 최악의 재난이 발생했다. 계속 들려오는 참사 소식에 전세계의 사랑과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구조물자와 구호 팀, 의료진이 피해 지역으로 투입되었다. 재난 소식에 매우 염려하신 스승님은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에 신속히 구호 활동을 시작하라고 지시하셨다. 이에 포모사와 여러 국가의 회원들은 즉시 구조·구호 팀을 조직해, 먼저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인도네시아 아체 지방과 스리랑카, 태국 등지에 들어가 의료 지원과 긴급 구호물자를 제공했다. 동수들은 물질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신의 축복과 전 우주를 두루 감싸는 사랑을 통해 이재민들의 영혼을 위로해 주었다.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DVD

